

지원 스님(조계종 포교원장)
"질투 · 분노 내려놓고
관세음보살 부르세요"
8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1월 15일) · 주간

제1034호 2015년 3월 5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따라 이뤄진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한다면
행복과 보람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다.

범종교인 '답게 삽시다' 자성 운동

KCRP, 25일 선포…추진본부 구성하고 전국 확산 계획



KCRP는 2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건강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종교인 답게, 사람답게 살겠다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사진=노덕현 기자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자승, 이하 KCRP)가 건강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종교인들의 자성과 참회를 촉구하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전개한다.

KCRP는 2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관련 운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종교인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나설 것임을 다짐했다. '답게'는 사람답게, 종교인답게, 사회인답게 공공을 위해 이바지하겠다는 정언적 각오다.

7대 종단 평신도들이 주축이 돼 꾸려가는 이번 운동은 4월말까지 추진본부가 구성되면 본격 확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이 등장하게 된 데는 최근 사회에 불신과 갈등, 분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일어난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 모두가 제각기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이어지면서 종교인들부터 각자 자리에서 본분을 지키자는 의미로 기획됐다.

KCRP는 "공동체성이 훼손당하는 현실 바탕에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배려 없는 이기주의, 생명경시 사상, 자기중심주의와 분열주의가 자리하고 있다"며 "인류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헌신해야하는 종교인의 사명을 지키고자 그동안의 책무를 등한시한 점을 참회, 각 종교의 믿음과 가르침을 기반으로 이번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임장수 조계종중앙신도회 부회장은 대표로 읽은 선언문에서 "부처의 대자대비하신 가르침이나 예수의 사랑과 십자가, 공자의 인의(仁義), 수운대신사의 시천주, 소태산 대종사의 은혜, 민족종교의 해원상생의 가르침을 되새겨 자신을 성찰하고

사회 갈등… '본분' 못 지킨 탓
7대 종단 평신도 주축 돼
바르게 살자 행동강령 서약
4월 정식 운동본부 발족 계획

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 새로운 변혁의 기운을 불러일으켜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행동강령 또한 마련됐다. 7대종단 평신도 대표들은 종교인, 직업인, 사회인, 국민, 인류로서 바람직하게 살아가겠다는 실천지침을 번갈아가며 읽었다. 이에 따르면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람답게' '주어진 일은 정직과 성실로 수행하는 직업인답게' '공공선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인답게'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는 지구인답게' 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승 스님은 "'답게 살자'는 사회 갈등을 치유한다는 점에서 시대와 부합하는 현실적 실천이자 평신도들이 주체가 된 의미 깊은 운동"이라고 평하며 "역사적으로 종교인들이 사회가 어려울 때 빛과 희망을 준 것처럼 이 운동이 확산돼 사회에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권길중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준비위원장 역시 "어둡다고 느끼면 먼저 촛불을 켜라는 말이 있다"며 "국민의 과반수가 종교인이다. 우리가 촛불이 돼 지속적 쇄신을 이뤄낸다면 세상은 곧 밝아지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역시 "사회 속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종교인들이 나서준 것에 대해 존경을 표한다"며 "스스로를 정화하고 건강하게 만들려는 범종교적 노력이 사회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다.

KCRP는 4월 초 종단 평신도 대표 1백여명이 모여 운동 전개 방향을 고민하는 세미나를 개최한 후 4월 30일 '답게살기 운동본부'를 정식으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후 운동 실천대회를 열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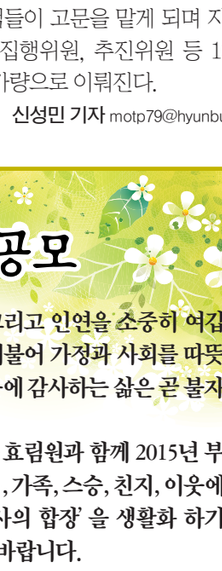
한편 이날 KCRP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광복 70주년 남북 종교인 공동기도회 사업, 제10차 세계종교인평화회의 총회 국내 유치, KCRP 30주년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선학원과의 갈등 대화 통해 풀겠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 26일 밝혀

추진위 100명 규모 구성
오는 3월 중순 공식 발족



오는 3월 중순 출범하는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법등 스님〈사진〉이 선학원과의 갈등을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종적인 목표는 법인법 제정 이전 2002년 합의 수준으로 관계를 복원하는 것으로 삼았다.

법등 스님은 2월 2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종단 스님들과 선학원 구성원 스님들이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면 길이 있을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하면 해법이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법인법 이전 2002년 합의 수준으로 관계를 복원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대화의 타협의 가장 큰 걸림돌로 상호간 팽배해 있는 불신을 지적했다. 법등 스님은 "종단과 선학원 모두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자세가 부족했다"면서 "서로를 대화 파트너로서 존중한다면 서로의 입장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관리법에 대해 "법인에 대한 종단 차원의 등록은 필요하다"면서도 "현행 법 역시 '관리'보다는 '등록'과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런 측면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선학원정상화를위한특별법에 근거해 구성되는 종단적 조직이다. 종정 진제 스님을 증명으로 원로의원과 명예원로의원 스님들이 고문을 맡게 되며 지도위원, 집행위원, 추진위원 등 100여명 가량으로 이뤄진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소·폭로… '오리무중' 해인총림 방장 선출

대원·원각 스님 추천위 상호 攻防… 선원수좌회 중재 불발

합의 추대 주장하면서
네거티브 난무 '눈살'

법보종찰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선출이 추대가 아닌 경선으로 치러질 공산이 커졌다. 여기에 각 후보로 추대된 대원, 원각 스님 양측 추천위원회 간 제소와 폭로 등 상호 공방까지 이어져 감정의 골까지 깊어지고 있다.

벽산당 원각 스님 해인총림 방장 추천위원회는 2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각 스님(원당암 회주)을 방장으로 추대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방장 후보인 대원 스님과 원택, 선각 스님에 대한 의혹과 일련의 사전 선거 운동까지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원각 스님 추천위는 "대원 스님은 20년 넘게 사설사암 '학림사'를 최근까지 종단에 등록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등록했다. 2013년 원로의원 선출 당시에는 학림사가 '대각회' 소속이라고 했지만 모두가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원 스님 추대위원회 측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원각 스님 추천위에 따르면 대원 스님 측이 前 방장 법전 스님 49재 기간부터 현재까지 사중 인력을 동원해 말사 주지와 재적승, 비구니 스님들을 찾아다니며 지지 성명을 받아내고 있으며, 관련 지침까지 시달한 것으로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각 스님 추천위 측은 대원 스님 추천위 공동위원장 세민 스님(원로의원), 종진 스님(율주), 원융 스님(수좌)과 선각 스님(선원장)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을 이유로 중앙선관위와 호법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제9대 해인총림 방장후보 학산대원 대종사 추천위원회는 2월 2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원각 스님 추천위가 제기한 문제를 해명 · 반박했다.

또한 원각 스님 추천위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원 스님 추천위는 "수행은 뒷전으로 하고 평생 종단 정치에만 매달려온 스님들의 기자회견다웠다"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조계종 원로 대종사의 위의(威儀)를 제멋대로 훼손하는 추태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응할 가치도 없는 원각 스님 측의 흑색선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조계종과 해인총림 전체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 스님들의 참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 추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원, 원각 스님 진영 모두 각자가 후보로 추대한 스님을 합의 추대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합의 추대의 분수령이 될 전국선원수좌회의 25일 회동이 불발로 그쳤기 때문이다.

해인총림의 최고 어른인 방장을 모시는 과정이 혼탁해지는 것에 대한 불교계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응 스님은 "총림의 최고 권위이자 위엄인 방장마저도 완장이 되는 세상이 됐다"면서 "각 후보를 지지하는 사중 스님들의 폭로와 대립의 구도를 해인사는 과연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신성민 기자

사 고

감사편지 공모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통의 감사편지는 자기 힐링과 더불어 가정과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하는 삶은 곧 불자다운 삶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과 함께 201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부처님, 가족, 스승, 친지, 이웃에게 쓰는 '감사편지'를 공모합니다. '감사의 합장'을 생활화 하기 위한 이 행사에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공모 일시 3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원고 매수 200자 원고지 15~20매 (A4 용지 2매 글자크기 10포인트)
접수·문의 우편(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이메일(linus@hyunbul.com) 접수 전화 (02)2004-8200
수상 내역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입선 3명으로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부상이 수여됩니다.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
후원 | 불교여성개발원 · 동산반야회 · 공림공양회 · 여여원

벽산당 원각큰스님을 해인사 방장으로 추천하면서

해인총림 방장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해인사 산중총회가 3월 7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벽산당 원각큰스님을 차기 해인사 방장으로 모시고자 해인사 산중대중의 염원을 모은 '벽산당 원각큰스님 해인사 방장 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대중 앞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1. 원각 큰스님을 해인총림 방장으로 모시고자 하는 이유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법보종찰이며, 모범적인 총림운영과 교육도량으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이었습니다. 또한 해인사는 그동안 해인사 산중의 각 문중과 재적승들이 개방적이고 원융적인 산중운영을 해왔던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많은 스님들이 해인사를 의지해 교학을 연찬하고 참선정진 해왔으며, 대다수 스님들이 해인사를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해인사는 '해진사(해가 진 사찰)'라는 조롱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고, 청백가풍의 오랜 전통은 사라지고 세속적 풍조가 만연하는 사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팽배합니다. 뜻있는 수좌들과 학인들은 더 이상 해인사를 찾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회자됩니다. 해인사가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방장스님 측근에 의한 전횡독재와 원융화합체제 붕괴, '독살이' 운영, 대규모 납골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 추진, 선원 입방자를 선별하여 받는 점(일명 '조리질 방부'), 해인사 선원장이 납골사찰들(고불암, 도림사, 미타원)의 주지를 겸하면서 수익사업에 전념하는 점 해인사 선원장이 결제기간에도 수시로 외부출입을 자유로이 하면서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최고급 외제차(BMW 7시리즈, 아우디 A8,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를 운행하면서 해인사 세속화에 앞장서는 점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총림의 방장스님을 모셔야 하는 해인사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 훌륭한 방장스님을 모시지 못한다면 해인사는 특정인의 '독살이'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세속적 사찰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 이상에서 언급한 해인사를 망치고 있는 병폐를 뿌리 뽑는데 앞장 설 분은 누구입니까?

– 해인사의 청백가풍 회복과 선풍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대중을 이끌어갈 분은 누구입니까?

– 해인사의 많은 문중과 재적승들을 원융으로 화합시켜 주실 분은 누구입니까?

– 법보종찰의 명성에 걸맞는 불교학의 중추적 역량을 조성하고 승가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벽산당 원각큰스님 해인총림 방장 추천위원회'와 해인사 재적승들은 이러한 해인사의 **시대적 책임을 다하실 분은 바로 원각큰스님이라 생각합니다.**

원각큰스님은 근대 한국 선불교의 큰 봉우리인 용성, 인곡, 혜암 전 조계종 종정스님의 법맥을 이어온 제자로서, 1967년 해인총림 동안거를 시작으로 평생을 수선납자로 살아오신 수행자입니다. 그리고 출가 이후 50년 가까이 가야산과 해인사를 떠나지 않고 정진해 오신 분으로서 누구보다 해인사의 수행가풍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해인총림 유나 직책을 십 수년째 수행하면서 총림 화합운영에 기여했으며, 현재 조계종전국선원수좌회의 공동대표로서 선풍진작에 앞장서고 계신 분입니다. 성품이 강직하면서도 온화하여 조주가풍을 펼치시는 분으로 총림대중과 해인사 재적승들을 화합으로 이끌어 해인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2. 대원스님께서 해인사 방장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대원큰스님께서 훌륭한 선 지도자임은 널리 알려진 분이지만, 아쉽게도 1970년대 초 해인사선원에서 몇 안거를 사신 이후에는 한번도 해인사에서 사시거나 소임으로 기여하신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스님께서는 해인사의 가풍을 잘 알지 못하고 계시며, 많은 문중과 재적승을 화합으로 이끄는데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해인사는 그동안의 적폐를 뿌리 뽑고, 세속화 된 '독살이' 체제를 끝내고, 정법에 입각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원스님을 추천하고 옹립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동안 해인사를 망쳐왔던 당사자가 아닙니까? 그들이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을 이어가기 위해 또다시 대원스님을 추천하고 운동하는데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 30년 가까이 성철스님께서 해인사 방장으로 계셨고 조계종 종정을 겸하시면서 많은 덕화를 펼친 바 있습니다. 이에 많은 신도들의 시주와 헌납이 답지하여 전국 곳곳에 사찰을 십 수개씩 건립했는데, 이러한 사찰들을 종단이나 해인사로 귀속시키지 않고 별도의 백련재단법인을 만들어 거기에 등록받아 탈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 이사장스님이 대원스님을 해인총림 방장으로 모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스님이 무슨 권리가 있다고 해인사 산중총회에 주도적으로 개입합니까?

이처럼 평소 해인사를 망치고 있다고 지탄 받는 스님이나, 종단과 무관한 별도의 재단법인 사찰을 관리운영하는 스님이 대원스님을 방장으로 옹립하는데 앞장서기 때문에 우리 해인사 재적승들은 대원스님을 해인사 방장으로 모시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행히도 대원스님께서는 20년 넘게 사설사암 '학림사'(대전시 소재)를 최근까지 종단에 등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명백히 종헌종법을 위반했습니다. 3개월 전 2014년 11월에야 조계종단에 학림사를 등록했습니다. 20년간 종단등록을 외면하다가 왜 최근에 등록했을까요? 여기에 많은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대원스님께서는 2013년 4월에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선출되셨는데, 그 당시 중앙종회의 자격심사는 학림사가 '대각회 소속'이라 하여 통과되었지만 그 역시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그동안 학림사의 20여 필지의 토지 및 여러개의 건물들은 대다수가 대원스님의 개인 명의로 되었고, 일부 건물이 임의 단체 '대각회 학림사'로 되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학림사는 재단법인 대각회와는 무관하다는 재단법인 대각회의 공식입장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원스님의 원로의원 선출과정에서 종단을 기망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며, 따라서 원인무효에 의한 원로의원 자격박탈까지 논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원스님을 해인총림의 방장으로 모시기에는 해인사 재적승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우리는 원각큰스님을 해인사 산중총회에서 여법하게 합의추천하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누가 해인사 산중총회를 방장스님 입적 때부터 현재까지 선거판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원각큰스님 해인사방장추천위' 스님들은 법전 방장스님이 입적하신 직후부터 후임방장 추천문제는 49재가 끝난 이후에 논의를 시작하자고 일관되게 요청했고, 산중의 각 문중과 중진들의 논의와 조정을 거쳐 산중총회를 통해 합의추대하자고 49재 기간 내내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과 주장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방장스님의 다비식이 끝나고 사리를 수습하던 때부터 현재 대원스님을 방장으로 옹립하고자하는 추천위원회 대표 몇 명의 스님들과 해인사 선원장스님이 비밀리에 대원스님 방장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49재 기간 중에 해인사 선원장이 주도하여 비밀리에 방장후보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순서를 정하고, 임기까지 결정하는 서명문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9재가 끝난 당일(2월 9일) 저녁에 이 사실을 발표하여 기정사실로 만들려고 추진하다 대중들에게 사전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산중총회 구성원의 뜻과 권한을 몇 사람들이 사전에 찬탈하고 왜곡하는 일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9재 기간은 물론이고 현재까지 집요하게 말사 주지스님들과 재적승들, 그리고 비구니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대원스님추천위원 수락이라는 형식을 빌어 사실상 지지서명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일반여론조사도 아니고 후보선출 권한 당사자인 산중총회 구성원들에게 지지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출하게 하여 서류에 서명하게 하는 행위는 명백히 사전 선거운동으로서 해인사 산중총회를 과열된 선거판으로 몰아가는 불법적인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종회에 추천할 총림방장 후보자의 선출은 산중의 공의를 모을 수 있는 산중고유의 방식으로 한다"

이것이 방장후보를 선출하는 산중총회법 제 8조의 내용입니다. 즉, 방장후보선출은 산중총회를 열어 공의를 모아 후보를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어디에도 후보등록이나 선거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산중총회 구성원이 합의 추대한다는 것이지, 몇 사람들이 사전에 담합하여 후보를 결정하면 그에 따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존경받지 못하는 분들이 앞장서면 더욱이 대중들은 외면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해인사 산중총회를 선거판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해인사 선원장스님과 '대원스님 방장추천위' 스님들입니다. 해인사 산중총회 구성원들은 이러한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산중총회를 과열된 선거판으로 몰아가는 행위를 반드시 여법한 산중총회를 통해 심판할 것입니다. (과거 총림의 방장을 추대하는 절차가 종헌 종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산중의 중진스님 몇 분이 종단의 중재로 방장을 추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2000년대 들어 관련 종법이 정비됨으로서 전국의 모든 총림이 해당교구의 산중총회의 결의를 거쳐 중앙종회에 방장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4. 오늘의 시대는 한국불교에게 많은 기대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에 필요한 가치와 내용을 해인사가 마련하고 창출해야 한다는 비상한 책무감을 가져야 할 때이며, 해인사가 이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고 노력하는데 해인사 재적승들이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 '원각스님 방장추천위원회' 스님들과 해인사 재적승들은 이러한 비상한 각오와 원력으로 원각큰스님을 해인사 방장스님으로 모셔서 해인사를 정상화시키고 한국불교가 크게 중흥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15년 2월 24일

벽산당 원각큰스님 해인사 방장 추천위원회 대표 : 원학. 성법. 향적. 여연

“충남 제일 사찰 만들겠다”

덕숭총림 수덕사 신임 주지 정묵 스님 임명

덕숭총림 수덕사 신임 주지에 정묵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26일 덕숭총림 수덕사 신임 주지 정묵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는 전임 주지 지운 스님도 함께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임명장 수여 직후 정묵 스님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농업기술학교 건립 기금 1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방장 스님을 잘 모시고 대중 스님과 화합해 총림을 이끌어달라”면서 “종단 내 주요 소임을 두루 역임한 만큼 잘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전임 주지 지운 스님에게도 “4년간 덕숭총림을 잘 가꿔 오셨다. 사중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묵 스님은 “앞으로도 어른 스님을 잘 모시고 사중 안정과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정묵 스님은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취임 소감과 향후 계획을 짧게 밝혔다. 정묵 스님은 “덕숭총림은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 스님과 제자 만공 스님의 정신이 서려 있는 곳이다. 경허 · 만공 스님의 정신을 잘 계승해 나가겠다”면서 “그간 외부 발전을 위한 불사가 진행돼 왔다. 앞으로는 사중 스님들의 복지와 지역 포교에 중점을 두고 사찰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충남권은 내포신도시 발전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포교가 미흡하다. 이곳 포교에 수덕사가 나서서 집중적으로 포교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수덕사가 충남 제일 사찰이 돼 충청불교 부흥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묵 스님은 법장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6년 우송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9년 혜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선본사, 호압사 주지와 12, 13, 14, 15대 중앙종회의원과 수석부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호압사 회주를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덕숭총림 수덕사 신임 주지 정묵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조계종 국제불교학교, 마지막 졸업식

8명 졸업, 7명 수료



조계종 국제불교학교는 2월 25일 용인 화운사에서 ‘제3회 졸업식 및 4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올해 3월로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로 전환되는 조계종 비구니 영어전문교육기관 국제불교학교가 2월 25일 마지막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을 끝으로 국제불교학교는 문을 닫는다.

용인 화운사에서 열린 ‘제3회 졸업식 및 4기 수료식’에서는 3기 8명이 졸업장을, 4기 7명은 수료장을 받았다.

국제불교학교 학장이자 화운사 주지 선일 스님은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공부를 도와줬던 종단과 화운사를 기억해달라”면서 “이곳을 거친 졸업생 스님들이 언제든지 찾아오도록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의 학제는 5학기(2년6개월)로 구성되며 한 학년 10명 내외의 정원으로 운영된다. 영어 몰입교육은 물론 외국인 대상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법을 강의하며 템플스테이 지도교육도 진행한다. 국제세미나 등에서 각종 프리젠테이션을 영어로 구사할 수 있도록 실무형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학비 · 기숙사비 등은 종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미래세대 위한 기구 결성한다

2차 100인 대중공사서 미래위원회 결성 결의

‘미래포교’를 주제로 2월 24일 열린 조계종 제2차 100인대중공사가 미래세대위원회 발족 등의 성과를 내고 막을 내렸다. 8개 주제별 난장 토론으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지만 심도깊은 논의가 부족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조계종 100인대중공사추진위원회는 2월 24일 2월 24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2차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이날 대중공사 의제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은 1차 대중공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으로 미래세대를 단순히 포교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불교가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자는 관점에서 선정됐다.

난장 주제도 각각 계층의 눈높이에 맞게 설정됐다. ‘절에 가면 재미없어, 맨날 혼만 나 애들이 바글바글한 절! 왜 일까?’, ‘중2병을 스님들은 아실까’, ‘불교, 미래를 위해 이것만은 버리자(휴지통)’, ‘나에게 100억이 생긴다면 미래세대를 위해 어디에 쓰면 좋겠는가?’, ‘김일병, 왜 법당에 가나’, ‘내가 포교원장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20대와 나누는 20대 이야기-20대 바로알기’, ‘사찰, 청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4포세대를 위한 희망의 꿀단지’ 등이다. 특히 대학생 불자들도 참관인으로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대중공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직접 토론장을 다니며 동참했으며 종단 집행부 스님들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 스님들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를 포함한 재가자 총 108명이 각 주제별 난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24일 108명 모여 난장 토론 진행

“청년이 한국불교 미래” 한목소리

8개 주제 토론장, 회전식 운영

“심도깊은 논의 부족” 평가 나와

난장 후 종합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미래세대위원회를 발족시키는데 뜻을 모으고 미래세대를 위한 불교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특성화 불교대안학교 설립 △힐링콘텐츠 제공 등 미래세대를 위한 역할 모색 △미래세대 위한 사찰 공간 제공 및 활용 공간 재구성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2차 대중공사에서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이 3모둠 ‘불교, 이것만은 버리자’의 쓰레기통에 자신의 입장을 담은 쪽지를 넣으며 의견을 말하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미래세대위원회 발족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보다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관심있는 스님들과 학자,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길게는 1년 정도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공사 평가회에서는 주제별 난장에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반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장 주경 스님은 “새로운 형식에 대한 실험과 이벤트로 대중공사의 진실성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스님도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피상적인 문제지적에 머물고 말았다”고 말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 사무총장 목종 스님은 “주제별 난장에서 나온 의견을 갖고 집중적인 토론을 진행해야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에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은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사전에 SNS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중공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총장부터 이사장 선출까지 몸살 앓는 동국대

이사 8명, 23일 회의서 새 이사장 일면 스님 선출

불교대 · 전임 교수들 합법 주장

총학 · 동문 등 법적 대응 검토

국회서도 동국대 문제 거론돼

총장 선임에 난항을 겪었던 동국대 이사회가 신임 이사장 선출문제까지 불거지며 파국으로 치달았다. 새 이사장에 일면 스님이 선출된 가운데 그 과정을 두고 교내 구성원 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동국대 이사회는 2월 23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289차 이사회를 열고 총장 선임 문제로 이뤄지지 못했던 교원인사 및 예산안 처리를 진행했다.

문제는 마지막 안건으로 현 이사장 정련 스님의 해임안 상정이 요청되며 시작됐다. 정련 스님 임기는 3월 11일까지다. 총장 선출 과정에서 다수 이사들의 불만이 해임안으로 나타난 것.

일면 스님은 “제287회 이사회에서 다수의 요청에도 총장 선임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회했을 뿐만 아니라 임기만료를 앞두고 새 이사장 선출을 하지 않는 등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련 스님은 “이사장 해임과 이사장 선출 건은 다음 이사회에서 다루고 오늘 이사회를 폐회하자”고 했으며 폐회 선언 후 퇴장했다. 이사 영담 스님, 미산 스님, 김희옥 총장이 퇴장했으며 남은 이사 8명은 이사회를 속개하고 신임 이사장에 일면 스님을 선출했다.

동국대 학내 구성원들은 신임 이사장 선출을 두고 찬반 여론이 양분됐다. 불교대학 교수들과 전직 교수협의회 회장단은 일면 스님을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한 것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라고 25일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학내 대립과 반목이 격화되면서 학생들까지도 분열과 혼란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사장 선출을 계기로 서로 화합하여 학교 정상화에 매진할 때”라고 피력했다.

학부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는 이사장 선출을 무효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최장훈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이사회 폐회 선언을 했고 임시의장 선출 자격도 없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이런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부 · 대학원 총학생회는 본격적인 학사일정에 돌입한 만큼 학생들에게 사건 경과를 알리고 규합에 주력할 계획이다. 총동창회 동문들로 구성된 동국대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도 법적 시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사회 파행으로 동국대 분규가 예상되자 국회에서도 이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4일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동국대 이사회 파행운영에 관한 교육부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우여 장관은 “사실을 자세히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동국대 이사회는 제289차 이사회에서 동국대 총장 선출을 유보하고, 경영부총장 대행체제로 운영해 갈 것을 결의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속리산 법주사 총림 지정 나선다

오는 3월 19일 관련 산중총회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주지 현조)가 총림 지정을 추진한다.

법주사는 3월 19일 오후 1시 총림지정 신청 논의를 위해 산중총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총림법에 따르면 총림 지정은 산중총회 구성원 재적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총무원장에게 지정을 신청한다. 총무원장의 제청이 이뤄지면 중앙종회에서 총림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주지 현조 스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주사는 근대불교의 선지식인 금오 스님의 선풍을 계승한 도량”이라며 “금오 스님으로부터 이어진 선풍을 진작하고 금오 문도의 종가 사찰로서 면모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사중 의견이 많아 총림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총림이 가지는 위상은 지역 신도에게도 남다른 자부심을 갖게 한다”면서 “충청 불교의 부흥을 위해서도 총림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주사가 총림으로 지정될 경우 한국불교의 9번째 총림이 된다. **신성민 기자**

2015학년도 안정불교대학(경전반/범패학과/호적반) 신 · 편입생 모집 안내

본 대학의 설립목표는 종단 교육불사에 앞장서고자 청련사(안정사) 대가람에 현대적인 감각이 잘 어우러진 교육시설을 갖추고 부처님의 사상을 기본으로 원만광대한 원력으로 보살도를 실천하여 불조의 혜명을 잇는데 있습니다. 또한 학문과 수행을 겸비하여 지혜와 자비를 갖춘 자아완성이 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 특 전 : 본 대학은 태고종도들의 도제양성과 교육비부담을 함께 나누고자 청련사에서는 상당부분 학교운영 자금을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교생에게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안정불교대학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 전 반 : 전통강원 과정 4년

학년 \ 학기	1 학 기	
1 학 년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치 문(緇 門)	
2 학 년	서장(書狀), 도서(都序)	선요(禪要), 절요(節要)
3 학 년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금 강 경(金剛經)	원 각 경(圓覺經)

2. 범패학과 : 교육과정 4년(범음,범패,작법)

학년 \ 학기		
	○ 기 초 과 정 ○ • 기 초 : 목탁 치는 법 및 요령 사용법 • 예 불 : 향수해례,사성례,칠정례, 각단예불 • 시 식 : 각종 제사의식 • 송경의식 : 화장 및 매장의식	• 상주권공 • 작법과정 • 사물 다루는 법
	• 천도의식 과정 • 상단 불공 의식 • 중단 옹호게 작법	• 재체비 및 법주,바라지 • 실전행사 의식진행 과정 • 시련회 준비
	(영 산Ⅰ)	(영 산Ⅱ)

3. 호적반 : 2년 과정

학년 \ 학기	1 학 기	2 학 기
1 학 년	태평소의 기초를 이해하고 태평소를 기초부터 배우며 태평소 기초습득과 능계(자진모리, 휘모리)를 마스터한다. ○교육과정○ •태평소 기초 1~4(4주 교육) •능계 자진모리 1~3(3주 교육)	태평소를 이해하고 태평소의 가락을 배우며 태평소 천수바라, 막바라와 능개(굿거리)를 마스터한다. ○교육과정○ • 능개 굿거리 1~7(7주 교육)
2 학 년	태평소를 이해하고 태평소의 가락을 배우며 태평소 염불을 마스터 한다. ○교육과정○ •염불 1~7(7주 교육)	태평소를 이해하고 태평소의 가락을 배우며 태평소 대취타를 마스터한다. ○교육과정○ • 대취타 1~7(7주 교육)

4. 모집과정 및 원서교부,접수

모 집 과 정	경 전 반 (전통강원)	내전반	경전반(강원교육)
	범 패 학 과	내전반	기초과정,상주권공,작법,각배,영산
		예술반	호적(태평소)
원서교부 및 접 수	2015.2.16(월) ~ 2015.3.18(수) * 수시접수 가능함	본교 교학처 : 031)829-3220 교무담당:일평법사 010.9180.3354 / 일효스님 010.5114.2033 인터넷 교부접수 http://www.bluelotus.co.kr	

입학문의

안정불교대학 교학처
http://www.bluelotus.co.kr
482-812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TEL:(031)829-3220 FAX:(031)836-1081
교무담당 : 일평법사 010-9180-3354
일효스님 010-5114-2033

※ 통학버스운행 : 매주 수 · 목요일 각과 수업시간에 맞춰서 운행.
구파발역 2번 출구에서 승차 가능.
입학시 학교측에 통학버스 이용 신청서 제출 요.

5. 입학안내

입 학 자 격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가능함 (단, 승가학과 편입생은 타 강원에 이력이 있어야 하고 본교 강주 스님께서 인정 하는 사람만 가능함.범패학과 편입생은 시험결과에 따라 편 입학 자격이 부여 됨.)	
입 학 식	일 시 : 2015년 3월 18일(수요일) 오전 11시	
	장 소 : 청련사 대적광전 대법당	
개 강 일 시	2015년 3월 18일(수요일) 오후 1시부터 경전반	
수 업 시 간	경 전 반 - 안정불교대학 강사 효득(일우)스님(선암사 강원 대교과 수료) 효범(일해)스님(선암사 강원 대교과 수료)	
	범패학과 - 강주 상진스님 / 강사 일원스님 (안정불교대학 강주) (옥천범음대학 3년 과정 졸업)	
	호 적 - 위재영(중요무형문화재 46호,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 현 국립국악 관현악단 상임단원)	
	경 전 반 (전통강원)	① 초 심 반 : 수요일 오전 9시~오전 12시
		② 치 문 반 :
		④ 사 교 반 : 수요일 오후 2시~오후 6시
	범 패 학 과	
	호 적 반	① 기초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 오후 7시 (단,수업특성상 수업정원을 선착순 10명으로 제한 함)

※ 상기 수업시간과 요일은 본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 고 : 1. 경전반이나 범패학과는 각학년 공통과목이며 승가학과 및 범패학과는 별도(단독) 수강도 가능함.
2. 호적반은 특강과목이므로 수강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함.(청강 할 수 없음.)

6. 입학서류 및 접수방법

	제 출 서 류	
공 통	1.입학원서(소정서식) 1부 2.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1부 3.주민등록등본 1부 4.수계증사본 1부(해당자) 5.승적증명서 1부(해당자) 6.반명함판 사진 5매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1.본교 교학처 직접 방문 및 우편발송 또는 인터넷접수 가능 2.인터넷 원서교부 및 접수한 경우 원서를 출력해 사진부착후 여타 제출서류와 함께 본교 교학처로 등기발송 3.접수처 : 482-812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청련사내 안정불교대학 교학처

“현실괴리 ‘깨달음 지상주의’ 불교 망친다”

‘불교평론’ 열린논단서 조명제 교수 비판

윤리규범이 무너져가는 현대사회에서 불교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불교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깨달음 지상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명제 신라대 교수는 불교평론이 2월 26일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한국불교 수행, 정말 괜찮은가’ 열린논단에서 “불교 쇄신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행문화 존중과 함께 실생활에 와 닿는 모델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단은 불교평론이 열린논단 60회를 맞아 진행하는 연속 기획의 첫 번째 자리로 30여 명의 학자들이 모여 수행풍토 진작과 불교쇄신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먼저 발제를 맡은 조 교수는 “종교적 이상에만 머무르는 그동안의 모습을 답보하면 현대 인도와 중국에서와 같이 한국에서도 불교는 생명력을 잃고 말 것”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윤리성을 너무 강조하면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같이 현실과 괴리된 간화선 지상주의로 인해 역으로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폐단이 양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국가와 유착하고, 맹목적인 ‘화쟁’ 하에 다른 종교와도 타협하는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불교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을 제시하기 때문”이라며 “훌륭한 불교사상과는 별개로 역사를 보면 인도사회에서는 힌두교, 중국사회에서는 유교와 습합하며 결국 생명력을 잃은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망한다’ 고 표현할 정도로 강한 어조로 이를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와 함께 젊은 사람들에게 불교가 매력있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은 현실에서 피부에 와닿는 해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실천이론을 적극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상주의 폐단 지적, 쇄신 촉구
간화선 위주 한국 수행풍토 분석
“실생활 와닿는 실천 모델 필요”
토론서는 승가 자성의 입장 나와



2월 26일 열린 불교평론 열린논단에서는 불교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모아졌다.

조 교수의 주장에 대해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상 제시의 가치’ 에 대한 목소리와 함께 불교 혁신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찬반의 입장이 나왔다.

신승철 시인은 “불교는 존재론, 우주론 등 이상을 제시하는 종료로서도 의미가 있다. 사회적 가치나 효용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혜숙 금강대 교수도 “불교 자체의 한계라기보다는 경전 속의 가르침을 현실에서 적용하려는 개개인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박병기 교원대 교수는 “간화선 중심 수행문화가 사회윤리를 어설프게 넘어섬으로 인해 조계종단의 부도덕한 문제가 나온 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 발제자의 문제제기는 의미가 있다”며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윤리를 찾는데는 불교가 제일 낫다고 생각한다. 계율에 국한되지 않는 윤리규범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한용덕 선생은 “21세기에는 한문보다 영어가 가까운 시대, 또 디지털 시대로 사람들의 근기 조차 옛 사람들과 많이 다르다”며 “가장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불교의 숙제”라고 말했다.

스님으로서 유일하게 열린논단에 참여한 법응 스님은 “불법의 유기적인 현실적용법을 스님들이 제시하지 못했다”며 “승가에서는 해방 후 50년간 우리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아직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끝으로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주간은 “결국 불교는 삶 속에서 무엇을 실천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라며 “불교 중흥을 위해 불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행복한 템플스테이를 위해

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안전매뉴얼’ 발간

안전사고 대처법 상세히 실어
각 사찰 인명 소생가방도 보급



안전하고 행복한 템플스테이를 위한 안전 기준을 담은 자체 매뉴얼이 제작 · 배포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템플스테이 참가자의 건강 및 안전한 템플스테이를 위한 〈템플스테이 안전매뉴얼 · 사진〉을 발간했다.

이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참가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두되는 안전문제 해소를 위한 것으로 지난 2012년 응급처치 대응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운영사찰에 배포한 이래로 본격적인 행보라 할 수 있다.

이번 매뉴얼은 사업단과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연구진(총괄 최대해 교수)의 합작품으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뿐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빠른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침이 담겨 있다. 문헌조사, 현지 방문 실사, 운영사찰 템플스테이 관계자 심층 인터뷰를 거쳐 제작됐다.

최근 4년간 보험이 청구된 템플스테이 사고는 총 22건으로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은 지난 2011년부터 참가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템플스테이 체험의 주된 공간인 산중(山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과 발목 염좌, 벌 쏘임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번 매뉴얼에는 이러한 주요 안전사고 사례와 함께 외상 · 질병 손상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상세한 대처법이 실려 있다. 또한 심폐소생술, 기도폐쇄처치법 등의 응급처치법과 필수 의료물품, 의료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수록되어, 사찰의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안내서라는 평가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스님은 “이번 매뉴얼에는 참가자에 대한 안전사고의 예방, 응급처치, 재발방지에 대한 진지한 노력이 반영됐다”며 “안전한 템플스테이의 운영으로 국민들이 더욱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매뉴얼과 함께 안전물품이 담긴 기초 인명 소생가방(EMT가방)이 운영사찰에 보급될 예정이다. 기초 인명 소생가방은 다양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시 현장에서 최적의 대응이 가능한 국제 표준 전문 응급키트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가짜 불상 30억 원 거래하다 경찰에 덜미

약품처리 도굴문화재로 둔갑

중국에서 들여 온 가짜 불상을 통일신라시대 유물이라며 속여 팔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월 17일 가짜 불상들을 통일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수십억 상당의 불상이라고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원 모(3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원 모 씨와 함께 사기를 꾀한 공범 2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원 모 씨 등은 2월 12일 서울 마포에서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상 모조품 7점 등을 직접 발굴한 것이라고 속여 고미술품 수집가 전 모(60) 씨에게 약 30억원에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모 씨는 자신을 국내 최연소 불상 감정사라고 소개하며 감정가 50억 원 상당의 금동불상 7점을 30억 원에 넘기겠다고 말했으며 이를 믿지 않았던 전 모 씨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노덕현 기자

남북불교 부처님오신날 합동법회 성사될까

민추본, 23일 정기이사회 개최… 올해 사업계획 확정

5월 불교통일선언 발표 추진
‘공존 · 상생 · 합심’ 내용 담을 듯
대북 기금 마련 캠페인 전개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사장 자승, 이하 민추본)가 올해 불교통일선언 발표와 함께 부처님오신날 등 남북합동법회를 세 차례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다. 남불불교교류 확대 대비 대북기금마련 캠페인도 실시한다.

민추본은 2월 2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15년 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 올해 사업계획과 임원 추천건을 논의했다.

민추본은 오는 5월께 ‘공존과 상생, 합심의 불교통일선언’을 발표하며, 부처님오신날 · 조국통일기원 · 금강산 신계사 복원 8주년 남북합동법회를 각각 추진할 예정이다.

만해스님 남북공동학술토론회와 북한 불교문화재 보존보수 및 공동조사 실시도 목표로 하고 있다. 북녘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 ‘도담도담’, 3기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및 현장순례, 월례강좌, 민추본 지역본부 설립추진 등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진행된다.

이와 함께 민추본은 남북불교교류를 중 ·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매년 2억원 가량의 기금을 적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10년 동안 많게는 20억원을 적립할 수 있다. 남북불교교류 확대에 대비한 대북기금마련 캠페인 필요성을 지적한 감사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공존, 상생, 합심’을 기치로 한 불교통일선언은 향후 자문회의를 거쳐 종단 종무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밟아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 2월로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진화 스님(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을 연임하기로 의결했다. 신규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이기흥 회장이 추천됐으며 향후 본인의 의사 확인절차를 거쳐 차기 이사회에서 이사 선임 확정이 논의된다.

회의에 앞서 민추본 이사장 자승 스님은 “북한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 등 민추본이 추진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이사진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사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이사 지홍 스님(민추본 본부장), 정문 스님(총무원 사회부장), 진화 스님(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정념 스님(흥천사 주지), 종훈 스님(보광사 주지), 계호 스님(진관사 주지), 고유환 교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감사 천낙붕 변호사(법무법인 상록)가 참석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원희룡 제주지사 억불정책 철회하라”

제주불교연합회, 16일 성명… 동산문화재 지침 반발

제주불교연합회가 제주도청의 문화재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불교연합회(회장 탄해)는 2월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가 지난해 9월 지정한 ‘동산문화재지원에 관한 지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는 “반문화적인 신(新) 억불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불교가 제주도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 지정 동산문화재 지원에 관한 지침’ 때문이다. 지침에 따르면 불상을 보호하는 불전(佛殿)을 지을 때 ‘입면상 전면부의 칸수는 와불 최대 5×3칸, 좌불 및 입불상은 최대 3×2칸(23.5평)을 초과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상(立像)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층으로 설계하도록 못 박았다. 사실상 규제 지침인 것이다.

제주불교연합회는 성명에서 “지난해 9월에 제정한 ‘제주도 지정 동산문화재 지원에 관한 지침’의 전무후무한 문화재정책은 반문화적이며 불교를 억압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정책”이라며 “1월 29일 ‘불교문화재 관리 현황과 활용방안’ 세미나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불교계의 목소리를 제주도정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청은 종교 편향 관점으로 ‘문화재 보호법’을 왜곡해 보호시설을 획일화와 축소하고 있다”며 “17세기 제주로 부임한 이형상 목사가 제주불교를 말살시켰던 뼈아픈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불교연합회는 제주도청이 지정한 지침이 제주도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들은 “제주도의 사찰 경내지는 다른 육지의 사찰과는 달리 협소해 중층 구조로 한 곳에 여러 기능을 할 수 있게 불사를 한다. 타 시도에도 없는 지침을 만든 것은 작은 옷을 만들어 큰 몸에 입히려는 발상”이라며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돼 있는 문화재보호지원을 특정사찰이 막대한 세제 혜택을 누린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이라고 비판했다.

신성민 기자

해외 포교와 스님들 해외 연수

완벽한시설을 갖춘 사원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는 해외투자의 절호의 기회



“해외 포교와 투자 가치가 높은 요지”

미국의 수도 와싱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지 9천여평의 45년된 불교사원입니다.
큰길에서 차량출입이 편리하고 아름다운 풍광을 지닌 조용한 사원입니다.

- 대웅전, 석가진신사리 봉안탑
- 100여대의 주차공간, 개인차고
- 3개의 전원주택과 우편주소
- 유치원, 놀이터
- 유기농밭, 소나무 산림



■ 미국국세청 인가 비영리재단으로 면세특허증 (본부동산과 물품구입의 대한 면세) ■ 가액 : 23억원 (시가 2.1 밀리언 달러)

연락처 : 이메일 americantemple0@gmail.com | ☎ 301-801-5454, 240-338-5331

일 주 문



정각원 불교명상 토요법회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은 불교명상지도자협회와 함께 3월 7일부터 '불교명상지도자와 함께하는 토요법회'를 개최한다.



설맞이 서초구청 쌀 전달

서울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은 2월 13일 4층 법당에서 설을 맞이 자비의 쌀 20kg 120포를 서초구청에 전달했다.



'봉은판전' 2기 기자단 모집

서울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3월 20일까지 봉은사 사보 '봉은판전' 2기 기자를 모집한다. (02)3218-4832



지역사회 이웃돕기

수원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은 2월 16일 화성 화산동주민센터를 찾아 이웃돕기 후원물품으로 쌀 2000kg, 라면 100박스, 현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다문화센터 사무실 이전

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 무원 스님은 2월 27일 사무실을 서울시 중구 중림로 더플레이스 B108호로 이전시켰다.



불교 그리스도교 콜로키움 참석

동국대 교수 진월 스님은 2월 12일부터 2일간 인도 보드가야에서 열린 '제5차 불교-그리스도교 콜로키움'에 참석했다.



길상화 장학생 모집

맑고향기롭게 이사장 덕운 스님은 3월 20일까지 제22회 길상화 장학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전국 고교생으로 1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02)741-4698



부산경실련 신임 공동대표

부산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은 2월 11일 부산 YWCA에서 열린 24차 정기회원 총회에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산청 보림선원 춘계 철야정진

전근홍 산청 보림선원 선원장은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백봉김기추거사 법문 녹취집을 교재로 수행하는 춘계 철야정진법회를 실시한다. (055)972-9555



코바코 감사에 강태진 前 BTN국장

강태진 前 불교TV 보도국장은 2월 1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상임 감사로 임명받았다.

"교포 1세대 쉴 수 있는 수행공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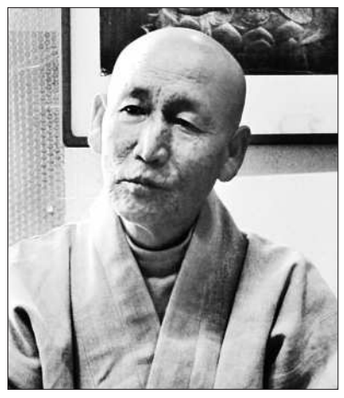
노인복지원 건립하는 호주 정법사 회주 기후 스님

통도사 해외포교당 호주 시드니 정법사가 노인복지원 건립 기금마련을 위한 전시에 나섰다. 호주 전시 이후 한국을 찾은 정법사 회주 기후 스님이 2월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인복지원 건립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3월 부산과 서울에서 각각 열리는 전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60이 넘은 교민 1세대들이 너무 외로워합니다. 자식들은 출가시켜 떠나보내고, 해외에서 모국말을 자유롭게 할 수도 없으니 한국 사찰에 와서 머물며 위로받고 싶어해요. 하지만 호주에 한국사찰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편히 쉴만한 공간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호주에도 요양시설이 많지만 한국음식을 제공하고 한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곳은 없으니까요. 노인들이 문화강좌 듣고 한국음식으로 식사도 하면서 담소를 나누며 마음 편히 머무는 장소를 마련하고자 노인복지원 건립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인파라미타 불교복지원(가칭)'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될 노인복지원은 330평 규모의 대지에 방 3칸 휴게소 3칸을 갖추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남녀불자들 2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이다. 식사 제공은 물론 요가 참선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 5월 부처님오신날 전 개원을 앞두고 있다. 이에 스님은 선서화전, 정법사 내 찻집 운영 등을 통해 복지원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수안 스님의 선서화전'은 지난 2월 호주 시드니 체우스콘코스 미술전시관에서 열려 큰 주목을 받았다. '세계적인 선화가, 수안 스님 작품 초대전'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전시는 한국의 선(禪)정신을 알리는 데도 기여했다고.



노인 위한 주간 보호 시설로
문화강좌 · 한식 제공 등
수안 스님 전시로 기금마련
호주 이어 부산 대구 순회

"통도사 수좌로 공부할 때 인연이 된 수안 스님께서 이번 전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호주 전시를 잘 마칠 수 있었어요. 교포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반응이 컸어요. 또한 직접 선서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했는데 관람객들이 자신의 마음상태를 알 수 있어 좋다며 상당한 관심을 보였어요. 당일 전시 시간이 끝났는데도 관람객들이 계속 몰려 오픈 시간을 연장해야 할 정도였죠."

앞으로 전시는 부산과 서울에서도 계속된다. 3월 9일~15일 부산 소민아트센터, 3월 21일~29일 서울 나무갤러리에서 수안 스님의 선서화전을 만날 수 있다.

한편, 기후 스님은 1965년 범어사로 출가,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통도사 해인사에서 강사를 지냈다. 이후 봉암사 통도사 등 제방 선원에서 안거했으며 기림사 북암에서 6년간 묵언정진했다. 1991년에는 호주 시드니 정법사를 창건해 25년간 해외포교에 매진해왔다. 또한 2009년, 불문에 몸 담으며 들은 이야기들과 기억의 편린들을 한데 묶은 구도소설〈꿈속의 인연들〉(맑은소리맑은나라)을 펴내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동국대 입학식 빛낸 100세 老스님



2월 27일 열린 2015학년도 동국대 경주캠퍼스 입학식에는 특별한 손님이 초대됐다. 그 주인공은 몸소 무소유를 실천한 100세의 한 老스님이었다.

통영 신광사 주지 선도스님은 2002년 전 재산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선도장학회를 설립해 2003년부터 동국대 경주캠퍼스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1916년에 태어난 스님은 평소 "여자는 글 배우면 안 된다고 해서 배우지 못한 것과 일제 강점기에 나라 없던 서러움이 평생 한으로 남았다. 그래서 학생들이 열심히 배워서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기 바란다"고 말해 왔다.

이를 알고 있는 학교 측이 스님의 못 다 이룬 학업에 대한 꿈을 이뤄 드리고자 100세를 맞는 스님에게 명예학생증을 수여하는 특별행사를 준비한 것이다. 이날 이 총장이 신입생들에게 스님의 사연과 함께 100세를 맞은 스님의 연세를 소개하자, 체육관은 신입생과 학부모들의 커다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명예학생증을 받은 스님은 학생들을 향해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꼭 나라 위해 일하세요"라고 외쳤다. 스님의 힘찬 당부에 스무살의 학생들은 다시한번 뜨거운 환호로 답했다. 한편, 동국대는 26일 장충체육관에서 2015학년도 입학식 및 신입생 환영식을 개최하고 총 3,099명의 신입생을 받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5년 방송 포교 매진 감동 전해"

BBS, 본지 최정희 이사에 감사패 증정



방송포교에 매진해온 본지 최정희 이사(사진 가운데)가 BBS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BBS 불교방송(사장 이채원)은 지난 25년간 불교방송 라디오를 통해 방송포교에 애쓴 공로에 대해 현대불교신문 최정희 편집이사에게 2월 25일 감사패를 증정했다.

최정희 현대불교신문 편집이사는 1990년 BBS 불교방송 개국 당시 '자비의 전화' 프로그램 진행을 시작으로 '피안을 향하여' '지금은 불교시대'를 거쳐 현재의 프로그램 'BBS초대석'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불교적 소양과 지식을 바탕으로 25년간 불교방송의 여러 대담 프로그램을 원만하게 진행하여 방송 포교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에 불교방송은 최정희 이사의 공로를 기려 프로그램을 회향하면서 감사패를 증정했다.

최정희 이사는 "방송 포교에 동참할 수 있어 뿌듯했다. 불교방송 설립은 모든 불자들의 염원이 모여 이루어진 만큼 올해로 개국 25주년을 맞는 불교방송에 불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정혜숙 기자**

울산 신불사, 제 11회 장학금 수여식

초중고생 31명에 총 3720만원 전달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울산 신불사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는 2월 22일 신불사에서 저소득 가정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 11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초중고생 31명에게 총 372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신불사는 자비회를 주축으로 회원들이 모은 성금을 매년 지역 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학업에 열중한 학생들을 선발, 1년동안 매월 10만원씩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장학사업을 주도적으로 펼치는 신불사 자비회는 2004년 4명으로 발족했으며, 10년이 지난 현재 3백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신불사 주지 혜성 스님은 "1만일 동안 좋은일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자비회가 발족됐으며 현재 총 2억 여원이 장학금으로 지원된 상태"라며 "앞으로 후원 학생이 108명이 되는 날까지 미래의 동량인 새싹불자들에게 자비회원들과 합심해 인재불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052)264-8250

울산 신불사=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대응공사 자혜불교대학 정초기도



대구 달서구 대응공사 자혜불교대학(학장 도경)은 2월 25일 정초산림기도 입재 및 영공 스님 초청법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만공 스님, 광진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했다.

초청법사로 나선 부산 해동사 조실 영공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삼귀의' '오계'가 가장 올바른 삶의 길임을 믿고 실천해야 한다"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금강대, 2014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금강대(총장 정병조)는 2월 28일 교내 대강당에서 '2014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금강대는 올해 학부생 144명, 대학원 석사과정 4명, 박사과정 3명, 금강어학원 33명 등 총 184명이 입학했다. 입학식에는 신입생과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68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 •

전생 요법 :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누군가를 미워하는 제 마음을 어쩌죠? 불자로서 오계를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2월 21일 부산 범어사에 모인 청중들은 스님들에게 저마다 고민을 토로했다. BBS 불교방송이 창사 25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다르마 전국 순회 콘서트 현장이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수불, 월호, 원영, 목종 스님이 법상에 올라 일반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에게 불법의 지혜를 전했다.



2월 21일 BBS 불교방송이 주최한 범어사 '다르마 콘서트'에서 월호 스님(왼쪽), 원영 스님(가운데), 목종 스님(오른쪽)이 청중들에게 법을 전하고 있다.

"즉문즉답, 부처님 법으로 대화 창 열어요!"

BBS 불교방송 제1회 범어사 다르마 콘서트 현장

창사 25주년 BBS, 전국순회 콘서트 개최
멘토 스님-일반인 간 소통 · 고민해결의 장
전국에서 1천여명 찾아 지혜 얻어가
12월까지 대구 · 울산 등 전국 순회 예정

뜨거운 환호가 범어사 설법전을 가득 채웠다. 월호 스님, 원영 스님, 목종 스님의 등장에 청중들은 미처 합장한 손을 풀 새도 없이 박수로 스님들을 반겼다. 세 명의 스님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던 불자들은 월호, 원영, 목종 스님을 두고 스타 스님이라고 일컬었다. 인기가 많다는 뜻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방송을 통해 부처님 법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과 지표를 일러줬다는 의미를 담아 별(star)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어두운 밤길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좌표를 일러주듯 어리석은 중생의 무명을 밝혀준 멘토 스님들의 등장에 불자들이 환호하고 있었다.

2월 21일 BBS 불교방송(사장 이채원)은 창사 25주년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 '다르마 콘서트'의 첫 시작을 범어사에서 올렸다.

1부 범어사 주지이자 불교부산방송 사장 수불 스님의 법문에 이어 2부에서는 불교방송 진행자인 월호 스님(리셋! 밝고 둥글게), 원영 스님(아침 풍경), 목종 스님(부산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이 함께 연단에 올라 즉문즉답으로 법을 전했다. 다르마 콘서트는 스님과 불자간 직접 대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상호 거리감을 좁히고 사람들이 지닌 일상 속 고민을 불법의 지혜로 극복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열렸다. 격의없이 스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 덕분에 이날 콘서트에는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불교를 버리라고 해요

콘서트의 시작을 연 수불 스님은 법문에서 '인과'를 강조했다. 스님은 "인과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오는 과보를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빚이 있어도 예금을 많이 해두면 쉽게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복을 많이 지어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정초를 맞아 좋은 인연을 맺고 불법을 믿어 깨달음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청중들을 축원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2부 다르마 콘서트가 시작됐다. 미움, 계율, 가족 간 종교 갈등, 제사,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고민, 신장을 하나만 가지고 태어난 자식에 대한 걱정 등 청중들 사이에서는 기다렸다는 등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이날 행사에는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가했다.

"미움이 생기면 어떻게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가?"란 질문에 목종 스님은 "미움마저도 무상하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고 답했다. 목종 스님은 "나 자신의 실체도, 대상에 대한 실체란 것도 없기에 미움이란 감정 역시 잠시 왔다 사라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무상함의 원리를 반복해서 일깨워 미워하는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며 "나 자신과 미워하는 대상, 내 주변인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미움처럼 행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에 투자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불자로서 번번이 맞닥뜨리게 되는 일상 속 오계(五戒) 실천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도 들렸다. 한 참가자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육식과 술을 금할 수 없는 난감함을 표하자 원영 스님은 자신의 근기에 맞는 계율을 융통성있게 적용할 것을 권했다. 원영 스님은 "고기와 술을 조금씩 먹어보면서 스스로 제어가 가능한지 자신을 살펴보고, 만약 가능하다면 자신에게 조금의 여유를 줘도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단호히 음식을 끊고 계율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습관 만들기를 권유했다.

"백일만 끊으세요. 절에 가면 백일기도 하잖아요. 백일은 습관을 바꾸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꾸준히 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습관은 바뀌기 마련이에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도 백일만 실천하면 달라질 것입니다".

원영 스님은 사회인으로서 갈등을 겪는 이들에게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직장에 계신 분 중 소중하지 않은 존재들은 한명도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귀하게 크다 보니 나 자신이 중요한 줄은 아는데 남은 귀한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먼저 나란 존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김영은(24)씨는 "시작하기 전에 받은 질문지에 질문을 적을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적지 않았는데 평소에 고민하던 것을 누군가 질문한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사회생활에 대해 같은 고민으로 힘들어 한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다"며 "원영 스님의 조언에 마음이 개운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참여 불자들이 멘토 스님들의 등장에 환호하고 있다.

가족 간 종교갈등을 겪고 있는 이의 고민도 나왔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타종교를 강요해 곤란을 겪고 있다는 한 여성에게 월호 스님은 "수행을 통해 스스로를 성장시키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스님은 "부처님 당시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며 딸의 결혼 상대가 이교도라고 걱정하는 한 사람에게 부처님이 당신의 딸은 수다원과에 이른 사람이니 어디를 가든 걱정이 없을 것이다고 말씀하셨던 일화를 들려줬다. 월호 스님은 "중요한 건 본인이 수다원과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수다원과에 이르면 어떤 종교나 사람을 만나든 문제가 없다. 본인이 정진해서 수다원과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휴식차 온 절…지혜는 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멘토 스님들의 조언에 참가자들 역시 오길 잘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가족과 함께 참석한 정갑숙(53)씨는 가장 기억에 남는 말로 목종 스님의 행복해지는 법을 꼽으며 "행복은 주는 만큼 온다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됐다. 지금까지는 받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해왔는데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길이 베푸는 데서 시작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는 "스님 말씀대로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부터 시작해 만나는 모든 생명과 무생물에까지 자비심을 가지고 베풀 수 있도록 보살행을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윤명선(40)씨 역시 "범어사에 온 건 이번이 3번째에 지나지 않지만 우연히 이런 알찬 법문을 듣게 돼 기쁘다"며 "휴식차 한 번씩 절에 들르는게 다였지만 오늘을 계기로 수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BBS 불교방송은 부산에서 첫 번째 다르마 콘서트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매월 지역 사찰을 순회하며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3월에는 대구에서 콘서트가 열리며 울산, 청주, 춘천 등 전국 순회가 계획돼 있다.

부산=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매일 금강경 읽고 참선해 佛法 실천을”

불교인재원, 〈금강경〉 공부결사 진행… 3월 27일 입재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이 재가자의 공부 열기 확산을 위해 조계종 소의경전인 〈금강경〉 공부결사를 추진한다.

불교인재원은 2월 24일 서울 인사동에서 간담회를 열고 “재가자들이 〈금강경〉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공부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강경〉 공부결사는 입재와 동시에 △매일 〈금강경〉읽기 △매일 5분 참선 △매일 남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일하기 등 청규를 정해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공부결사는 3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중앙신도회 전법회관 지하 선운당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7~9시에 진행된다.

〈금강경〉공부를 진행할 강사는 김응철 불교인재원 원장(중앙승가대 교수), 박윤흔 전 환경부장관, 이준 건국대 명예교수, 이언오 바른경영연구소장, 우명규 전 서울시장, 우승택 전 삼성증권 특별고객지점장, 박희승 한국문화연수원 교수 등 재가불자로 제방에서 활약하면서도 불교 공부와 활동을 많이 해온 교수진들이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은 “이번 공부결사에 스님들을 모시지 못했지만 재가자들 스스로 탁마 하자는 차원에서 각계에 있는 전문가들을 교수진으로 꾸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재원은 그동안 백련불교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해 온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강좌도 8기를 모집한다.

백일법문 강좌는 3월 17일부터 6월 2일까지 전법회관 지하 선운당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3~5시에 열린다. 중도사상, 근본불교사상, 대승경론의 중도, 천태종의 중도 사상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1661-1108

이나은 기자

“불심 키워 민생치안에 이바지 하자”

경찰전법단 2월 24일 경찰법요집 봉정법회 및 신년법회

‘경찰법요집’ 이 발간돼 경찰불자들이 통일된 의식으로 법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2월 2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경찰법요집 봉정법회 및 경찰불자 신년법회를 거행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2월 2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경찰법요집 봉정법회 및 경찰불자 신년법회를 거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 경찰전법단장 원명 스님(조계사 주지), 구은수 서울청장을 비롯해 경찰 불자와 가족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는 경찰법요집 봉정식과 점안식, 고불문 낭독, 내외빈 소개, 환영사 등으로 진행됐다.

경찰전법단은 지난 2013년 전 단장이었던 도문 스님(전 조계사 주지)의 발원으로 원명 스님과 서울청경승실장 원학 스님(봉은사 주지)의 후원을 받아 경찰법요집을 만들었다.

포교원과 경찰전법단은 경찰법요집 1만2천부를 포교원, 지방청 및 산하 경찰서와 경찰교육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경찰전법단장 원명 스님은 “각 청이나 경찰서에서 열리는 법회를 통일된 의식으로 진행하고 불자의 예절이나 기본 교리를 가르쳐 경찰 불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사회와 국가 민생치안에 이바지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포교사단, 제2회 포교사의 날 기념법회 연다

3월 8일 오후 1시 30분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서

포교사단(단장 곽명희)은 3월 8일 오후 1시 30분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불교문화공연장에서 ‘포교사의 날’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해 포교사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제정된 ‘포교사의 날’ 두 번째 행사로,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포교사단 대의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포교사단 대의원 총회 △개회선원 △포교사의 노래 △시상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포교사단은 총무원장상, 포교원장상, 총재상, 단장상을 개인과 단체 부문으로 나누어 총 63팀에 수여한다.

포교사단은 “이번 기념법회를 통해 포교사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일체감을 조성해 재가지도자의 위상을 확립하고 포교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나은 기자

“영어로 배우니 더 쉽게 와 닿아요”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가르침 첫 정기 영어법회 열어

“Every movement and function of your body is ultimately being done by your fundamental mind…(내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일거수일투족 모두 다 내 근본이 하는 겁니다.)”

2월 26일 저녁 7시 30분 안양 한마음선원 2층 법당. 한마음국제문화원에서 활동하는 미국 출신 청고 스님의 영어 강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50여 명의 참가자들은 청고 스님이 슬라이드로 준비한 영문으로 번역된 대행 스님의 법문을 읽고 이와 관련된 예를 설명하는 청고 스님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대행 스님은 ‘이 모든 오장육부의 소임을 맡고 있는 생명들의 의식들도 다 내 마음의 선장이 다스리는 거다. 선장이라는 건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 응(應)해 주면서 밀고 나가게 하는 그 천차만별의 의식에 힘을 주는 마음의 근본’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겨스케이트 김연아 선수의 예를 들어볼까요.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를 잘 타는 신체조건을 처음부터 갖고 태어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온 마음을 집중해 스케이트 연습을 하다 보니 점점 피겨스케이팅에 적합한 신체 구조가 된 것입니다. 대행 스님은 유전에 대입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좋지 않은 유전을 받았더라도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이날 법회에서 청고 스님은 한마음국제문화원에서 발간한 〈생활 속의 참선수행 · 한영합본〉시리즈 가운데 8권인 ‘In the Heart of a moment(일체를 움직이는 그 자리)’ 를 교재로 사용했다. 이 책은 한마음국제문화원이 그동안 출간한 대행 스님의 〈허공을 걷는 길〉 시리즈를 영문으로 번역해놓은 것으로 전세계에 보급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분별심’ ‘주인공’ ‘업(業)’ 등 불교용어에 대해 영어로 설명하고 있는 청고 스님(사진 왼쪽). 청고 스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이는 불자들(사진 오른쪽)

대행 스님 〈생활 속 참선수행〉 교재로
한마음국제문화원 청고 스님 지도
매월 넷째 주 목요일 7시 30분 진행

청고 스님은 법문에서 분별심을 근본에 내려놓는 과정을 자신의 경험담을 곁들여 설명했다.

“세상의 도리로 악이다 선이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모자라다, 영리하다, 길다 짧다, 죄가 있다 없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별심이 자기를 막아놓습니다. 분별없이 모든 걸 내 근본에 놓으면 이것이 입력되면서 앞서 차원으로 살아오며 입력됐던 것이 다 없어집니다. 한번은 호텔을 간적이 있습니다. 비흡연실을 예약했는데 호텔 측 실수로 흡연이 가능한 방을 줬더군요. 이럴 때 분별심을 내어 불쾌하고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프론트에가서 정중히 이야기 했죠. 호텔측은 처음에 예약했던 방이 없다며 더 크고 좋은 방을 줬습니다. 어때요. 처음보다 상황이 더 좋아졌습니다. 처음 흡연실을 받았을 때의 기분과 기억은 싹 사라지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근본에 맡기면 마음의 차원은 높아지고 과거의 좋지 않은 일들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실생활에서 자꾸 연습하셔야 합니다.”

대행 스님은 법문에서 항상 ‘주인공’ ‘믿고 맡기고 관하기’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내면의 참나를 찾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표현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될지 몰라도 실제 수행으로 실천하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다. 불자들은 이번 강의를 통해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서준(44 · 남) 씨는 “불교를 배우다 보면 단어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마음공부, 불교와 관련된 용어를 영어로 배우니 단어 자체의 관념적 틀에서 벗어나 더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아 좋았다”고 말했다.

손형우(50 · 남) 씨는 “한국말로는 어렴풋하게만 받아들여지던 표현들을 객관적인 영어 표현으로 배우니 분명하게 이해됐다.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전세계에 알리는 청고 스님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청고 스님의 영어 법문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매월 넷째 주 목요일 7시 30분부터 안양 한마음선원 2층 법당에서 진행된다. 스님은 “취직, 결혼, 인간관계 등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시급한 문제들만 생각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넓게 마음을 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상황에 불만족스러워하기 보다는 잘 되게끔 내면에 놓고 관해야 한다”며 “대행 스님은 이런 내용을 항상 강조하셨고, 그것을 영어로 좀 더 쉽게 말해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자비의 전화, “새 둥지 개운학사서 원년 도약”

2월 23일 정기총회서 사업보고 및 신년계획 발표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 부설 자비의전화는 2월 23일 조계사교육관 2층에서 제15차 정기총회를 열고, 작년 사업보고 및 신년 사업계획과 새 임원 선출을 발표했다.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은 자비의전화는 불교상담을 대표하는 중앙기구로 역할 전환을 모색하고 전문영역개척과 불교상담의 저변 확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지난 해 불교상담의 대중화를 위해 교육관 불사 기금 마련을 해온 불교상담개발원은 오는 5~6월께 중앙승가대 내 개운학사로 사무실을 옮기고 불교상담 대중화 기여를 위해 박차를 가한다.

총회에서 도현 스님은 “오는 6월께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개운학사에 새 둥지를 틀고 올 한해 다양한 상담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스님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불교명상상담 지도자 육성 · 선발 과정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수료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며 “상담개발원이 대학원 과정으로 진입하기 위한 소중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비의 전화는 불교상담 이론 및 프로그램 연구 · 개발, 불교상담심리사 선발 및 관리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 기존 불교상담심리사 1 · 2급 자격기준을 완화 개정했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 부설 자비의전화는 2월 23일 조계사교육관 2층에서 제15차 정기총회를 열고, 작년 사업보고 및 신년 사업계획과 새 임원 선출을 발표했다.

이밖에도 자비의 전화는 불교상담개발원 분원 설립, 불교상담 전문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불교상담대학 · 대학원 · 사이버 과정 운영 및 학생 증원 등 신년 사업을 발표하고 “상담원활동 전문화를 위한 교육체계를 강화해 불교상담의 전문 영역을 개척해 전문화를 도모할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2014년 사업보고에서는 “전화상담과 사이버상담은 예년에 비해 소폭 감소, 청소년 사이버 상담 ‘아하섹스’와 전문면접상담은 각가 525건에서 768건, 202건에서 301건으로 약 30%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새 신임이사로 부명 스님(몽운사 주지), 혜타 스님(한국명상치료학회 연구위원), 담소 스님(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예술치료학 석사), 이운(나란다 대안학교 명상 및 인성, 집단상담 교사)을 선임했다.

이나은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8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3월 中
◆ 개강일시 : 2015년 3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3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 육 과 정

(1) 초 · 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 · 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104위, 39위),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개강일시 : 수시모집 가능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강주스님 : 성 우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인동 가산로 1045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불자사회복지사, 인터넷으로 양성한다

대불청–중앙원격평생교육원 복지업무 협약

10년 후 일자리 수요가 가장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1위는? 바로 사회복지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복지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노인 인구가 늘면서 복지 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까닭이다. 복지 서비스 대상도 기존 저소득층 대신 중산층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사가 미래 유망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고 불교 사회복지기관 역시 1천여개에 달할 정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 불교 윤리관에 입각한 사회복지사 양성은 요원하다.

기독교의 경우 각 기독교 대학마다 기독교복지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온라인 상으로도 신학과 복지를 함께 익히는 것이 어렵지 않다. 기독교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해 한국기독교사회복지교육원을 설립할 정도로 열성을 보이고 있지만 불교는 동국대와 중앙승가대를 비롯한 종립학교 몇몇 곳에서만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적으로 불교복지를 다루지는 않지만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나마 불교사회복지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 이하 대불청)와 교육과학기술부 인증 사회복지 교육기관인 중앙원격평생교육원(대표이사 정민영)이 지난해부터 협약을 맺고 불자사회복지사 양성에 나선 것이다.

중앙원격평생교육원은 대불청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지원하며 대불청은 회원들에게 교육 콘텐츠를 홍보, 불자 사회복지사 양성을 돕는다. 이에 따라 13개 지구 250여개 청년단체가 소속된 대불청 회원들이 손쉽게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대불청은 "불교계내에서도 자비사상에 입각한 사회복지사를 양성해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킬 만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며 "원격교육이라도 불교계 내에서 사회복지사를 양성할 수 있는 테두리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자비사상 입각 사회복지사 양성 목적
원격교육으로 낮은 진입장벽 '매력'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취득 지원

중앙원격평생교육원 교육 과정 등록 후 사회복지사 등의 관련 자격 취득에 걸리는 기간은 대략 1년. 관련 교육과정별로 14~27개의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시험에 응할 수 있다. 가령 전문대 이상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총 14과목 4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는 17과목에 51학점을 수강해야 한다. 1학기에 최대 8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교육이 진행된다고 별다른 검증과정이 없겠지하는 방심은 금물이다. 학기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필수로 통과해야 한다.



대한불교청년회와 중앙원격평생교육원이 협약을 맺고 불자 사회복지사 양성에 나서기로 협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진행된 협약식 장면. 대한불교청년회 전준호(사진 왼쪽)회장과 중앙원격평생교육원 정민영 대표이사.

현재 대불청 회원 중 등록 인원은 30명 내외. 홍삼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사회복지사 2급을 준비중이다. 불교도 복지를 통해 사회참여를 활발히 해야한다는 생각에서 사회복지사를 준비하게 됐다. 그는 "평생 불자로 살다가 임종 때 타종교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센터 등에 가게 되면서 개종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교복지 역시 포교방편 중 하나라는 것을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씨는 원격 강의에 대해 "따로 학교를 등록하지 않고 손쉽게 관련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라며 "주위 도반들에게도 이를 꾸준히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중앙원격평생교육원은 대불청 회원들에게는 수강료를 50% 할인해 주며 6과목 이상 수강시 교재를 무료 제공한다. 또 미술심리상담사, 방과후지도사, 독서지도사 등의 민간자격증 교육 역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새로일하기 여성센터, 전국아동협의회센터 등으로까지 취업연계가 이루어진다.

물론 아쉬운 점은 있다. 아직 불교계 복지기관으로의 취업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중앙원격평생교육원 이서진 팀장은 "꾸준히 관련기관과 접촉하고는 있지만 취업처 발굴이 쉽지는 않다"면서도 꾸준히 불교계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취업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02)3399-5725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서울노인복지센터 노인자원봉사단 발족

공연 · 외국어 · 원예 등 9개로 구성…3백여명 소속

서울노인복지센터(센터장 희유) 소속 어르신 3백여명이 모여 자원봉사단을 발족했다. 이들은 2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정식 발대식을 개최하고 앞으로 봉사단 활성화를 도모해 가기로 다짐했다.

그동안 서울노인복지센터 내 산재했던 봉사회는 프로그램활동지원, 문화애호, 원예, 안내, 상담, 탑골사랑, 외국어, 공연봉사회 등 9개 분야로 재편됐다.

2001년 늘푸른예술단과 외국어봉사회의 활동을 시작으로 어르신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온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지난 한해 1만786명이 어르신들이 3만9618시간 동안 봉사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왔다.

희유 스님은 "선배시민으로서 솔선수범해온 자원봉사단 어르신들 덕분에 복지관 운영이 부드럽게 유지될 수 있었다"며 "욕심을 빼고 행복을 더하면서 현명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자원봉사특강에서 강사로 나선 곽형모 한국자원봉사문화 교육위원장은 기대수명이 높아진 현실에서 이제는 장수보다는 웰빙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자원봉사만한 것이 없다. 봉사를 하며 삶을 배우고 여럿이 함께 기뻐하는 경험은 공동체적 즐거움과 배움을 통해 얻는 만족감 등 행복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배현진 기자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3백여명으로 구성된 노인자원봉사단을 발족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회 구성

피해자 12명 가족 참여 나눔의집, 2월 28일 추모제서

3.1절을 맞이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추모제를 개최한 나눔의 집(원장 원행)이 같은 날, 위안부 피해자 유족회를 발족했다.

나눔의 집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대부분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 12명의 가족들이 중심이 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2월 24일 밝혔다.

고(故) 김순덕 할머니와 고 최선순 할머니 등 세상을 떠난 피해자 2명의 가족과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10명의 가족이 유족회에 참여한다.

유족회는 일본의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고 피해자 증언활동과 추모사업을 돕게 된다.

2017년 나눔의 집 인근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센터가 들어서면 이곳에 사무실을 두고 위안부 문제 해결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유족회 발족은 2월 28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나눔의 집에서 3.1절 기념식을 겸해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태희(중요무형문화재 제5호)씨의 살풀이 춤을 시작으로 헌화, 추모사 등이 잇따라 진행됐으며 지난해 타계한 고(故)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제도 함께 거행됐다.

나눔의 집은 "추모제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잊혀져 가는 일본의 전쟁범죄를 고발하고, 더 나아가 일본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우리민족의 아픔이자, 우리 여성들의 수난사다.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하고, 문제 해결에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행복 노년 · 부부인생 2막 시작

일산노인복지관,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강


지난해 부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가자들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화)에서는 오는 4월부터 만 60세 이상의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노년의 성(性)인식 개선 및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그대를 사랑합니다Ⅱ'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대를 사랑합니다Ⅱ'는 노년기 부부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부부간 갈등을 겪고 있거나 혹은 관계 향상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10쌍을 대상으로 성(性)교육 및 의사소통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건전한 성인식 개선과 부부 친밀감 향상 도모를 위해 약 8개월 간 의사소통 훈련, 성교육, 자 서전 만들기, 리마인드 웨딩 촬영, 연극관람, 다시 떠나는 신혼여행 캠프, 부부컨설팅 등 다양한 집단활동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3월 20일까지며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 1층 상담실에서 접수를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복지관 측은 "'그대를 사랑합니다Ⅱ'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밝고 건강한 노년생활과 부부관계 개선을 이뤄낼 수 있길 바란다"며 "이 프로그램이 노년기 부부 문제의 해소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031)919-8677

배현진 기자

"가족센터 학습지원 입시에 큰 도움"

서울시한부모센터 교육 지원… 도담학교 2명 대학 입학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도담학교 수업장면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영호)가 한부모들의 학업을 꾸준히 지원, 최근 그 결실을 맺었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들 중 학업이 중단된 이들을 대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도담학교 졸업생 2명이 최근 대학에 입학한 것이다.

박미수(가명)씨와 곽자경(가명)씨가 그 주인공. 보육교사를 희망하던 박 씨는 도담학교의 교육비장학금, 좋은부모 미래설계장학금, 자녀보육지원으로 자립에 성공하면서 3월, 한양사이버대 아동학과에 입학하게 됐다.

박 씨는 "스스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과목마다 열심히 필기하며 공부한 게 도움이 됐다"고 합격 비결을 털어놨다.

한편 43세의 나이에도 성실하게 공부했던 곽자경씨 역시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에 입학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해 수해로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되는 등 도담학교에서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 중에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았다.

곽 씨는 "도담학교에서 미래설계교육을 받을 때 작성한 버킷리스트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고 스스로 다짐을 거듭해 목표를 모두 성취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훌륭한 강사님과 센터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에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도담학교를 통해 한부모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2)861-3020

배현진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47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5년 4월 7일(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녹음 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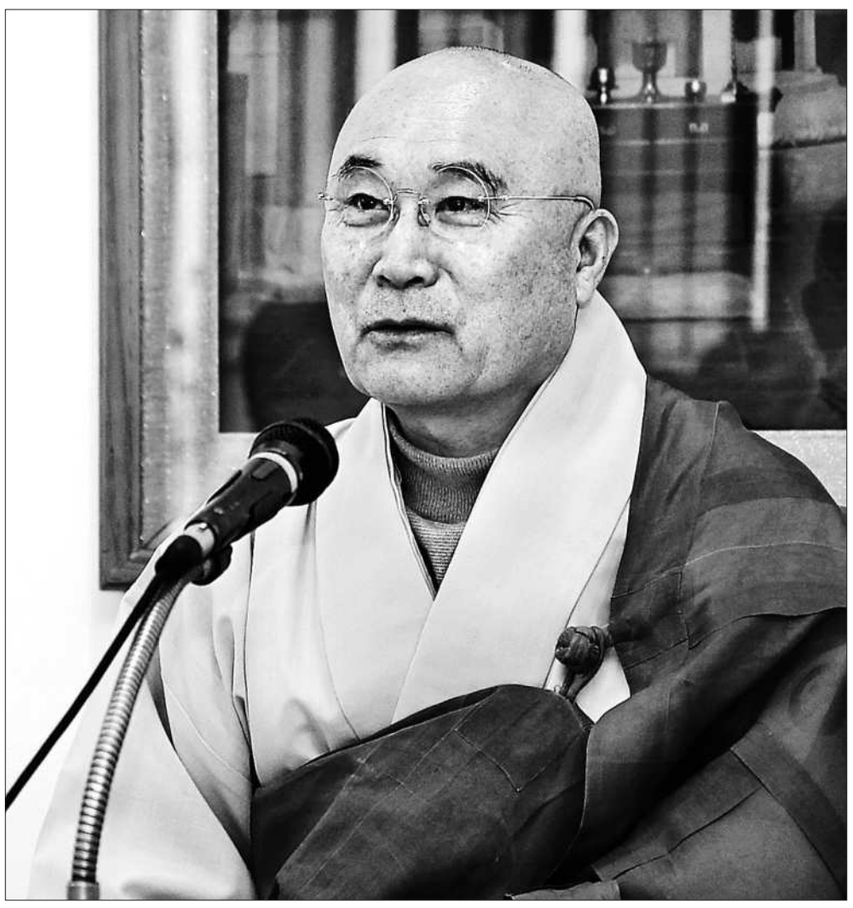
“질투·분노 내려놓고 관세음보살 부르세요”

조계사 일요법회

지원 스님(조계종 포교원장)

관음기도는 대중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보편적 기도 방법 중 하나다. 천 개의 눈과 천개의 손으로 중생을 보살펴 주는 관세음보살. 어머니와 같은 관세음보살은 늘 우리 곁을 지켜주고 있을 것만 같다. 지원 스님은 신구의(身口意)가 하나 되어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불러볼 것을 권유한다. 을미년 새해를 맞은 불자들이 관음기도를 통해 세상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겠다는 원력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

정리=정혜숙 기자



지원 스님은 … 문성준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4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0년 통도사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각각 수지 했다. 조계종 총무원 교무국장, 포교원 포교국장, 칠장사 · 법흥사 · 삼보사 · 육지장사 주지, 제9대 · 14대 · 15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조계종 포교원장과 서울 삼보사 및 양주 육지장사 회주를 맡고 있다. 시집 〈장명등〉과 서간문집 〈마음이 열리면 천당도 보이지요〉가 있다. 논문으로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해결중심 모델 적용에 관한 연구-선불교적 접근방식을 중심으로(석사)’가 있다.

업력으로 살 것인가 원력으로 살 것인가?

오늘은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원력과 관세음 기도를 통해서 내 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치고 불자이건 비불자이건 아마 관세음보살님을 모르는 사람을 없을 겁니다. 연속극에서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관음신앙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로 중생을 보살피는 분이에요. 관세음보살님 손에는 감로수 병이 들려 있어요. 또 전형적인 관세음보살님의 조성하는 원칙을 보면 연꽃을 들고 계시지 않고 연봉을 들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중생을 제도 해야겠다는 섭수의 원력이 들어 있죠.

감로수는 범천의 왕들이 마시는 음료수에요. 괴롭고 목마른 중생들에게 괴로움을 적셔주는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입니다. 연꽃은 성불한 마음입니다. 잎도 꽃도 진흙탕 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모두가 부처님과 같이 깨달을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또 범천들이 마시는 음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몸 안에도 감로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오염이 이루어지면 염증이 생기고 병이 생겨요. 우리는 아주 신성한 감로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더러는 과식을 통해 또 잘못된 식생활 습관으로 오염시켜 병이 나고 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감로수와 관세음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감로수가 교류가 됐을 때 몸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내 몸 안의 감로수를 여러분들이 오염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과식하고 과음해서 감로수를 썩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몸도 아프게 됩니다. 감로수가 오염되면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오염된 감로수가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업력과 원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업력이라는 것은 내가 타고난 행동, 행위, 습관 즉 카르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업력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는 원력으로 살 것인지를 잘 생각해보세요. 업력으로 살다보면 장애가 많잖아요. 여러분이 수지독송하는 천수경은 업력을 버리고 원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안내해줍니다.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을 향하는 기도문입니다.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지일체법’ 거기에는 속히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치고 관세음보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머니라는 이름처럼 우리 가슴속에 새겨져 있는 정다운 이름이죠.

먼 길 떠난 자식과 남편이 돌아오길 바라는 관세음보살, 바람난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길 바라는 관세음보살, 병들어 괴로울 때도 관세음보살, 고단한 시집살이가 괴로울 때 부엌 문전에서도 관세음보살, 대학입시 앞에서도 관세음보살, 답답하고 속상할 때도 관세음보살, 두렵고 불안할 때도 관세음보살, 기쁘고 즐거울 때도 관세음보살….

이렇게 우리 불자들은 어렵고 힘들 때 수없이 관세음보살을 불러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한없는 위로를 받아온 거죠. 그래서 고통과 절망의 늪에서 마침내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훌륭한 축원문이라는 거죠. 우주의 바로 이 자리, 여러분의 가슴속에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진희 보살이 관세음보살님께 여쭙기를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고 하나이까?” 여기에는 “모든 중생이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부르면, 큰 불 속에 빠져도 능히 태우지 못하고 관세음보살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여인이 아들을 구하고자 관세음보살을 예배하고 공경하면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고 혹은 딸을 구하고자 하면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하고, 또 두렵고 겁나고 화나고 두려운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관세음보살 자체가 복덕의 음성이고 중생의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 의지처가 되며 일체 공덕을 갖추고 항상 자비의 눈으로 중생을 바라보니 관세음보살이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10대원도 성취 가능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도 나의 원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할 답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보면 반드시 답안이 나오듯이 기도에도 답이 나옵니다.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지일체법’ 여기는 일체법이 무엇이냐 하는 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행과 불행은 저 멀리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은 일체법은 내 마음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가지가지 모든 생활이 이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법당을 오게 된 것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득일체중’의 원력입니다. 그럼 제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의 마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감로수 · 연봉 손에 든 관세음보살님
민중들 어려움 닥칠 때 간절히 관음기도
중생 제도하겠다는 원력세워
‘身口意’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먼저 조계사 법당에 가자는 마음이 일어나, 육체가 움직여서 여기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면 차차 안락한 극락정토라 했습니다. 또 한 생각이 지혜롭게 되면 행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불행이라는 것은 내가 운이 나빠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지혜롭지 못해서 오는 것입니다. 일체법이 내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것을 다시한 번 마음속에 아로새겨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울 때도 항상 ‘나는 잘 될 거야’ 하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하면서 ‘잘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졌을때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그 파장이 통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수행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득지혜안’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혜 있는 사람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짜증내지 않고, 혼자서 염주를 들고 앉으나 서나 관세음보살을 부릅니다. 그러면 새벽에 영감이 떠오르고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앉으나 서나 관세음보살을 불러 부세요.

또한 ‘나무대비 원아속득일체중’이라고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모든 일체의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선지식 밑에 사는 것하고 어리석은 사람 밑에서 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법과 인연법을 알아야 하고 인연법을 알게 되면 더 나아가서 지혜를 얻게됩니다. 이렇게 지혜를 얻게 되면 나 혼자만 편안하고 잘 살고 잘 먹을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아속득일체의 모든 중생을 나 혼자만 태평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득일체중’의 원력입니다. 그럼 제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의 마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관세음보살과 소통해야 하나?

그런데 여러분은 입으로만 외우니까 관세음보살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관세음보살님과 소통이 가장 잘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알고 일체법을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법을 전해야겠다 원을 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가지고 계신 감로수와 내 감로수가 합쳐져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일체 성현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원아속득일체중’ 일체의 중생을 구제해야합니다.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득선방편’ 중생을 제도하려면 방편이 중요합니다. 좋은 방편이 어서어서 얻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도 선교방편이 있어야 해요. 사람은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방편의 문을 가지고 있는 얼마나 불교가 멋집니까?

일체중생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다함께 가자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 아니에요? 이러한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득선방편’ 우리가 이런 지혜와 방편을 가지고 있어야 사업도 잘 될 수가 있어요.

불교공부를 잘해봐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지혜와 선교의 방편과 융통성도 늘어요.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득월고해’ 이러한 선교의 방편을 통해 생사의 낳고 죽는 고통의 바다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득계정해’ 계정해를 잘 닦아야 건강합니다. 계정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의 좋은 습관을 들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생활 속에 응용해 가면서 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관세음보살만 불러도 계정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득원적산’ 부처님이 살고 계시는 원적산에 이르게 되고 ‘원아속해무위사’ 원적산 속에 부처님이 계신 무위사라는 절이 있어요. ‘원아조득법성시’ 그 법당 속에는 부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나무대비관세음’만 하더라도 10가지 원이 있어요. 이런 원을 세워서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야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뜻을 잘 이해하시고 관세음보살님을 부르세요. 관세음보살만 불러도 10가지 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했을 때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과 입과 마음 즉 신구의가 하나가 되는 상태에서 나무대비관세음을 불러보세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찾듯,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간절하게 기도해보세요. 정성을 다해 10분 만이라도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해보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내려 놓고 마음을 텅 비워 보세요. 대부분은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 기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텅빈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내려놓는 정성으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인간의 길흉화복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혼들의 영향력 확인 천도법

일반적인 천도제가 아닌 내가영혼을
체험하는 확실한 영가천도법. 환자와 가족이 확인

1 영가장애를 상담자리에서 영가가 누구인지 확인체험
2 영가를 환자의 몸에서 확인가능
(6하원칙에 의한 빙의 경로 확인)
3 인체오라장 (생명전기장측정을 통한 과학적인
빙의 확인 치유과정 확인)
4 일반병, 정신병, 영가질환의 구분
(질병의 원인 영가장애 확인)
5 보라색과 파란빛, 황금빛으로 영가들이 천도되는
것을 확인
6 암, 당뇨, 고혈압,중풍,치매,우울증, 불면증,공황장애,
트라우마, 빙의, 무속병, 환청, 환시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질환의 원인규법 (유전병 치유, 특이성 질환)
7 영가들의 수준확인
⇨ 저급영가 – 한과 집착 질병 호소
⇨ 중급영가 – 진리를 찾아 방황과 혼돈
⇨ 고급영가 – 내면의 깨달음에 대한 갈망
8 신앙생활과 기도를 해도 진도가 없는분
스님, 불자분, 포교원
9 기도명상,만트라진언,영언수련을 통한
자신의 영혼과 교감으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과 삶의 가치확립, 영혼의 윤회 과정을
확실히 앎

검색 유튜브강의 자각선원 | 네이버카페 자각선원

자각선원 (인체전기파동의학) ☎ 043)296-5258. 010-9242-5259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원봉로 93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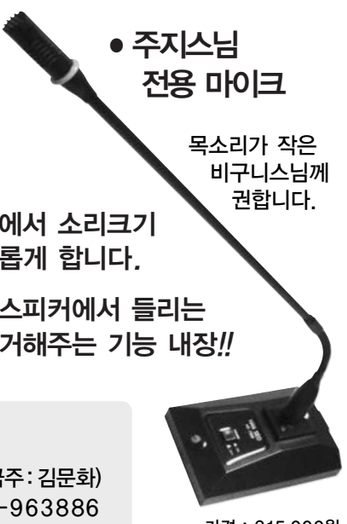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15,000원
28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불교문화재硏, 성보 가치지표 만든다

2015 신년사업 발표, 예산 사업활용… 보존정책도 강화

성보 문화재의 사회적 가치를 지표화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모아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정안)는 2월 26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2015년 보존 · 관리분야로 연구소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장 정안 스님은 "우리의 일은 우리가 가장 잘 안다는 말이 있듯이 불교문화재의 가치를 불교계가 앞장서서 알리고 보존해 나가야 한다"며 "전체 문화재의 60%인 불교문화재에 대해 국가적으로도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이 같은 방침 하에 2014년 기존 불교미술연구실과 유적연구실과 함께 정책연구실을 만들어 기반작업을 진행해왔다.

정책연구실은 불교문화재의 공익성과 경제성 등 가치연구를 통해 각종 지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또 국가지정 88건, 시도지정 293건의 불교 건축문화재를 대상으로 일상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안 스님은 "연구소의 전문성을 활용해 일선 사찰에도 활용, 교육 등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며 "사찰문화재 보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인력 육성에도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 산하 불교미술실은 2014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시작한 전국

정책연구 2년차 맞아 도입

불교문화재 사업 자료 구축

목판일제조사 후 인출 시작

사지성보, 문화재 지정 박차

목판 일제조사의 2년차 사업을 맞아 경판 인출을 시행한다. 인출되는 경판은 2014년 조사완료된 송광사를 비롯한 호남지역의 경판 21종으로 인출 자료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 2015년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7개 사찰의 목판 5481점이 조사 되며 범어사


불교문화재연구소가 2014년 진행한 목판 일제조사사업 모습

와 석남사, 해인사 소장 목판의 수장처 보존환경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불교미술실은 문경시의 요청을 받아 김룡사 소장 문화재에 대한 시도유형문화재 자료 발굴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출범 이후 2014년까지 81건의 보물 지정을 이끌었으며 현재 11건이 추가로 지정 예고 상태다.

이용윤 불교미술실장은 "조선시대 사찰에는 판전을 대표로, 경판을 관리하고 인출하는 문화가 있었다. 경판 인출을 통해 불교계의 인출문화를 복원하는 작업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적연구실 또한 2010년부터 4년간 진행한 폐사지 학술조사의 2단계 사업으로 사지 및 소재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자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4월 2단계 사업을 알리는 조계사 고불법회를 시작으로 유적연구실은 사지보존 정비 · 관리 매뉴얼 마련, 소재문화재 총람 발간 등 그동안 축적된 조사자료를 엮는데 주력한다. 또 미조사 사지 보완작업을 진행하며 대구 경북지역 200개 소 사지 현황이 조사된다. 이와 함께 보성 개흥사지, 삼척 흥견리사지 등 사적 가치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정밀 발굴조사도 시행한다. **노덕현 기자**

전재성 박사, '쌍윳따니까야' 통합 전집 펴내



전재성 박사(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은 최근 2002년 완역 출간한 초기불전 〈쌍윳따니까야〉을 한권으로 통합한 〈통합쌍윳따니까야전집 · 사진〉을 펴냈다.

기존 〈쌍윳따니까야〉는 제1권 시와 함께 모아엮음(교리와 관련된 문학적인 시), 제2권 인연 모아엮음(괴로움의 발생), 제3권 존재의 다발 모아엮음(괴로움의 거룩한 진리), 제4권 여섯 감역 모아엮음(괴로움의 거룩한 진리), 제5권 광대한 모아엮음(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방법)의 5권으로 전 박사는 11권으로 나눠 펴낸 바 있다.

전재성 박사는 2월 24일 "통합개정본은 색인화 작업으로 보다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부처님이 비유를 통해 설하신 부분을 목록과 쪽수를 달아 부록으로 실었다"고 말했다.

〈쌍윳다니까야〉에는 5460여 개의 주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팔리어번역술어, 한글번역술어, 팔리어경명색인도 부록에 함께 실려있다. 이번 단행본판은 2002년 초판과 2007년 개정판의 오역도 바로 잡았다.

한편, 〈쌍윳따니까야〉는 '주제에 따라 함께 엮은 가르침 또는 경전들의 모음'이라는 뜻으로 팔리어로 된 경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입문자들을 위한 포교 목적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고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편, 통합개정본 발간을 희사한 대구 지장의 벽안 스님은 "우리말 빠알리성전을 읽고 부처님말씀을 널리 펼쳐 승가가 정화되고 뭇삶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불국정토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보경사 적광전 등 성보 14건 보물지정예고



문화재청은 2월 23일 포항 보경사 적광전을 비롯해 '경주 황룡사 구층목탑금동찰주본기' 등 14건을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포항 보경사 적광전〈사진〉은 신라 진평왕 25년(602) 진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지명법사에 의해 창건됐다고 전해진다. 보경사 적광전은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신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포계 맞배 지붕 건물이다. 초석과 고막이 등이 전형적인 통일신라대 건축기법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보물로 지정예고된 '경주 황룡사 구층목탑금동찰주본기'는 통일신라 경문왕 11년 왕명에 의해 황룡사의 구층목탑을 중수하면서 기록한 실물자료다. 사리함 문비 내 · 외면에 선각된 신장상은 872년의 기록이 있어 불교조각사 연구에 기준이 된다.

'금동염거화상탑지'는 얇은 동판에 통일신라 선종승인 염거화상이 844년에 천화한 내용을 해서체로 전각한 탑지이다.

'전 회양 장연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관음보살좌상에서 보이는 섬세하고 정교한 표현기법으로 티벳 불교미술의 요소가 있는 학술가치가 있다.

'원주 학성동 철조약사여래좌상'은 원주지역에서 유행했던 조각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므로 한국조각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며 일제강점기까지 원주 학성동에 방치돼있었으나 현재 국립춘천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순천 매곡동 석탑 청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제작연대(1468년)가 밝혀진 작품으로 불상과 불감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봉화 태자사 낭공대사탑비'는 신라 말 고려 초의 고승인 낭공대사 행적의 탑비다.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은 '원각경'으로 약칭하기도 하는데 고려 우왕 6년(1380) 4월에 독자적으로 판하본을 마련해 간행한 목판본이다. **노덕현 기자**

중앙승가대 대학원, '연구논집' 제7집 발간

중앙승가대 대학원(대학원장 보각)이 최근 '대학원 연구논집' 제7집을 펴냈다.

이번 논문집에는 △아함전적에의 문헌학적 접근– '잡아함경' 제345경을 중심으로(정진일) △아가마 발굴을 위한 남북양전의 비교 · 대조 방법(김준호) △범한대음방식 고찰(안재철) △구결의 종류와 각 시대별 특징(정재영) △유심의 의미와 기초구조 연구– '화엄경'의 '십지품 현전지' 유심게 연구(도광 스님)가 수록돼 있다.

노덕현 기자

"열반경 사상 속에 민주주의 근간 찾자"

교불련, 24일 '진여와 불성' 세미나서 학자들 현대적 의미 모색

동아시아불교에 폭넓게 영향을 준 〈열반경〉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는 2월 24일 부산 진여원에서 '진여와 불성'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른쪽 사진〉

이날 자리에서는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열반경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쏟아져 나왔다.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열반경의 정치철학적 함의' 발표를 통해 공화주의 기본사상으로 열반경의 정신이 활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열반경〉이 인간존중을 비롯한 정치이데올로기 형성의 근간이 될 수있다는 분석이다. 정 교수는 "인간의 존재를 부처님의 지위로 고양시키는 대승열반경의 불성사상은 개인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발전돼 유엔 인권 선언과 선진 민주국가의 헌법정신에 구현되고 있는 인간존중과 인권사상의 근간이 이뤘다"고 해석했다.

정 교수는 "열반경이 추구하는 미래상은 대역죄까지도 구원되는 세계를 기린다. 이는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으로 가능한데 이러한 이념 하에서 칠불쇠퇴법에 의한 승가 공동체 운영방식이 나오게 된다"며 "여기서 원칙과 합의에 의해 운영되



는 선진국가의 공화주의 운영방식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차석 박사는 원효 스님의 주요 저작인 〈열반종요〉를 통해 원효 스님에게 나타난 불성의 개념과 그 현대적 의의를 해석했다.

차 박사는 "원효 스님은 열반종요의 불성관을 통해 타자를 포용할 수 있는 종교다원주의와 인간존중의 개념을 보인다"고 말했다.

최용춘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밀교의 수행체계를 공부하고 〈대반열반경〉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논의들이 제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반열반경의 일관된 이념인 대승이타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日서래사에 견성암(봉은사 전신) 영산회상도가?

문명대 교수, 〈강좌미술사〉서 가치 조명… 조선 영산회상도의 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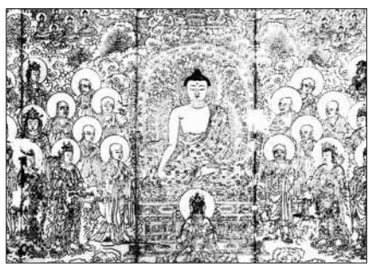
일본 서래사 세이라이지 소장 유물인 1459년 견성암 변상도에 대한 연구가 눈길을 끈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최근 〈강좌미술사〉 43호를 통해 일본 서래사에 보존돼있는 법화경 1질과 법화경 앞의 변상도에 대한 내용을 조사했다.

서래사 소장 법화경과 변상도〈사진〉는 지난해 11월 동국대 박물관에 최초 공개된 바 있다. 특히 변상도는 석가여래 앞에 무릎을 꿇고 불법을 청하는 '보살형 청문자'가 등장하는 국내 최초의 그림으로 조선시대 영산회상도의 원류가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명대 교수는 "7권 끝 발문을 보면 세종대왕의 5남 광평대군의 처 신씨의 발원으로 이를 새기게 되었는데 당시 세조 정권 5년 차로 왕실 안정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조성 사찰이 견성암으로 나오는데 개성 견성암과 봉은사 전신인 견성암이 유력한 후보"라고 말했다.

문 교수에 따르면 견성암 변상도는 특히 티벳계 명양식 불상의 특징이 나타난 조선초기 영산회도의 원조로 도상특징과 양식특징을 보이고 있다. 문 교수는 고려 법화경변상도의 형식에서 벗어나 정면을



향한 항마촉지인의 석가불과 8대 보살, 10대제자들의 모습이 짜임새 있게 배치된 새로운 형식을 보이는 최초의 예라고 설명했다. 이 변상도는 세조가 직접 참여해 왕실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1463년 언해본 〈법화경〉에도 그대로 차용되는 등 18세기까지 모각됐다.

문 교수는 "한국의 불교판화는 조선전기와 후기의 불교회화를 연결하는 고리임과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수용한 불교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며 "서래사 소장 견성암 영산회상도는 일본 내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성보로 한 · 일 불교문화 교류에 있어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서래사이 특별 공개하는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올 광주 봉축행사 주제는?… '어린이 · 청소년'

광주봉축위 공모사업 결과 발표
청소년 다큐 제작 등 눈길 끌어


2014년 광주봉축행사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어린이 수계산림 모습.

올해 광주지역 봉축행사는 '어린이 · 청소년'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행사 속에 진행된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 증심사 주지)와 광주전남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는 2월 23일 올해 실시할 불교단체 봉축행사 공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체 2500만원 공모지원금을 확정했다. 17개 단체가 지원한 이번 공모사업에서 15단체가 선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공모사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린이 · 청소년 프로그램이다.

주목받는 프로그램은 '빛고을 골목절 탐방 다큐멘터리 제작'이다. 선덕사 대안도서관에서 응모한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저마다 비디오카메라를 들고 사찰을 다니며 촬영한 영상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 1명의 지도하에 청소년 4인으로 총 5개조를 구성해 사전 조사활동과 불교문화재 촬영, 사찰 스님 인터뷰 등을 진행한다. 이어 사찰엽서, DVD제작, 홍보부스 운영 등의 사업도 병행한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에서 진행할 계획인 '두 발로 만나는 부처님세상'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들이 광주의 중심구간인 광주천과 영산강을 자전거를 타고 답사하며 생명과 환경, 전통문화를 체험한다. 이들은 인근 전통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며, 광주봉축위원회 공식행사인 광주천 전통등전시회를 관람하고 체험하는 시간도 갖는다.

소외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의 '광주소년원생과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이다. 광주소년원생 2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문화축제, 전통등만들기, 간식제공이 진행된다. 특히 포교사 문화예술팀이 참여해 소년원생들과 함께하는 문화축제가 눈길을 끈다.

이외에도 작년에 가장 우수한 행사로 평가받았던 동원사의 '제2회 나무숲 어린이 수계산림', 정광중 · 고등학교의 '행진용 장엄등 만들기' 등의 어린이 · 청소년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는 최근 관심을 요구하는 대학생 포교사업도 선정됐다. 법림사의 '7주 7사찰음식을 통한 대학생 체험 및 공양보시', 성덕문화재단의 '불자들의 성년의례', 전남대불교학생회의 '봉축행사 프로그램'이 그 것이다.

이외에도 광주전남불교NGO연대에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50군데에 부처님의 생일떡케익을 전달하는 '광주시민사회단체에 전하는 '붓다의 떡공양'', 빛고을자연사찰음식체험관의 '지역 거주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맛있는 day', 광주불교방송의 기획캠페인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광주외국인복지센터의 '아시아 외국인근로자 부처님오신날 기념법회 및 체육대회', 전통등만등회의 '지화연꽃 및 목단꽃 강습회', 동구청불자회의 '부처님오신날 떡 나누기' 등이 각각 선정돼 지원금을 받게 됐다.

공모사업 진행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 상임이사 혜공 스님(성거사 주지)은 "광주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불교신행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봉축행사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는 어린이 · 청소년 사업이 많이 진행하게 되어 지역 포교사업에 큰 의미있는 발전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선정된 공모사업은 4월~5월 2개월 동안 진행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쌍림열반도 등 200여점 일반에 공개

군산 동국사, 환수 문화재와 근현대 불교자료 특별전시회서



3 · 1절을 맞아 국내 유일 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가 환수 문화재와 근현대 불교사료를 전시하는 특별전을 열었다.

군산 동국사(주지 종걸)는 2월 16일 일제 강점기와 임진왜란 당시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환수된 문화재와 근현대 불교자료를 모은 특별전을 개막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동국사에서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는 일본에서 최근 환수된 〈조선전기 쌍림열반도〉 〈금오계첩〉 〈김옥균 유묵〉 〈소치 허백련 수묵화〉 〈의친왕 이강공 유묵〉등의 환수문화재와 용성 스님의 〈신역대장경〉과 〈귀원정종〉 1900년의 신도증, 금타대화상 정보 정음 관음문자 목판본, 전등사본 말사지, 1900년 초기 안거증 등 근현대 불교자료 200여점이 공개됐다. 특히 이번 특별전을 통해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일본 불교의 침투에 맞서 조선불교의 정통성을 되찾기 위한 당시 불자들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

종걸 스님은 "일제 침략 당시 우리불교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수문화재를 전시함으로서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그동안 수집한 5천 점에 이르는 자료를 현재 불사추진 중인 전시공간에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람객 김민철씨(부산광역시)는 "침탈당했던 문화재를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해외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가 조국의 품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괴산 유기농엑스포에 '종교문화축제' 유치

'종교와 유기농관' 등 종교인의 수행정신 조명 예정



오는 9월 세계 유기농산업엑스포(이하 유기농엑스포)를 개최하는 충북 괴산군이 종교계 7대 종단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괴산군에 따르면 임각수 군수는 1월 30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개최하는 '제19회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를 유기농엑스포장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2월 2일 임각수 괴산군수는 공동대표의장인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임 군수는 이어 17일에는 김경준 목사, 법공 스님(괴산 각연사 주지)스님, 김용일 신부 등 괴산군 내 종교지도자 13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임 군수는 종교지도자들에게 종교문화축제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유기농 엑스포에 종교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군이 종교문화축제 유치에 나선 것은 종교계의 유기농엑스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괴산군은 유기농엑스포 전시장에 '종교와 유기농관'고 마련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종교지도자들의 생태적인 삶을 보여주는 각종 자료와 보리수, 포도나무, 로뎀나무 등 종교와 연관이 있는 나무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지친 현대인 위한 마인드 힐링공간 세워져

광주 광덕사, 2월 25일 'most행복센터' 개설



광주에 지친 현대인을 위한 마인드 힐링 공간이 만들어진다. 광덕사(주지 효진)는 2월 25일 설법전에서 'MOST 행복센터' 개관을 위한 붓다빠라스님 초청법회와 설명회를 개최했다.

MOST 행복센터란 자연생활건강연구원, 마인드케어평생교육원, 언론기관 행복공감 등으로 구성되며, 스트레스시대 마음건강회복 프로그램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자연건강 음식문화 선도, 공존과 어울림의 사회를 위한 통찰과 지혜의 성숙, 불교의 새로운 사회소통 모델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3월 개강하는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은 마인드케어클래스 일반과정과 전문가과정 등이 개설된다. 또한 녹색식물을 활용한 그린인테리어, 연 · 두부 · 콩나물 · 인도커리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자연건강음식교실, 템플스테이 · 숲치유센터 등을 진행할 자연건강지도사 과정도 개설된다.

다양한 캠프 · 연수 과정도 눈에 뛴다. 자연건강힐링캠프, 청소년 리더스포럼, 행복공감캠프, 멘탈생산성 연수 등이다.

효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사찰이 명상과 힐링의 공간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불교의 중요한 키워드는 수행을 통해 자유와 행복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10월 세계산불총회서 낙산사 복원 조명

참가자 오대산 탐방 및 월정사 템플스테이도 진행

평창에서 열리는 제6차 세계산불총회에서 양양 낙산사 화재 극복과정이 조명된다.

산림청과 강원도는 10월 12~16일 평창 알펜시아에서 80개국 3천 여명이 참석하는 세계산불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산불총회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 등에 대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주제로 열리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2005년 양양산불로 불탄 천년고찰 낙산사 및 주변 생태의 성공적 복원 현장, 고성 통일전망대 및 1996년 고성산불 복원현장 등의 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월정사 템플스테이, 오대산 단풍 및 숲체험 코스, 설악산케이블카와 설악문화센터 코스, 대관령 옛길 및 대관령 휴양림 코스, 정선 5일장 코스 등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세종종합복지지원센터 조계종서 운영

세종시는 최근 세종종합복지지원센터(종촌동) 수탁사업기관으로 공모를 통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선정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세종시와 2월 28일 종합복지지원센터 운영 협약서에 서명했다. 조계종 복지재단은 오는 6월부터 해당 시설을 넘겨받아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해 11월 완공된 세종종합복지지원센터는 지하 1층 · 지상 4층, 건물면적 1만5천872㎡ 규모로, 사회복지관, 노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가정폭력통합상담소 등을 갖추고 있다.

노덕현 기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 처명)

도무지 잠이 안와 !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 뜩자지 못해 !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僧家 秘傳 風水學 講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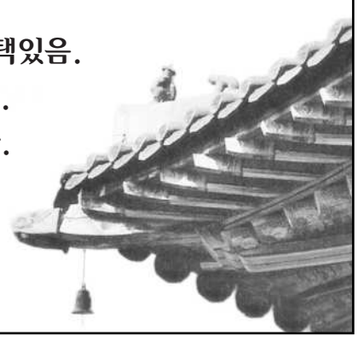
옛 승가의 비전 풍수학 강의 개설
스님들을 위한 공간 확보

천문과 지리를 알면 운명이 바뀐다.
재가 불자를 위한 방편지학

■ 개설시기 : 2015년 3월. 둘째 목요일
■ 시 간 : 매주 목, 금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 장 소 : 서울시 강남역 교보문고 뒤 정통풍수지리학회
■ 교 재 : 유 리 자 (유리자동서)
옥 룡 자 (무감편)
무학대사 (동사심전) 등
양택과 음택 중점 강의

· 관심있는 스님들께는 추가 혜택있음.
· 처사님들 강의는 따로 합니다.
· 지방 강의 개설 문의 받습니다.

전화 010-5559-1529



예봉 합장

“만원의 행복 전하며 기적 만들어가요”

부산생명나눔실천, 기부 릴레이 발대식

생명나눔을 위한 인드라망 기부 릴레이가 펼쳐졌다. 생명나눔실천 부산본부(본부장 원범 · 이하 부산생명나눔실천)는 2월 26일 부산 선암사에서 기부 릴레이 캠페인 ‘만원의 기적, 만인의 행복 만萬한 기부!’(이하 만만한 기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선암사 신도들이 피켓을 들고 나서 대중들에게 기부 동참을 권유 했다.

‘만만한 기부’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가족 및 가까운 지인 3명에게 희망 메시지와 생명나눔계좌번호를 담아 기부를 권유하는 문자 보내기 캠페인이다. 문자를 받은 지인은 동일한 방법으로 3명에게 문자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생명나눔실천 부산본부는 이 캠페인을 통해 후원금 모금 및 홍보를 통한 인식 변화를 재고한다는 방침이다.

본부장 원범 스님은 “이번 릴레이는 어렵고 힘든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 생명나눔 활동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적극적 후원으로 자비를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발대식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한 본부장 원범 스님과 신도들은 일제히 핸드폰을 들고 가까운 지인에게 기부를 권유하는 문자를 보냈다. 행사에 참여한 김부녀(48) 씨는 “평소 가까운 도반 중에 관심이 있는 친구 3명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금방 긍정적인 답이 왔다. 평소에도 생명나눔실천을 통한 자비 나눔에 대해 생각했는데 오늘 이 캠페인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활동 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최정민(58)씨는 “뜻 깊은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고 많은 분들이 이 뜻을 이해하고 동참하셨으면 좋겠다”며 바람을 밝혔다.

만원 기부 권유하는 ‘만만한 기부’
10만명 동참 목표로 캠페인 개최
장기기증 희망등록 · 후원문화 확산도



생명나눔실천 부산본부는 2월 26일 부산 선암사에서 기부 릴레이 캠페인 ‘만원의 기적, 만인의 행복 만萬한 기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선암사 신도들이 기부를 위한 구호 피켓을 들고 함께 동참하기를 권유하며 환하게 웃었다.

부산생명나눔실천은 이번 릴레이 기부를 통해 10만명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한 사람당 한 구좌 만원 기부로 총 10억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 후원금으로 생명나눔실천은 난치병 환우 돕기, 기부문화 확산, 자살예방센터 활성화에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부산생명나눔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우들이 너무나 많지만 현재는 사정상 2명의 환우를 매달 선정해 지원을 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환우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부산생명나눔은 선암사에 이어 길상사, 대광명사, 미타선원 등 생명나눔실천 소속 사찰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부산 시내 중심가에서 홍보를 위한 캠페인도 펼친다.

또한 장기기증희망등록과 후원문화 확산, 자살예방을 위해 ‘일!오!오! 캠페인’ 도연다. 이는 1명이 5명의 기증희원과 후원회원을 확보하자는 의미가 담겼다.

부산생명나눔은 이 캠페인을 통해 장기기증 5천명 · 후원회원 5천명을 확보를 목표로 캠페인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또한 생명존중 교육 강화로 현재 5% 밖에 그치고 있는 불교계 장기기증희망등록률을 10%로 신장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성미 기자

원순 스님 부산에서 ‘원각경’ 특강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이 부산에서 마련된다.

원순 스님은 부산 묘광선원에서 ‘The 열린 불교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개강은 4월 20일로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3시간 씩 4개월 간 진행된다. 원순 스님은 이에 앞서 3월 6일 부산 영광도서에서 특강(오후 2시)도 진행한다.

원순 스님은 “원각경은 우주 인생의 근본이며 천지 만물의 근원을 부처님과 12보살님들의 문답을 따라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경”이라며 “원각의 세계에서 편파적인 감정과 고집스러운 의지, 어리석은 구름을 일으킨 범부중생의 길을 떠나 우리의 본마음, 불보살님의 본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원순 스님은 해인사, 송광사,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현재 서울 열린선원에서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선어록을 강의하고 있으며 스님들을 위한 공부모임인 경전연구회에서 ‘명추회요’ 강의를 맡고 있다.


원순 스님이 ‘The 열린 불교 아카데미’를 열고 원각경 강의에 들어간다.

저서로는 〈마음을 바로 봅시다(명추회요)〉, 〈禪스승의 편지(대혜 서장)〉, 〈한글원각경〉, 〈선요〉, 〈도서〉, 〈연꽃법화경〉, 〈선가귀감〉, 〈금강경오가해설의 6권〉을 비롯해 선가귀감을 강설한 〈선 수행의 길잡이〉, 〈큰 믿음을 일으키는 글(원효스님의 대승기신론소)〉 등이 있다. (051)244-0263

하성미 기자

성도재일 기념 자비의 쌀 나눔 행사

조계종 부산연합회 2월 16일 안국선원서 전달식

조계종 부산연합회(회장 수진)가 성도재일 기념대법회를 회향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2월 16일 ‘제4회 성도재일 기념대법회 기념 자비의 쌀 증정식’을 안국선원 교육관 1층에서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1000만원 상당의 자비의 쌀이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외 30여 개의 무료급식소 및 자원봉사단체에 기부됐다. 자비의 쌀은 지난 1월 25일 제4회 조계종 부산연합회의 성도재일 기념대법회 행사에서 모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마련됐다.

회장 수진 스님은 “해마다 쌀을 나눠 드리지만 항상 부족한거 같아 마음이 무겁다. 내년에는 더 많은 이웃들에게 자비의 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작지만 정성으로 받아 주신다면 감사하겠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 ‘성도재일 기념대법회 기념 자비의 쌀 증정식’

하성미 기자

“지역 불교계 소통과 화합에 힘쓰겠다”

대불총 신임회장에 덕문 스님 취임

대구불교총연합회가 신년교례회를 갖고 신임 회장 덕문 스님 스님(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대구불교총연합회가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고 대구불교 발전을 위한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대구불교총연합회 제2대 회장에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 신도회장에 류병선 영도벨벳 대표가 각각 취임했다. 대구불교총연합회는 2월 24일 대구 아양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을미년 신년교례회 및 신임 회장, 신도회장 취임 법회를 가졌다.

덕문 스님은 초대 회장인 성문 스님(전 동화사 주지)에 이어 대구불교총연합회 제2대 회장으로 취임, 앞으로 3년 동안 대구불교총연합회를 이끌어 간다.

덕문 스님은 “대구 불교계의 소통과 화합에 대구불교총연합회가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불보살님들의 대지혜와 원력으로 종합불교문화 도량을 건립해 포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전했다.

회장 덕문스님은 1985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고, 1990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2005년~2011년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빛처럼 밝은 한해를 발원합니다”

부산 한마음선원 촛불재… 2월 22일~24일


정초를 맞아 부산 한마음선원은 2월 22일~24일간 촛불재를 봉행했다.

정초를 맞아 부산 한마음선원(지원장 혜도)이 2월 22일~24일 촛불재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3천여 명은 초를 들고 자성본래불(自性本來佛)을 외며 초와 같이 세상을 밝히는 자리이타의 마음을 발원했다. 이와함께 천도재, 대행 스님 법문 및 찬불가 30주년 기념 공연 비디오 시청, 템플스테이 등이 개최됐다.

부산한마음선원지원장 혜도 스님은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연례행사다. 스스로를 태워 주위를 밝히는 촛불처럼 내 마음 안에 나 자신과 이웃을 위한 불을 밝혀 한해를 살고자 다짐하자는 뜻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며 취지를 전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불자들은 촛불재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심정이며 새 힘을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 한마음선원 박해일(59) 신도회장은 “25년 가까이 촛불재에 참석하고 있다. 촛불재는 마음 속 깊은 곳에 쌓여 있던 업의 의식을 청소하는 시간으로 조상님과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다. 촛불재를 통해 정초의 시작을 밝힐 수 있어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재)일념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개최

2월 26일 부산 묘광선원서

불교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일념장학회(이사장 이채영)가 2월 26일 부산 묘광선원에서 2015년 장학금전달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일념장학회 이영채 이사장, 부산 기장 안적사 주지 법안 스님, 영광문화예술원 이경순 원장 및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장학금은 부산의대 학생 외 대학생 3명 및 중 · 고등학생 10명 등에게 총 700만원이 지급됐다.

이영채 이사장은 “불자로 성장하고 학생들 모두가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며 “불자 포교를 위한 장학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념장학회는 20년간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 불사를 이어오고 있다.

하성미 기자

– 대만 “공승제” 5일
● 출발일 : 9월 2일 요금문의

[부산출발] 구화산 / 보타산 6일
출발일 : 5월 29일, 6월 17일 요금문의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초특급상품] 출발일 : 5월 30일, 6월 6일 요금문의
[실 속 상 품] 출발일 : 5월 27일, 6월 13일 159만원

[비엔티엔, 루앙프라방, 방비엥] 라오스 6일
출발일 : 6월 2일, 6월 23일 요금문의

[민족의 영산] 북경 / 백두산 5일
출발일 : 6월 1일, 6월 29일, 7월 13일 요금문의

‘꽃보다 할배’ 이번엔 그리스 문화탐방 완전일주 9일
산토리니, 루이스쿠르즈 탑승. 중간항공 2회 요금문의



마하연투어 since1994
문의처 : 02) 365-7747
청정행 두손모음

특별함
1 직영운영으로 중간마진을 뺀 가격 책정(거침없는 상품가격)
2 오랜 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3 맞춤 순례 운영
※ 불교행사, 봉사단체, 패키지여행




www.mahayeon.com

인천 또는 부산 출발 순례 상품
• 특급호텔 • 추가경비 없음 • 타사비교필수

세계문화유산 루앙프라방 포함 꽃보다 청춘 라오스 6일
라오항공 직항 비엔티엔, 루앙프라방, 방비엥

대한항공 직항 스리랑카 6일

[3대성지 순례]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양곤–바간–헤호 5일

[앙코르왓트] 베트남–캄보디아 6일
[하노이–양곤] 베트남–미얀마 6일

[지장도량 / 관음도량] 상해/항주/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출발일: 3월 11, 26일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 5월26일.6월2일.6월9일

[문수도량] 북경/오대산 5일
출발일: 5월29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출발일: 5월29일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인도–네팔 8대성지 11일

하와이 6일(2일관광+2일 자유시간) 152만원 ~ 부터
스페인/포르투칼 하이라이트 8일 197만원 ~ 부터
터키/그리스 9일 토요일 출발 287만원 ~ 부터

적막을 삼킨 山寺… 삿된 마음 디딜 곳 없구나

적멸보궁이 있는 사찰

④ 비슬산 용연사



사명대사가 임진왜란 후 원래 통도사에 모셔진 진신사리 2과중 1과를 용연사에 분과해 왔다. 사진은 돌계단 위에 적멸보궁이 위용을 자랑한다.


적멸보궁에서 바라본 석조 계단 사리탑


용연사 전경. 극락전과 3층석탑이 인상적이다.

2010년 대구지역의 최고 '아름다운 거리'로 달성군 옥포면 용연사 벚꽃길이 선정됐다. 용연사 벚꽃길은 40년이 넘은 벚꽃 가로수가 1㎞ 정도 이어져 관람객들로 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겨울의 찬기운이 가시지 않은 2월 23일에 찾은 용연사에는 아쉽게도 화려한 풍광을 볼 수 없었다. 용연사 종무소측에 물어보니 1달 정도는 더 기다려야 벚꽃의 장관을 상춘할 수 있다고 했다. 용연사는 벚꽃길도 유명하지만, 실은 우리나라 8대 적멸보궁 중 하나로 더 이름난 도량이다.

용연사를 오르려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이 일주문이다. 크기는 크지 않지만, 공포의 화려한 장식이 돋보인다. 극락교를 건너 경내로 들어섰다. 사천왕문을 지나 보광루를 지나면 널찍한 마당에 주불전인 극락전과 함께 여러 전각이 눈에 들어온다.

고려시대 조성된 3층석탑 뒤편으로 정면 3칸의 맞배지붕을 이고 있는 극락전이 있다. 내부에는 영조 때 조성된 후불탱화와 삼장탱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20여년 전 도난당했다고 한다. 후불탱화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의 빈궁 조씨가 세자의 삼년상을 마치고 시주해 만든 불화인데, 도난당했다는 사실이 여간 씁쓸한 게 아니다.

사력을 살펴보면 용연사는 914년(신라 신덕왕 3년) 보양 국사(寶壤國師)가 창건했으며,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603년 사명대사의 명으로 중창됐다. 또한 사명대사가 임진왜란 후 원래 통도사에 모셔져 있던 부처님 진신사리 2과 중 1과를 용연사에 분과해 왔다. 적멸보궁 사찰이 된 연유다.

임진왜란 때 왜군은 통도사의 사리를 탈취한다. 사명대사가 설득해 반환받게 되는데, 이 사리의 처분을 위해 스승인 서산대사를 찾아가자 한 개의 함은 태백산 보현사에 안치하고, 나머지 하나는 다시 통도사에 안치하고자 했다. 하지만, 다시 정유재란이 발발하고, 사명대사마저 입적하게 되자, 제자인 청진이 두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사리 한 과는 통도사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하나는 용연사에 모시게 되니 바로 이것이 용연사 석조계단이다. 통도사의 금강계단과 같은 계단형 사리탑으로 보물 539호로 지정돼 있다.

914년(신라 신덕왕 3년) 보양국사가 창건
임진왜란 때 소실 후 사명대사 중창
조선 경종때 승려만 5백여명인 대찰

부처님 사리가 안치된 석조계단 앞에는 적멸보궁이 자리한다. 진신사리는 부처님과 동일하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불상이 조성될 때까지는 유일무이하며 경건한 숭배대상이었다. 적멸보궁은 부처님과 동일한 진신사리를 모신 곳으로 사리가 안치됐기 때문에 전각중 유일하게 불상이 없다. 진신사리가 있는 방향으로 창이 나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이다.

이중기단 위로 석종을 올려놓은 듯한데, 기단에는 각 면에 2구씩 팔부중신을 새겼다. 도드라지게 표현된 팔부중신의 모습은 옷자락과 무기, 구름이 한데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예전에는 사리탑 사방에 사천왕상이 한 구씩 있었는데 도난 위험 때문에 극락전에 갖다 놓았단다. 적멸보궁서 내려오는 길 우측에는 이곳서 수행한 선지식들의 부도가 가지런히 정열해 있다. 부도가 많이 모여있어 부도밭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곳 용연사에는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가여서 '밭'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어색하다. 그래서인지 경건함보다는 남달리 친근함이 느껴진다.

신라시대에는 비슬산 일대에 산재한 암자가 3천여 개소에 이르렀을 정도로 이 일대는 불국토였다고 한다. 이 가운데 지금도 남아있는 옥포면 반송리 용연사를 으뜸으로 쳤다. 용연사는 보양 대사의 창건 기록만 있고 고려시대까지의 연혁은 전해지지 않는다. 이후 1419년(조선 세종 1년) 천일(天日)이 중건했으나 임진왜란 때 불탔다. 1603년(선조 36년) 탄옥경천 등이 사명대사의 명으로 중창했다. 1621년(광해군 13년) 범종각을 지었고 1650년(효종 1년)에 다시 법당과 요사채 등이 불에 탔다.

1653년에는 홍묵이 대웅전을 지었고 승안이 명부전을 건립했다. 이어 1655년 희감과 홍묵이 함허당과 관정료를 세웠고 이듬해 청진이 관음전을 지었다. 1658년에는 도행이 명월당을, 그 이듬해엔 학신이 향로전을, 1660년(현종 1)에는 일순이 약사전을 차례로 건립했다.

1670년 천왕문 앞의 석교가 완성됐고, 1673년에는 자진이 세존부도와 비석을 세웠다. 1722년(경종 2년)에는 대웅전과 종각을 수리했는데, 당시 절 규모는 2백수십 칸에 이르렀으며 거주하는 승려만 500여 명에 이르렀다 한다. 현존하는 건물은 극락전, 적멸보궁, 나한전을 비롯해 사명당, 보광루, 일주문, 사천왕문 등이 있다.

문화재로는 보물 제539호인 석조계단과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권4~7(보물 제961-3호),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보물 1813호),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6호인 삼층석탑, 극락전, 부도군 등이 있다.

대구 용연사=김주일 기자

유정당 5월 완공… 정신 문화 체험 공간 활용

용연사 주지 활중 스님



"지난해 8월 문화체험관인 '유정당' 건립 불사 기공식을 봉행했습니다. 유정당은 임진왜란 때 3만 승병을 일으켜 왜군을 격퇴시킨 사명대사의 혼이 담긴 곳입니다. 현재 경내에 건립되는 유정당도 이런 유지를 받들어 사명대사인 유정(惟政)의 호를 따서 명명했으며, 향후 지역민과 내방객들을 위한 역사 및 정신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용연사 주지 활중 스님은 올 5월 완공 예정인 유정당 불사에 대해 먼저 말머리를 풀었다. 유정당은 군비 등 19억원의 예산을 들여 1층에는 최신 시설을 갖춘 공양실(275.94㎡), 2층에는 참선수행, 불교대학, 템플스테이 등으로 활용할 설법전(198.09㎡)을 갖추는 등 연면적 474㎡ 규모의 전통 목구조 와가 형태로 조성된다.

활중 스님은 "3월부터는 가족법회를 개설하고,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불교대학을 활성화시키는 등 신도 교육과 신행 도량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김주일 기자

주요 성보 문화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

문화재청은 지난해 1월 28일 대구 용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을 보물로 지정했다.

문화재청은 "보물 제1813호 대구 용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은 발원문을 통해 정확한 제작연대(1665)와 제작자(도우)를 알 수 있는 작품으로 당당한 불신(佛身), 강직한 선묘(線描) 등에서 17세기 대표적인 조각승 도우의 양식적 특징이 잘 나타나있다.

중수개금기(重修改金記)까지 포함하고 있어 불상의 개금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삼층석탑

1995년 5월 12일 대구광역시문화재자료 제28호로 지정되었다. 하기단부(下基壇部)를 보수하였으며, 단탑 기단에 탑신과 옥개를 각각 하나의 돌로 구성한 삼층석탑으로 노반이 남아있다. 기단부는 지대석의 보수 때 새로운 석재로 대치되었고 면석은 탱주(撐柱) 1개와 우주(隅柱) 2개씩을 각출하였으며, 갑석(甲石)은 부연과 2단의 괴임을 각출하였고 상면을 외연쪽으로 경사지웠다. 옥개는 4단의 받침과 2단의 괴임을 조각했다. 초층기단에 갑석 상면이 경사를 이루고 옥개 받침이 4단이라는 것과 옥개의 낙수면이 짧고 기단부의 폭이 짧은 것, 추녀가 얇은 데 비하여 받침이 높은 형식 등은 신라 석탑에서 변질된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높이 3.2m의 화강암 석탑이다.

방수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방수연등전선 전문 생산업체인
(주)삼정전기와 계약 체결로
KS정품 연등전선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색상 : 회색선
선굵기 : 1.5㎜


방수전선-22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1m / 6cm연등


방수전선-25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2.5m / 8cm연등


방수전선-30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5m / 8cm연등


방수전선-50cm
할인가 75,000원 (5줄이상)
정 가 9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25m / 13cm연등


방수전선-1m
할인가 90,000원 (5줄이상)
정 가 10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50m / 야외용


방수전선-2m
할인가 80,000원 (5줄이상)
정 가 90,000원
• 방수전선 1줄 : 25구
• 길이 : 50m / 야외용


국산 LED전구
100,000원
1BOX : 50개
색상 : 초불색/주광색


전구(10W)
@ 250원
1BOX: 100개
제조원: 베트남


PVC영가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집게부착 20,000원
• 크 기 : 8.5cm×21cm



PVC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집게부착 20,000원
• 크기:8.5cm×21cm • 진분홍, 연분홍


연등속지 백색 1묶음
판매가 6cm 3,500원
판매가 8cm 4,000원
판매가 10.5cm 4,500원
판매가 12cm(한제)10,000원
※1묶음당 100개를 만들수 있음.


한지 칼라등지
판매가 8cm 27,000원
판매가 10.5cm 38,000원
※ 1묶음당 50개를 만들수 있음.



한지 칼라등지
완성품


플라스틱 등표연결집게
판매가 15,000원(100개)
• 연두색 / 흰색 中 선택



PVC등표 전용펜
판매가 2,000원
• 제 조 사 : 사쿠라 (일본)
• 가는 글씨와 굵은 글씨를 쓸수 있는 양면 펜.
(★검정색)

비닐만월등 ▶
판매가 150,000원
• 1BOX : 100개
• 등지름 : 30㎝


▲바림등(8cm)
할인가 3,200원 (30개이상)
정 가 3,800원
• 1BOX : 30개 • 등지름 : 24㎝
• 빨강,보라,주황,분홍,진분홍,흰색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등 할인가

• 바림등(6㎝) @2,700원 (60개이상)
• 바림등(8㎝) @3,200원 (30개이상)
• 바림등(10.5㎝) @6,000원 (16개이상)
• 바림등(13㎝) @13,000원 (6개이상)
• 바림등(20㎝) @35,000원 (2개이상)
• 바림등(30㎝) @80,000원 (1개이상)
• 공단등(6㎝) @3,000원 (60개이상)
• 공단등(8㎝) @3,600원 (30개이상)
• 공단등(10.5㎝) @7,000원 (16개이상)
• 공단등(13㎝) @15,000원 (6개이상)

• 비닐만월등 A형(100개) 150,000원
• 비닐만월등(국산100개) 170,000원
• 연화만월등(100개) 200,000원
• 영가만월등(100개) 200,000원
• 장만월등(국산100개) 220,000원
• 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
• 등철사(100개)
6㎝ 75,000원 / 8㎝ 80,000원
10.5㎝ 85,000원 / 12㎝ 100,000원


일반연잎(소/대) 6,0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빨강/녹색/흰색


바림연잎/한지바림연잎
7,500원 / 8,5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빨강/녹색/흰색


천바림연잎 30,000원
진분홍/ 주황/ 빨강/ 연분홍 / 보라
수량 : 약 1,200장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10-2094-2991-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불법 수호하는 위용서린 사자 석탑

탑의 진화

㉛ 탑의 진화 (사자탑 1)

우리나라에서 '사자' 는 그리 친숙한 동물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한국인들에게 수호의 의미가 담긴 전통적 맹수의 상징은 호랑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 남아있는 불교유적에서는, 호랑이가 아닌 사자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사실 용맹함과 기품을 모두 갖춘 사자는 부처님과 인연이 매우 깊다. 사자는 두려움이 없고 위엄 넘치는 모습으로 부처님을 호위하는 동물이다. 또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소리는 사자후(獅子吼),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는 사자좌(獅子座) 등으로 표현될 만큼 부처님과 사자의 상징적 관계는 긴밀하다. 이러한 상징성은 불탑, 승탑, 석등 등 다양한 불교문화 조형물에서 표현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 연재에서 살펴 본 7세기의 익산 미륵사지나 경주 분황사모전 석탑의 사자상을 비롯해 8세기 중엽에 세워진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은 섬세함을 가진 그 모습 자체로도 눈에 띈다. 그 중 특히 다보탑의 기단 위에 배치된 한 마리의 사자상은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금은 탑의 한가운데 놓여 외로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사자상은, 원래 다보탑 상층기단의 사면 모서리에 각 한 마리씩 총 네 마리가 탑을 지키고 있는 형태로 놓여 있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한 마리가 소실되고 두 마리는 일본으로 반출되는 등, 세 마리가 사라지고 현재 한 마리의 사자상만 남아 탑을 수호하고 있다. 이처럼 다보탑의 사자상은 탑의 바깥에서 사자가 탑을 지키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8세기 중엽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석탑 중엔 사자상을 아예 탑의 부재로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전남 구례의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四獅子石塔) **〈사진1〉**이 바로 그것인데, 높이 5.5m의 이 탑은 사자상의 배치에 있어 다보탑과 큰 차이를 보인다. 화엄사의 사자탑은 2층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리고, 또 그 위에 보주를 놓은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상층기단에 있어, 우주라고 하는 기둥 대신 네 마리의 사자가 놓여 탑의 기둥 역할을 대신 한다는 특이점을 갖고 있다. 단순히 탑의 기단 바깥 면에 배치된 다보탑 사자상의 모습과는 달리, 기단 안쪽에 직접 놓여 탑신을 머리로 받치고 있는 사자들의 모습은 가히 경이롭다. 암수 두 쌍의 이 사자들은 대체 어떠한 이유로 돌의 무게를 온 몸으로 견디며, 이토록 숭고한 위용을 뽐내고 있는 것일까?

이 사자들은 각기 다른 입 모양을 한 채 연화대 위에 앉아 사방을 지키고 있는데, 상층기단에서는 사자상 외에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 그 것은 바로 네 마리 사자들의 중앙에 위치해 사자들과 함께 머리로 탑신을 떠받치고 있는 한 분의 입상이다. 이 입상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따라 정면을 바라보면, 한쪽 무릎을 꿇은 채 공양하는 모습을 한 인물상과 석등이 눈에 띈다. 전해지는 이야기는, 석등 안 인물상이 바로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조사이며, 탑 안의 입상은 연기조사의 어머니라고 한다. 효심이 매우 깊었던 연기조사가 어머니를 비구니의 모습으로 담아 탑 안에 안치하였고, 어머니에게 차를 공양하는 자신의 모습은 석상 안 인물상의 형태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화엄사 내의 각황전 뒤쪽 언덕, 효대(孝臺)에 올라 이 사자탑과 석등을 발견한 사람은,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라 서로 마주 본 연기조사와 그 어머니의 관계를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는 '역시!' 라는 감탄사와 함께 언덕이름이 가진 '효(孝)' 자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볼 것이다. 이처럼 탑의 배경이 된 연기조사 이야기는 참배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준다. 하지만 이 탑의 조형양식이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에만 나타나는 유일한 것은 아니다.

상층기단 위에 네 마리의 사자상과 그 중앙엔 인물상을 봉안하는 이 같이 독특한 형식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조성되어왔다. 화엄사의 또 다른 사자탑인 각황전 앞의 사자탑**〈사진2〉**의 상층기단 역시, 네 마리의 사자가 탑신을 떠받치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이는 9세기 경, 앞서 만들어진 사사자석탑의 영향으로 이 탑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원도 회양군에 위치한 금장암지 사사자삼층석탑**〈사진3〉**은, 고려 초기에 조성되어 현재 북한 국보급문화재 제45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탑은 3.7m 높이로 기단부와 삼층의 탑신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절터에 탑과 석등이 함께 남아있다. 석등 안엔 현재 공양하는 인물상이 존재하진 않지만, 석등이 탑 바로 앞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화엄사의 사사자석탑과 그 형식이 닮아 있다. 탑의 상층기단 모퉁이에서 갑석을 머리로 받치고 있는 네 마리의 사자가

용맹 · 위엄의 상징 사자
불교 조형물 · 상징으로 표현돼 와

사사자 석탑 한국의 독특한 양식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 '대표적'
4마리 사자상 가운데 인물상 봉안
가운데 인물 빈신비구니로 추정
부처님 공양하는 이상적 모습 제시


금장암사사자석탑


제천 빈신사지 사사자석탑.(출처-조선고적도보)


화엄사사사자석탑과 석등공양상. 화엄사 사자탑의 입상이 연기조사 어머니로 둔갑된 것은 조선시대 후기에 효 사상을 강조한 결과로 보이며 실제 입상의 주인공은 빈신비구니로 추정된다.


각황전앞 사사자석탑


홍천 괘석리 사사자석탑


삼천사 사자석탑

힘 있고 늠름하게 다리를 뻗어 앉은 모습 역시 비슷하다. 상층기단 중앙에 인물상이 놓여 있다는 점 또한 유사하다.

충북 제천의 월악산 송계계곡에 위치한 빈신사지 사사자석탑**〈사진4〉**은 고려 현종 13년(1022년)에 조성 되었다. 지대석과 하대석, 그 위에 상하층기단과 탑신부로 구성된 이 탑은 본래 탑신부가 9층이었지만 일부가 소실되어 지금은 4층뿐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하층 기단석의 남쪽 면에 10행 79자로 이루어져, 탑을 조성한 이유를 적은 조탑 연기문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 명문을 해석하면, '고려국의 중주 월악산에 있는 사자빈신사에서 불제자인 동량들은 받든다. 대대로 성왕들이 영원히 만세를 거하고, 천하가 태평하며, 법륜이 이 세계에서 항상 이어지기를 바란다. 영원히 원한이 있는 적을 물리치고, 후에 이 몸이 파사에 나기를 바라며 곧 화장 세계를 알아 정각을 깨닫기를 원한다. 삼가 구층석탑 1기를 조성하여 영원히 공양할 것이다. 대평 2년 4월일 삼가 쓴다.' 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탑의 조성연대와 사찰의 이름 및 양식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이 불탑 역시 상층기단에는 화엄사 사자탑과 같이 기단의 각 귀퉁이에서 탑신을 머리에 이고 있는 네 마리의 사자상이 있다. 이 사자들은 고개가 사방을 향해 있으며, 탑을 수호하기 위해 주변을 경계하는 듯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그 가운데엔 두건을 쓰고 지권인(指卷印)을 한, 좌상 하나가 있다. 이 좌상의 명칭에 대해서는 지권인이라는 수인을 근거로 비로자나불이라고도 하고, 두건을 두른 이유로 지장보살상이라고도 하며, 사자빈신사라는 절의 명칭과 연계하여 빈신비구니라고 주장하는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필자는 이 좌상이 당연 빈신비구니상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빈신비구니는 〈화엄경〉 입법계품에 등장한다. 입법계품은 선재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 해탈에 이르는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구도의 행각을 기록한 내용이다. 이중에 25번째로 찾아가는 선지식이 바로 빈신비구니다. 〈화엄경〉에서 빈신비구니는 선재동자에게 다음과 같이 설한다.

도솔천궁에 계시는 보살에게와 같이, 태에 들어 있고 태에서 탄생하고, 재가자나 출가자나, 도량에 나아가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바른 법륜을 굴리고 열반에 들며, 이러는 중간에 천궁에 있기도 하고, 용궁에 있기도 하고 궁전에 있기도 하는 여래가 계신 곳에서 나는 이렇게 공양하였다. 모든 중생들이 내가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한 줄을 아는 이는 모두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었으며, 어떤 중생이나 나에게 오면 나는 반야바라밀을 말하여 주었느니라… 〈대정장10권. 363P〉

이 경설에 따르면, 빈신비구니가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모습을 모든 중생들이 보기만 하여도 무상정등정각의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때문에 빈신비구니가 공양하는 그 모습을 불탑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석등안의 공양상 역시 선재동자가 예의를 갖추고 설법을 들으며 부처님께 차를 공양하는 모습일 것이다. 이러한 사자탑을 통해 보리심을 일으킨 중생들은 다양한 현실세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부처님께 공양하는 보살의 이상적인 수행 자세를 갖출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필자는 빈신사지사자탑은 물론 화엄사사자탑 입상의 주인공을 빈신비구니라고 본다. 화엄사는 통일신라시대 국가적 불사로 조성된 화엄십찰 중 화엄사상의 종찰로 세워진 곳이다. 때문에 아무리 효심이 뛰어난 연기조사라 하더라도 부처님 사리를 모신 불탑 안에 어머니를 모셨다는 것은 교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화엄사 사자탑의 입상이 연기조사 어머니로 둔갑된 것은, 바로 조선시대 후기에 효 사상을 강조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사자탑은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근본 사상과는 달리 형식과 양식이 경전에 설해진 기준에 못 미치는 아류성 불탑들로 변모되기도 했다.

고려시대에 조성된 홍천 괘석리 사사자석탑**〈사진5〉**이 대표적인데, 이 탑은 본래 홍천군 두촌면 괘석리 절터에 있던 것이지만 1969년에 홍천군청 정원으로 옮겨졌다. 기단 위 네 마리의 사자가 모퉁이에 서서 갑석을 받치고 있으며, 하층 갑석의 원형 안에는 8엽의 연화문이 있어 빈신비구니상을 안치했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하지만 이 탑의 사자상에서는 사자의 위엄을 나타내는 갈기도 찾아볼 수 없으며, 강아지 목에 채웠을 법한 귀여운 방울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사자의 표정 역시 탑을 지키기 위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적인 얼굴로 주변을 경계한다기보다는 친근하고 익살스러운 모습이다.

힘차고 용맹한 사자상이 없는 괘석리 사사자석탑의 모습은, 참배하는 사람에게 미소를 짓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느끼게 한다. 이같은 사자탑은 근래에 들어와 전국 각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 예로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은평구의 삼천사 사자탑**〈사진6〉**을 들 수 있다. 화엄사 사사자석탑의 사자상이 암수 두 쌍으로 이루어져 제각각 다른 입 모양새를 하며 사자후를 상징한 것과 달리, 이 탑의 사자상은 모두 같은 입 모양을 하고 있다. 또 네 마리의 사자상 가운데 2구의 좌상이 등을 맞대고 놓여 있지만, 승상인지 불상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모습을 하고 있는 데서 아쉬움이 남는다.



글 · 우인보
〈불교문화예술학 박사〉

2015(불기2559)학년도 삼학불교 전문강원 학인모집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하는 불자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모 집 안 내

과정	기간	교 육 과 목		강의요일	강의시간	비 고
		1학기	2학기			
치문반	1학년	치문경훈	대승백법명문론	월 · 화요일	오후 6시 ~ 9시	
사집반	2학년	도서, 선요	서장	목 · 금요일	오후 6시 ~ 9시	
사교반	3학년 4학년	금강경오가해, 원각경		2016학년도 개강 예정임		
		대 승 기 신 론, 능엄경				

◆ 모집인원 : ○○명
◆ 개강일시 : 2015년 3월 9일 → 치문반 (1학년)
2015년 3월 12일 → 사집반 (2학년)
◆ 강원수강료 : 1학기당 50만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사진 2매
◆ 접수문의 : ☎ 02) 833-0374, 010-9728-0788
※ 한문이 익숙치 못한 분이라도 낱자를 잡아 강의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상원사에서는 행자를 모집 합니다.

상 원 사 주 지 정산당 법 정
삼학강원 강 주 도 종 (※ 전 태고종 중앙강원 강주) 합장

명 리 학(미래예측학) 모집

木 火 土 金 水

⊙ 흉함을 피하고 "길" 함을 좇는다 ⊙

◎ 모집학과
○ 명리기초반 : 6개월 (목요일 14:00 ~ 17:00)
○ 명리고급반 : 6개월 (금요일 14:00 ~ 17:00)
○ 통변실전반 : 6개월 (개인지도)

◎ 개강일시
○ 기초반 : 3월 12일 14:00 ~ 17:00
○ 고급반 : 3월 13일 14:00 ~ 17:00

◎ 수강료
○ 기초반 : 월 20만원
○ 고급반 : 월 30만원
○ 실전반 : 별 도 상 담

◎ 문의전화
○ 교수직통 : 010-5205-6535
○ 사 무 실 : 02) 833-0374

◎ 강사 : 서전 윤 관 교수
(※ 현 상원사 백상문화원 부원장)

※ 천기누설을 함부로 입에 담지말라

오시는길
①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 1028-4 상원사 관악농협 대림동지점 맞은편
② 지하철 2호선 대림역 8번 출구 / 지하철 7호선 대림역 11번 출구 > 로 나오셔서 문의주세요

화엄의 꽃 절집 천정

〈30〉 범어사 팔상독성나한전

너무나 인간적인 기복의 장엄



왼쪽에서부터 차례로 팔상전, 독성전, 나한전의 세 불전 천정감실에 베푼 조형들이다. 팔상전 감실의 조형이 회화적이고 정물적이라면, 나한전의 천정은 기하적이고 추상적이다.

한 건축에 세 불전 수용한 독특함

범어사 팔상독성나한전(捌相獨聖羅漢殿)은 하나의 전각에 팔상전, 독성전, 나한전의 세 불전이 나란히 이어져 있는, '한 지붕 세 가족' 형태의 독특한 건축이다. 정면 7칸, 측면 1칸의 건축으로 전각을 향하여 섰을 때, 왼쪽부터 차례로 팔상전-3칸, 독성전-1칸, 나한전-3칸의 대칭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 특이한 건축형태는 하나의 전각을 세 불전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독립적인 세 건축을 하나의 불전으로 통합한 희귀한 형태다. 지금의 형태로 중건한 것은 100여년전인 1905년 경이다. 1905년에 학암(鶴庵)스님이 팔상나한독성각을 중건하고 제 성상(聖像)을 새롭게 조성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의 대표적인 관변학자였던 세키노 타다시가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1902년에 전국의 고건축을 조사하고 1904년에 발행한 〈한국건축조사보고〉를 보면 중건 이전의 모습이 개략적으로 묘사 되어있는 바, 팔상전과 나한전은 독립된 건물이고, 두 건물 사이에는 '천태문(天台門)' 이라는 출입문이 있을 뿐이다. 즉 1905년 중건과정에서 천태문이었던 공간을 좌우 건물의 지붕과 벽체를 연결해서 내부공간으로 만들어 독성전을 조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독성전의 아치형 출입구와 力士

2009년 팔상독성나한전 지붕보수과정에서 세 건의 상량문 종이기록이 발견되었다. 상량문에는 공사 인원 21명 중에서 승려는 3명, 18명은 민간장인임을 밝혀 조영역량이 승장중심에서 민간중심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또 여러 장인들이 기교를 다형 문설주와 창호를 내었다고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팔상독성나한전 건물의 외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독성전 아치형 출입구다. 출입구의 반원은 하나의 나무를 둥글게 휘게한 고난도의 기술을 구사했다. 독성전의 독성(獨聖)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연각(緣覺)을 이른다. 독성은 흔히 남인도의 천태산에서 홀로 수행하다 성자가 된 나반존자(那畔尊者)로 알려진다. 그런데 독성전은 산신각처럼 우리나라 불교에서만 나타나는 민간 기복신앙의 사례다. 육당 최남선선생 같은 분은 독성을 단군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팔상전 닫집에 서로 서로가 연기법으로 결합된 방승(方勝), 전보(錢寶), 서각보(犀角寶) 등의 팔보문양이 있고, 독성전에 곽분양 행락도(郭汾陽行樂圖) 민화에 나오는 백자도(百子圖)의 자손번창의 벽화양식이 여러 편 그려져 있으며, 나한전 천정에 문자 길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교 속에 편입된 민간 기복신앙, 곧 한국불교의 독특한 유불선(儒佛仙)의 습합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독성전에서 반원형 출입구와 함께 아치형 바깥 판벽에 풍성하게 초각한 모란꽃 문양과 남녀인물상도 주목을 끈다. 남녀인물상은 모란꽃 화판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있다. 인물 조각상의 크기와 관계없이 이 조형은 건축, 곧 세계이며,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상징에 다름 아니다. 강화도 전등사 대우보전 추녀에 조영한 나부상과 동일한 모티프다. 이같은 조형은 남양주 흥국사 대웅전 추녀, 법주사 팔상전 귀공포 등에서도 나타나고, 경주박물관 소장 석탑상에도 각 면마다 두 명의 인물상이 탑의 지붕을 두 손으로 떠받치고 있는 형상이 보인다. 인물상은 중국 북송의 토목건축책 〈영조법식〉에서 말한 '각신(角神)' 에 다름 아니고, 고구려 벽화고분 삼실총 등에서 신성의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하늘의 역사(力士)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천정 곳곳에 민간 기복신앙 포용

세 불전의 천정은 다양한 주악비천과 공양비천, 가무비천상 벽화들의 커다란 갤러리다. 천상의 소리인 범패와 무용의 작법, 부처님과 아라한의 응공에 환희의 신심으로 올리는 육법공양의 벽화가 파노라마처럼 연속의 띠를 이루고 있다. 바탕에 신성한 붉은 구름이 여름날의 적란운처럼 뭉개뭉개 가득 피어 오르고, 온 몸을 휘감은 천의(天衣) 자락은 우아함과 율동미를 두루 갖춘 채 신명으로 한껏 부풀어 휘날린다. 펄럭이는 천의의 띠 그 자체가 음악이고, 무용이

육당 최남선, 독성을 단군으로 주장
빗반자에 주악, 공양, 가무비천 벽화
가무비천 대단히 무속적이며, 현실적
길상과 수복강녕 기복 담은 문자도



노재학
불교미술사진작가

고, 신명이다. 천의의 의태 속에 펄럭이는 의성어가 이미 충분히 깃들어 있다. 비천의 표정에는 신심이 우러나온 듯 기쁨이 충만하고, 온 몸에 신명의 기운이 분출한다.

주악비천이 갖춘 악기는 삼현육각의 젓대, 해금, 북, 장구는 물론이고, 영산재에 쓰이는 태평소, 나각, 생황, 바라를 비롯해서 농악의 징, 꽹과리, 궁중의식의 박, 운라, 나발에 이르기까지 전통악기의 진열장을 연상케한다. 악기를 연주하는 비천상의 동작엔 힘과 에너지가 일렁이는데, 대단히 힘차고 역동적이다. 커다란 쟁반이나 함 등에 담아 나르는 공양물들도 풍성하고 다양하다. 수박, 석류, 가지, 불수감, 연꽃 등이 공양물로 오른다. 득남과 수복강녕을 바라는 민간 기복신앙의 상징이며 민화적 요소들이다. 특히 부처님의 손 모양으로 생긴 과일인 불수감(佛手柑)은 석류, 복숭아와 함께 민간에서 다남자(多男子), 다복(多福), 다수(多壽)를 상징하는 '삼다(三多)' 의 하나로 귀하게 여긴다. 하지만 조형의 본질은 생명력의 씨방이자, 우주적 모태들이다. 단지 민간과 접촉하면서 철학적 깊이가 대중의 흥미에 부합해 갔을 뿐이다. 대중성을 구하다 보면 철학적 깊이와 근원을 잃게 마련이다. 비천의 형상도 대중 속에서 취했다. 범어사 팔상전 벽화에서 비천의 형상은 인간적인 진솔함을 풍기고, 또 다분히 민중적이어서 이웃처럼 다정하고 친근감이 든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의 변모다. 작법의 춤패 역시 대단히 무속적이며, 현실적이다. 풍속화나 감로탱에 보이는 무당과 사당패를 비천의 조형 모티프로 삼았음을 짐작케 한다. 민간의 기복신앙을 흡수한 한국불교의 독특함과 포용력의 면면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대중성으로 불교의 활로를 개척해나가는 한 시대의 흔적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낭만주의를 넘어선 인상주의의 찰라에 가깝다.

꽃-보주-물고기 원융무애의 법계

각 불전의 천정 가운데는 감실을 마련해 두었다. 닫집이 아닌 감실천정의 형식은 매우 이례적이며 보기 드문 사례다. 팔상전과 나한전의 감실천정은 형식적 특수성과 함께 문양의 내용면에서도 고유성으로 독특하며, 그 소재들이 신선하다. 팔상전의 감실천정은 생명력의 필드(field;場)다. 필드의 내재적 법칙은 대칭성과 순환, 반복의 원리다. 필드는 관계의 통일장이다. 원융무애하여 조화로운 불교 화엄세계를 하나의 대칭적 필드를 통하여 대단히 함축적이며 심미적인 조형세계를 구현했다. 칸 칸 중앙에 연화좌의 불성이 빛나고 있고, 사방에서 붉은 새싹들이 돋아나며, 연꽃의 씨방에서 씨앗 형태의 보주들이 무더기로 분출하는 장면은 조형에 담은 철학적 사유의 근본으로 작동하고 있다.

법계(法界)는 불생불멸 부증불감의 무진연기의 세계임을 강력히 암시한다. 그 세계에서 숱한 꽃이 피고, 숱한 생명이 유영한다. 팔상전 감실천정은 새싹과 꽃과 보주, 물고기 모두가 상즉입하는 화엄의 무진법계 장(場)이다. 현상학적인 형식논리 너머에 조형의 진리를 함장해 놓았다.

나한전 감실천정의 장엄은 길상(吉祥)과 수복강녕(壽福康寧)의 기복을 담은 문자도여서 이채로움을 더한다. 수복강녕이나 쌍 희(囍)자 문자장엄은 경복궁 자경전 등 궁궐에서 통용되는 것이기에 사찰장엄에선 의외의 소재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복신앙을 불교 깊숙이 수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임에 분명하다. 나한전 감실천정은 책 표지 장식 목판인 능화판(菱花板) 문양이나 변상도 목판처럼 굉장히 짜임새 있고 빈틈없는 구도를 갖추었다. 한 가운데는 태양처럼 빛나는 커다란 원 안에 卍자를 오방불 구도로 배치하여 금강계 만다라의 오방불을 고도로 압축해 놓았다. 원의 중심은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이시다. 법신불로부터 팔방으로 진리와 자비의 붉은 빛이 퍼져나가는데, 법신의 빛을 꽃이 피어나는 생명력으로 아름답게 묘사해서 인상 깊다. 동심원의 물결처럼 팔방으로 퍼져나가는 파동이 돈오점수의 한 과정을 보는 듯 하고, 파장의 끝엔 마침내 붉은 꽃 한 송이로 만개하는 기승전결의 극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신묘하기 그지없다. 그 칸칸에 목숨 '수(壽)' 자를 빨강, 청색, 초록, 주황색으로 번갈아 베풀어 수복강녕과 장수의 복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천정은 통도사 해장보각 천정에서나 드물게 찾아볼 수 있다. 명멸해가는 봉건왕조의 퇴락 속에서 불교부흥의 유일한 활로로서 대중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대중의 기복욕구를 포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어쩌면 시대적 숙명이였을 것이다. 시대의 개방적 흐름과 함께 대중 속으로 '아제 아제 바라아제' 를 합송하며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한국불교의 도도한 흐름을 장엄의 편린 속에서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빗반자 천정에 베푼 주악비천벽화.



팔상전 닫집에 베푼 팔보문양과 평면 우물천정의 삼태극연화문, 그리고 대들보 머리초로 입힌 드문 사례의 불수감 머리초다. 나머지는 감실천정의 세부다.



독성전 출입구에 새긴 남녀인물상. 우주법계를 떠받치고 있는 力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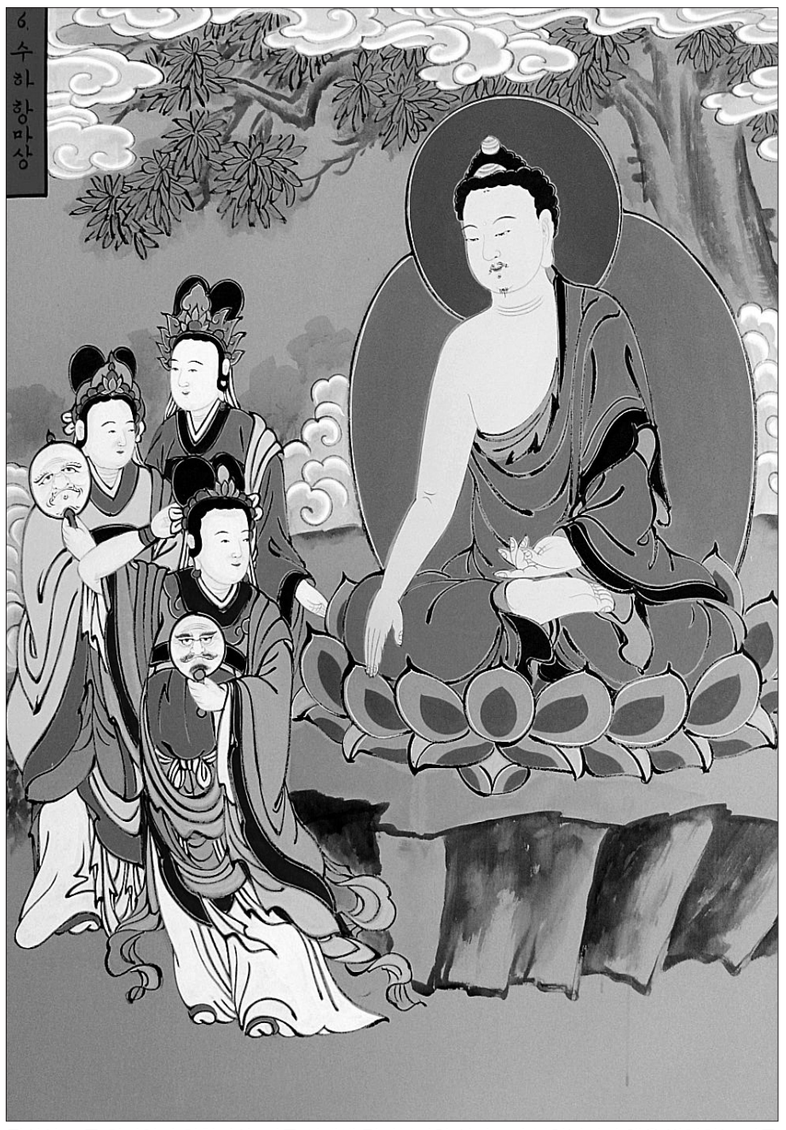
팔상독성나한전 전경. 한 건축에 세 불전을 경영한 독특한 건축이다.



모든 고통은 '갈애'에서 나온다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9. 인간의 욕망에 관해서 ㊦



팔상성도 중 하나인 수하항마상. 나무 아래에 결가부좌한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행을 방해하는 마군들의 온갖 유혹과 위협을 물리치고 그들로 부터 항복을 받아내는 장면들이 주로 묘사된다. 부처님은 욕망에 있어 탐욕과 갈애와 같은 감정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설파했다.

욕망의 두려움을 강조하는 뜻

욕망 그 자체에 대한 붓다의 사유방식은,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것이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한번 경전을 펴며 붓다의 수많은 교법을 읽을 때, 거기에서 우리들은, 이러한 이해와는 전혀 다른 인상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서 붓다는 여러 가지 강조(强調)와 비유로써 도처에서 욕망의 무서움을 말하며 이욕을 권유하고 있다.

아마 세계의 모든 사상가(思想家)나 종교가(宗敎家) 가운데서 이 분처럼 욕망의 무서움을 강조한 사람은 없으리라.

욕망의 무서움은 어떤 때는 사나운 홍수(洪水)에 비유해서 설명되어 있다. 애욕(愛慾)에 취하여 쾌락에 온 몸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분류(奔流)에 휩쓸리고 말 것이다. 그러한 설명을 우리들은 붓다 교법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욕망의 무서움은 또 자주 맹화(猛火)에 의해서 비유되기도 한다. 탐욕(貪慾)을 품으며 그 무서움을 모르는 자는 바람을 향해서 횃불을 들고 있는 것에 비할 수 있으며 만일 빨리 버리지 않는다면 사나운 불은 곧 그의 온 몸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이러한 설명 방법으로, 탐욕의 무서움과, 이욕(利慾)의 권유를 강조한 일도 있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강조와 비유로써 이야기한 욕망의 무서움과 이욕의 권유는 붓다 제자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새겼을 것이 틀림없다. 오늘날 경전을 펴며 남겨주신 가르침에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들도, 역시 이러한 강조와 비유에서 강한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서 붓다의 가르침은 욕망을 일방적으로 부정한다는 막연한 인상이 생겨나기 쉽다. 이런 것은 오늘날 불교에 뜻을 두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끔 실수(失手)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나는 우려한다. 혹은 또 이런 것이 불교와 근대인(近代人)의 의식 사이에 쓸데없는 틈을 만들게 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이다.

유럽의 사상사(思想史)를 읽는 사람은, 인간의 욕망에 관한 이해가 고대(古代)와 중세(中世)와 근대(近代)에 있어서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것이다. 고대와 중세는 그 정도가 다르지만, 그러나 인간의 욕망에 관해서 부정적이었음은 한결같다. 그것과는 달리 근대는 매우 분명하게 인간의 욕망에 관해서 긍정적이다. 근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인간의 욕망에 큰 뜻을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벌써 사탄(악마)의 짓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순히 이것을 억누른다는 일이 좋은 인생의 실현의 길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영위(營爲)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모두 그 뿌리는 이 욕망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다. 아마 근대의 욕망관은 그 방종(放縱) 때문에 당연히 비난 받아야겠지만, 이러한 인간 욕망의 뜻의 발견에 있어서 중세, 고대의 그것에 비할 수 없는 큰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붓다의 욕망관이 일방적으로 부정하며 억누름으로써 욕망을 억제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그러한 것에 있어서 실수하는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런 점에 있어서의 불교와 우리들 사이에 의식의 틈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또 다시 주의 깊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욕망관을 살펴보면 부처님의 소설(所說)의 이점에 있어서도 우리들을 실수하게 하며 우리들을 실망(失望)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그가 설명하는 것은 그 방종(放縱) 때문에 비난받게 되는 근대의 욕망관을 정정(訂正)할 수 있는 원리 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욕망에 관한 술어(術語)

그러면 우리들은 다시, 주의 깊게 붓다의 욕망관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욕망의 무서움을 설명할 때, 붓다는 대개 욕망 그 자체를 표현하는 말이 아닌 욕망의 여러 가지 작용을 표현하는 말을 쓰고 있다. 우리들은 먼저 그 신중한 용어법의 깊은 뜻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제이 및 제삼의 '성스러운 명제'에서 욕망의 문제에 언급할 때에도 석존은 신중하게도 '갈애(tanha)'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갈애'란 앞에서 말하였듯이 갈(渴, 목마름)그 자체를 지적하는 말로써 욕망(애)의 사나운 작용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이 고(苦)의 인생이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목마른 자가 심히 물을 구하듯이 사납게 작용하는 욕망의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고(苦)의 인생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러한 욕망의 작용을 남김없이 멸하는데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붓다의 주의 깊은 설명 방식을 우리들은 눈여겨보아야 한다.

또 예를 들면 '탐욕(raga)'의 경우도 그러하다. 이 용어는 원래 '적(赤)' 혹은 '연소(燃燒)'를 뜻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며 불꽃에 비할 수 있는 욕망의 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한역(漢譯)이 이것을 '탐(貪)내는 욕(慾)'이라고 하였을 때, 그 원래 갖춘 뜻의 감각은 없어졌지만 그것도 또 욕망 그 자체는 아니며 욕망의 사나운 작용을 표현하는 데는 성공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붓다가 끝까지 욕망 그 자체는 무기(無記), 그 악한 작용이야 말로 이 고(苦)의 인생의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하였음을 명백하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경전 속의 붓다 교법이 가끔 '소욕'이 칭찬되며, 지족(知足)이 강조될 이유가 있겠는가. 우리들은 여기에서도 또 붓다가 욕망 그 자체는 어디에서나 무기(無記)이며 도(度)를 지나친 작용이 악한 인생을 생겨나게 한다라고 생각하였든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붓다는 어찌하여 이렇게 욕망의 무서움을 설명하는 것에만 급급(急急)하였을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중도(中道)라는 그 분의 가르침으로 설명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중도(中道)의 '중(中)'이란 것은 수학적(數學的)인 중(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붓다는 설명하셨다.

욕망의 작용은 먼저 그 도(度)가 너무 지나침을 엄격하게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욕망하는 것이 너무 적은 측면은 별로 경계할 필요가 없다. 무서운 것은 폭류 같은 애욕(愛慾) 맹화(猛火)같은 탐욕(貪慾),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 같은 갈애(渴愛)이다. 그렇다면 붓다가 전적으로 애욕의 무서움을 설명하며 탐욕의 무서움을 말하며 갈애야말로 이 고(苦)의 인생의 원인이다라고 설법한 것의 뜻도 또한 분명하게 이해되는 것이다.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욕망관은 한편에서는 금욕고행을 칭찬하였든 고대(古代)의 욕망관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다. 그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방종(放縱)으로 흘러버린 근대(近代)의 욕망관에 대해서도 또한 하나의 정정(訂正)의 원리를 품고 있는 것이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佛法에 천지조화 이치가 있나

문 그대의 말과 같이 부처님의 본체는 태극(太極)이고, 작용은 건곤(乾坤)이므로 운동변화가 천지와 함께 유행한다 함은 알겠다. 그렇다면 천지조화의 오묘한 내용이 하도(河圖)와 낙서(落書)보다 자세함이 없는데 부처님은 미쳐 의논하지 않으심은 무엇 때문인가.

답 하도 · 낙서의 내용을 부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심이 극진하나 사람이 스스로 살피지 못하니 비유하면 마치 눈이 먼 자가 해의 밝음을 알지 못함과 같다.

부처님이 나타내 보이심이 반드시 삼신(三神)을 갖추시는데, 삼신이란 것은 법신(法身) · 보신(報身) · 화신(化身)이다.

법신의 수인(手印)을 맺으심이 좌 · 우를 합하여 한 주먹으로 하심은 그 체를 보이심인데, 주역(周易)의 무극(無極)으로부터 태극이라 함이 이것이다. 무극이란 것은 담적허명(湛寂虛名)하여 십허(十虛)를 포괄함으로 말함이고, 무극의 중앙을 다하여 영묘(靈妙)함이 발동하려 함이 태극인데, 태극이란 것은 묘명(妙明)을 함축하여 육합(六合)에 충만하게 가득찬 것을 말한다.

유자(儒者)는 외물(外物)을 관찰하지만 부처님은 곧 자기 몸에 총괄하시고, 유자는 외부를 전공하지만 부처님은 곧 내부를 밝히시는데, 이것이 유자와 부처님이 되는 까닭이다.

하도 · 낙서를 불서(佛書)에 실지 않은 것과 같은 곧 천축(天竺)에 항상 외전(外典)의 가르침이 행하여 마침내 이미 진부하게 쓰고 남은 찌꺼기가 되었기 때문이니, 여래께서 무엇 때문에 답습하여 이끌어 "오행의 연기(緣起)를 다 스스로 분석한다"하시니, 다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부처님의 지견은 광대하고 심원(深遠) 하시어 불안(佛眼)으로 보는 바는 밝게 항하사(恒河沙) 세계(世界)를 다했는데 유독 하도 · 낙서만 살피지 못하셨겠는가.

〈화엄경(華嚴經)〉에는 다지바라문이 감로화왕(甘露火王)의 내외덕상(內外德相)을 찬탄하되 중국에서 점을 치는데 사용했던 원구(元龜=큰 거북)를 인용하였는데, 그렇다면 천축에서 이 법을 사용한 지가 또한 이미 오래되었음을 알 것이다.

또한 천축은 세계의 중심으로 모든 교법(敎法)이 다 그 가운데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주겁(住劫)의 시초에 오지(五地) · 육지(六地) · 칠지(七地)보살이 본원력(本願力)을 받들어 세간에 시현(示現)하여 임금이 되고, 신하가 되고 구류학파(九流學派)가 되고, 백공(百工)이 되어 널리 세간의 갖가지 법을 일으키고 세계를 장엄하여 중생을 열어 인도하였는데 일체 전적(典籍)을 다 닦지 않음이 없어, 그 책의 다름이 육십사종(六十四種)에 이르니, 어찌 홀로 하도 · 낙서만 그 가운데 없었겠는가.

〈유마경(維摩經)〉에 말씀하신 바 "경서주금술(經書呪禁術)과 공교(工巧)한 모든 기예가 다 나타나 이 일을 행하여 모든 중생을 넉넉하고 이익되게 한다"함이 이것이다.

유자는 이로써 불교를 이기기를 구하니 황하(黃河)의 수신(水神)인 하백(河伯)이 스스로 자기가 처해 있는 물이 제일이라 뽐내고 다시 큰 바다가 있음을 알지 못함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 문자를 지칭하여 범서(梵書)라고 말하는 것은 세계가 처음 이루어졌을 때에 텅 비어 인 · 물(人 · 物)이 없었는데, 광음천인(光音天人)이 과보가 다해 하래(下來)하였다. 몸에는 광명이 있었고 발은 구름을 밟는 것 같았는데 지상(地上)의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그 몸이 견고하고 무거워져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아 세간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저 하늘의 언어문자를 가지고 세간에 유포하였으므로 범서라 호칭했으니, 그렇다면 그 문자와 인 · 물이 함께 나왔으므로 중국에서 결승문자(結繩文字)로써 정치를 한 것과는 같지 않은 것이다.

동하(東夏=中國)에서 말하는 성인이라는 자도 또한 다 대권(大權)보살의 시현(示現)이다.

〈공적소문경(空寂所問經)〉에는 말하였다.

"가섭을 저쪽에서는 노담(老聃=老子)이라 칭하고, 유동(儒童)을 공구(孔丘=孔子)라 칭한다."

그렇다면 그 법이 천축에서 시작되어 이 땅에 동점(東漸, 세력을 동쪽으로 옮김)한 것이 분명하다.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부처님 지견은 광대하고 심원해 항하사 세계를 모두 밝히신다

디자인 등록원

장인이 만든 명품 청동 촛대세트

현 불 샵 단독입점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21㎝ (中) 41㎝×21㎝ (小) 35㎝×21㎝
	거북이	(中) 41㎝×21㎝ (小) 35㎝×21㎝
향로	거북 용두	(大) 28.5㎝×34㎝ (中) Ⓐ 21.5㎝×29㎝ (中) Ⓑ 18.5㎝×23㎝ (小) 15.5㎝×18㎝
다기	다 기	(大) 26㎝×20㎝ (中) Ⓐ 22㎝×14㎝ (中) Ⓑ 20㎝×13㎝ (小) 17㎝×12㎝
향통	원 형	(大) 15.5㎝×7.5㎝ (小) 11.7㎝×5㎝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세상 모든 것은 이미 부처,

무비 스님 (범어사 한주,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무비 스님은 … 1943년 경북 영덕에서 태어나 1958년 범어사에서 출가했고 1977년 당시 대강백으로 꼽힌 탄허 스님에게서 화엄경의 법을 전수받아 그 강맥(講脈)을 잇고 있다. 통도사 강주, 범어사 강주,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장, 동국역경원장을 지냈다. 현재는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봄이 왔는지 매화향이 범어사 담 아래 그득하다. 신라 의상대사가 화엄 사상을 펼치기 위해 창건한 부산 범어사. 이곳에는 〈화엄경〉의 대가 탄허 스님의 강맥을 이은 조계종 대강백(大講伯) 무비 스님이 주석하고 있다.

〈화엄경〉을 통해 ‘사람이 곧 부처’ 라는 인불(人佛) 사상을 펼쳐온 무비 스님은 한국불교 사상 처음으로 화엄경 80권 전체를 해설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매일 10시간 이상 밤낮 없는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사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은 무비 스님의 평생 원력이다. 스님은 2004년부터 인터넷카페 ‘염화실(cafe.daum.net/yumhwasil)’ 을 운영해 누구나 무비 스님의 인터넷 법문과 동영상뿐 아니라 다양한 불교자료를 퍼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0년 3월부터 부산 문수선원에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마다 경전연구모임인 문수경전연구회가 주관하는 화엄산림대법회의 법사를 맡아 화엄경 강의를 이끌어오고 있다. 강의마다 전국 각지에서 스님 200여 명이 범어사로 집결할 정도로 인기가 뜨겁다.

“경전 공부는 내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무비 스님은 시작과 끝이 변함이 없도록 법공양 전법을 평생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불교 대표하는 강백

무비 스님은 “돌이켜 보니 출가 전부터 경전과 인연이 깊었던 것 같다”고 했다.

스님이 14세가 됐을 즈음이었다. 스님이 살던 경상북도 영덕읍 남산동 이웃마을에 불국사 말사였던 덕흥사가 있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가본 절에서 또래의 동자 스님을 만났다. 그때 동자 스님의 한마디가 무비 스님을 출가로 이끌었다.

“삼일수심(三日修心)은 천재보(千載寶)요, 백년탐물(百年貪物)은 일조진(一朝塵)이다.”

삼일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백년 탐한 재물은 하루 아침의 티끌(먼지)이라는 뜻이다.

듣는 순간 마음에 와 닿은 무비 스님은 바로 출가를 결심했다.

“경전 한 구절을 듣고 발심 출가한 일, 취학 전 서당을 다니면서 한문 공부를 익힌 것, 그리고 출가 후 제방의 내로라하는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며 경전 공부했던 것을 돌아보면 경전과 제 인연이 보통 깊은 게 아니구나 싶습니다.”

17세가 되던 1960년, 무비 스님은 정식으로 출가해 법랍 58년이 된 지금까지 통도사 · 범어사 강주, 조계종 승가대학장, 조계종 교육원장, 동국역경원장 등을 거치며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대강백으로 사부대중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집필 · 인터넷강의로 전법활동 활발

스님은 대만 성엄 스님의 〈108 자재어〉를 건넸다. 작년에만 이 책을 4만권 나눠줬다고 한다. 뿐만 아니다. 염화실 월간지 및 여러 경전들을 나눠준 양은 10만권이 넘는다. 그동안 스님이 직접 집필한 책들은 모아서 세어보기가 어려울 정도다. 스님의 전법활동은 책에서 멈추지 않는다.

스님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 ‘염화실’ 은 회원만 2만 명에 달한다. 카페에 있는 불교 교리나 경전 내용을 읽는데도 몇 년이 걸릴 듯 했다.

무비 스님의 집필활동과 염화실 카페운영을 통한 전법은 2003년 건강 악화를 겪고 나서부터 시작됐다. 척추농양으로 큰 수술을 받은 후 하반신이 마비되는 생사의 고비를 넘긴 스님은 남은 삶은 덤이라 생각하고 살기로 했다. 거듭되는 혼절 속에 죽음을 보고 삶의 참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수술 1년 후, 스님에게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하나 ‘전법’ 뿐이었다. 움직일 수도 없고 외출은 더욱 불가능한 순간 스님이 선택한 것은 인터넷이었다. 컴퓨터를 배우고 방송하는 법을 익히고 녹음하고 새로운 장비와 기술을 익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법을 전하기 위해 못할 일은 없었다. 하루 접속자만 천명이 넘으며 전문 자료를 위해 도서관이 아닌 염화실을 찾는 이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경전구절 한마디에 출가 결심
‘전법’ 평생 원력으로 삼고
염화실 · 강의로 ‘인불사상’ 강조

“좋은 것은 많이 나눌 수록 좋아”
법공양 저작권 없애기 운동도 진행

화엄경 강설 80권 집필 원력 세워
완간 목표로 매일 10시간 집필 몰두
“법공양이야말로 사람을 위한 길”

염화실은 경전의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카페에는 모두 120여개의 메뉴가 구성돼 있을 만큼 많은 경전을 다양한 각도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놓고 있다. 염화실에 들어가면 항상 20~30명의 회원들이 공부하고 있을 정도로 열의가 높다.

〈화엄경〉 〈능엄경〉 〈법화경〉 〈금강경〉 〈천수경〉 〈유마경〉 〈육조단경〉 등 각종 경전에 대한 무비 스님의 강의는 물론 범어사 강사인 용학 스님의 〈대승기신론〉 등 여러 스님들의 경전 강의도 들을 수 있다.

게다가 일타 스님의 〈발심장〉, 고우 스님의 〈선요〉, 통광 스님의 〈선교결〉, 월암 스님의 〈간화정로〉 등 내로라하는 스님들의 강의도 올라와 있고, 〈임제록〉 〈신심명〉 〈증도가〉 등도 상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염화실 방송국 코너에서 〈금강경〉 〈대승찬〉 〈법화경〉 등 그동안 무비 스님이 했던 인터넷 강의 내용이 법문 · 녹취 · 자료 형태로 올라와 있다. 도반들의 광장 코너에는 염불과 독경 등 기초교리 외에 한문과 컴퓨터를 공부할 수 있는 메뉴와 회원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마련돼 있다.

무비 스님은 “아프고 나서 염화실을 운영하면서 나 스스로 많은 것을 얻었다”며 “염화실은 내 공부의 장이기도 하고, 내가 이해한 불교를 내 방식으로 표현해보면 얼마나 먹혀드는가를 알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요즘은 숨어서 알뜰히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 정말 보람 있고 기쁘다”고 말했다.

법공양위한 저작권 없애기 운동 펼쳐

무비 스님은 현재 거동은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아프다고 했다. 추운 날에는 무릎과 발 끝에 찌릿하는 통증 때문에 걷기도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스님에게 육신의 고통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플 수록 더 집중 합니다. 책을 보고 더 공부합니다. 없어질 몸 아껴서 뭐 할 겁니까?”

스님은 공부하고 강의하면 아픈 것도 잊는다고 했다. 진통제가 따로 없다. 공부가 약이었다. 잠시라도 잠에 들면 시간이 아깝다고 했다. 손에서 책을 놓는 법도 없다.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 그리고 경전 집필을 위한 시간 말고는 두문불출했다.

하지만 시간을 아끼며 공부와 집필만 하는 중에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한 없이 자리를 내준다.

문수선원에서 사경을 마친 노보살들이 찾아와 무비 스님께 삼배를 올리며 그동안 정성껏 적은 사경책을 보이자, 함박웃음 가득한 얼굴로 칭찬하며 적은 내용에 대해 꼼꼼히 살피는 스님의 모습은 다정함과 따뜻함 그 자체였다.

“저에겐 큰 보람입니다. 불자들이 사경을 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데 칭찬을 아껴 뭐하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을 따라 적고 공부하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이며 법을 듣고 보는 것이 기적이지요.”

이런 보람 때문에 무비 스님은 공부를 한다고 했다. 더 많은 불자들에게 진리의 가르침을 나눠 주기 위한 것 외에는 없었다.

그런 까닭에 스님은 ‘법공양을 위한 저작권 없애기 운동’ 을 펼친다고 했다.

“법공양을 위한 저작권 없애기 운동 중인데 혼자서는 참 어렵습니다. 성엄 스님의 〈108 자재어〉는 대만을 찾아오는 한국인 교화를 위해 만든 것인데, 읽어보니 내용이 너무 좋은 겁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나눠 주고 싶은데 판권에 걸릴까 혹시나 싶어 찾아봤죠. 근데 판권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를 해서 나눠줬습니다.”

스님이 건네주었던 〈108 자재어〉의 책 원본 뒷면, 그리고 스님이 복사해 나눠 준 책과 스님의 집필 본에도 ‘이 책의 복사를 환영합니다. 널리 법공양하면 공덕이 무량합니다’ 라고 적혀있었다.

“법공양에 판권이 무슨 말입니까. 좋은 것은 나눠야 합니다. 복사를 많이 해서 널리 알리도록 해야죠. 판권 소유라는 말은 법공양에는 없어야 합니다.”

대중의 눈높이 맞춘 〈화엄경 강설〉 집필중

이렇게 스님이 법공양을 통해 전법 하는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라고 했다. 사람이 부처이기 때문이다. ‘인불(人佛)사상’ , 무비 스님이 염화실과 문수선원 강의를 통해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사람이 부처다’ 라는 말 한마디에 삶이 바뀐 사람도 있다. 한 불자는 4년 전 아기를 낳고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로 우울증에 시달렸다. 문수선원을 찾아 사경도 하고 강의도 들었다. 그런데 우울증이 낫기

보련기획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다량 주문시 할인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불교용품 전문회사

| 초파일 용품 |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중

| 연등 자동 승강 장치 |





| 인등시공 |





만 월 등



공 단 등

황 금 등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BORYEON
H·P 010-9446-1862
TEL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인불사상’ 알리기 평생 원력”



무비 스님은 월정사 탄허 스님으로부터 화엄경을 배워 그 강맥(講脈)을 잇고 있다. 1977년월정사에서 열린 탄허 스님의 화엄법회에 참가한 무비 스님과 제자들.


달라이라마를 친견한 무비 스님(사진 가운데).


무비 스님은 2004년부터 인터넷 카페 ‘염화실’을 운영하며 인터넷 경전 강의를 해왔다.



무비 스님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마다 경전연구모임인 문수경전연구회가 주관하는 화엄산림대법회의 법사를 맡아 화엄경 강의를 이끌어오고 있다.

도 전에 둘째가 생긴 걸 알았다. 죽고 싶었다. 원하지 않았던 아기였기에 고민이 많았다. 그때 무비 스님의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말에 그 불자는 뱃 속의 아이도 부처님이란 걸 깨닫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스님의 법문을 듣고 태교를 했다.

현재 무비 스님은 〈대방광불화엄경 강설〉을 집필중이다. 〈화엄경〉 강설을 책으로 자세히 내는 것은 한국 최초의 일이다. 그동안 아무도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화엄경〉은 너무나 방대하다고 했다. 80권 목표에 현재 18권이 출간 됐으며 스님은 38권의 원고를 마무리 했다. 80권 완결 후 ‘보현행원품’은 따로 추가 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살행을 설명하는 보현행원품이 〈화엄경〉의 결론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살행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스님의 전법 원력은 현재 집필 중인 〈대방광불화엄경 강설〉 책에도 세세히 드러난다. 한글을 알면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쉽게 적었다고 했다. 책의 크기도 한손에 들어올 정도로 작고 가볍다. 언제 어디서든 가방에 넣어 다니며 편하게 읽도록 한 스님의 배려다. 책 마지막에는 〈화엄경〉 구성표가 있어 정리도 가능하다.

“이 책의 특징은 누구든지 한글만 알면 도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번역도 다 해놓고 한자음도 다 달았습니다. 설명도 하나하나 해뒀구요.”

책 집필 기간을 10년이라 들었다 묻자, 스님이 껄껄 웃었다.

“10이란 수는 완전한 수입니다. 1년도 10년이고 100년도 10년, 12개도 9개도 10이라 합니다. 다 십년인데 한 해 한해가 다 십년인 것을…오온을 초월한 세계에서는 그러한데 10년이란 그 의미를 정말 10년이라 받아들였던 겁니까?”

〈화엄경〉의 ‘이십표무진본(以十表無盡本)’, 10이라는 숫자는 다함이 없는 근본, 우주의 조화법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그 내용이 떠올랐다.

법공양 활동 위한 단체 만들기 발원

화엄경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었다. 스님은 보살행이라고 했다. 한국 불교의 치료는 보살행 실천만이 답이라 했다.

무비 스님은 현재 한국의 불교에 대해서도 보살행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대승불교라 할 수 없다는 일침도 가했다.

“소승선사(小乘禪師)라는 말을 아십니까? 자신의 해탈에 빠져 안위함과 편안함에 중생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소승 선사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2000여명의 스님들이 결제 중입니다. 결제가 끝나면 스님들은 육환장(六環杖) 짚고 다니며 육바라밀을 행해야 합니다. 중생들에게 회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불교의 스님 중에서는 실천을 하는 스님을 만나 보질 못한 거 같습니다. 99%가 내가 보기엔 소승선사, 소승 아라한입니다.”

무비 스님은 보살행에 대해 말을 이어갔다.

“살아 있는 관세음보살이라 불리는 대만 자제 공덕회 증엄 스님을 보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 모습이 대승불교의 모습입니다. 테레사 수녀도 보살이며 이태석 신부 같은 분이 보살입니다. 중생이 아프면 가서 치료하고 중생이 배고프면 자신이 굶어도 먹을 것을 줘야 합니다. 보살은 그렇습니다. 불자들은 착각 합니다. 보살이 부처가 되기 전의 단계라고 말입니다. 보살은 부처의 경지를 이미 졸업 한지 오래입니다. 보살이 이 세상에 있는 건 중생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지장보살이 문수보살이 부처님이 되려 하셨습니까? 보살행은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이태석 신부와 테레사 수녀는 불교가 아니라는 기자의 말에 스님은 반문했다.

“그럼 무엇이 불교입니까? 중생이 아파도 수행하고 앉아 있으면 그게 불교입니까? 불교가 무엇입니까?”

무비 스님의 불교는 이미 절 안에 있지 않았다. 중생과 함께 하고 그 가운데서 보살행을 실천 하는 것이 불교라 했다. 한국불교를 위한 치료약은 ‘보살행’ 이라고 했다.

스님은 앞으로 법공양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는 단체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오는 부처님 오신날 즈음부터 35년간 인연을 이어온 모임과 함께 할 계획이다. 법공양을 최우선 활동으로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을 비롯해 무비 스님에게 배운 제자들이 참여한다. 또한 아픈 사람들을 위해 치료비도 지원하고 불교를 빛낸 이들을 칭찬하고 포상도 할 계획이다.

“대승적 차원으로 하는 법공양이 목표입니다. 샘처럼 마르지 않는 부처님의 진리를 담는 일인데 대승적이어야죠. 부처님은 법공양이 그 어떤 공양보다 수승하다고 하셨습니다. 복지도 중요하지만 아프고 병들고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오로지 부처님 법이거든요. 법공양이야말로 불교적인 복지이며 사람을 위한 길입니다. 이 말에 지금까지 뒤돌아 본적 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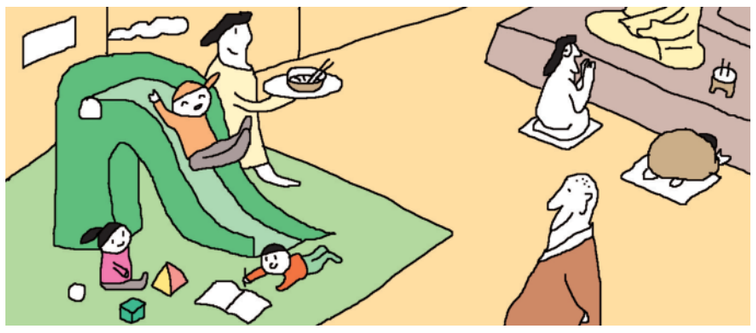
부산=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전법일기

불자들에게 감동을 주자

도시에 개원한 포교당 가운데에는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진 대형 포교당도 있지만 상당수의 포교당은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 많다. 불자들이 잘 알려진 대형 포교당에 많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포교당에서는 기도나 신행활동보다 사주를 봐주거나 제사에만 의지해서 포교당을 운영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세간에는 손님이 북적이는 식당이 있는가하면 파리만 날리는 식당이 있기도 하다. 손님이 북적이는 식당들은 그렇지 않은 식당에 비해 많은 차이가 있다. 대형 체인이 운영하는 식당도 있고, 인테리어가 잘 되어있는 식당도 있다. 때로는 언론에 소개된 유명한 요리사로 인해 소문이 난 곳도 있다. 하지만 꼭 대형체인이 운영하고 인테리어와 훌륭한 요리사만 있다고 다 손님이 북적이는 것은 아니다. 작은 규모와 소박한 인테리어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요리사만으로도 손님이 북적이는 식당은 다른 특징이 있다. 바로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해서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것이다.


그림 · 박구원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해서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식당은 손님이 붐비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식재료를 사용하게 되어 선순환이 계속된다. 반면 손님이 들지 않는 식당은 구입한 식재료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신선하지 않은 식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음식에 정성은 커녕 맛까지 형편없게 되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물론 포교당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오는 불자는 없다. 이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형 포교당이 많이 있지만 소규모 포교당에도 도심지 불자들에게 맞는 신선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기존의 불공과 제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교리를 쉽게 강의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경전독송, 다라니기도, 삼천배 기도 등 다양한 수행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명사들을 초청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찬불가교실이나 꽃꽂이, 바느질, 단청그리기 등 문화프로그램도 많은 불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광주에도 한 때 광주불교를 대표하던 관음사가 있다. 전국 사찰가운데 최초의 어린이집이 만들어지고 많은 포교사를 배출한 불교대학도 있었지만 안타깝게 한 스님이 16년간이나 방만하게 운영한 탓으로 지금은 어린이집과 불교대학이 모두 사라지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현 백양사 포교국장 스님이 새롭게 주지로 부임하여 불교대학을 다시 개강하고 새로운 기도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그리고 명상치유 프로그램등을 통해 관음사를 탈바꿈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불상을 모시고 목탁만 두드려서 시주물을 얻는 것은 진정한 포교라고 할 수 없다. 이미 종단의 포교원에서도 한글법요집 발간과 다양한 법문자료배포를 통해 포교일선에 있는 스님들을 지원하고 있다. 모든 스님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다 운영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 음식만으로도 손님이 북적이는 식당이 있듯이 특징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불자들은 반드시 그에 감응할 것이다. 도시에는 나보다 더 뛰어난 역량으로 포교일선에서 활약하시는 스님들이 많이 계신다. 작은 포교당을 어렵게 운영하는 스님들은 그 스님들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스님들께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도 배워야 한다. 불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포교만이 불자들의 발걸음을 부처님 앞에 한 발 다가설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수안 스님 (前 백양사 포교국장)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웅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스틸한옥의 장 점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만성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고추구 12E 3구 인지구 26E 4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불교 가르침, 편견과 권위 낮추는 데 일조”

심리학자 크로버트, 연구조사서 발표


다른 종교와는 달리 불교는 개개인의 삶 속에 편견을 없애고 관용의 뿌리를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종교적 신념이 개인의 삶을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Pacific Standard〉지는 2월 19일 심리학자 메갈리 크로버트(Magali Clobert · 스탠포드대) 박사의 연구 결과에 주목, “특정 종교가 한 사회를 통째로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다른 종교와는 달리 불교는 개개인의 삶 속에 편견을 없애고 관용의 뿌리를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도해 주목된다.

크로버트 박사의 연구는 ‘종교는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나쁜 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 라는 다소 엉뚱한 질문을 계기로 설계됐다. 이는 기존의 종교 관련 연구 대부분 ‘종교는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준다’ 라는 긍정적인 결과만을 내놓고 있지만, 그와는 달리 사회 곳곳에서 종교적 편견으로 인한 사건 ·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데 주목한 까닭이다.

〈Pacific Standard〉지에 따르면, 크로버트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를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에 게재하고, “불교적 가르침이 개인의 판단 기준에 투영될 때,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는 편견을 낮추고, 마음을 여는 관용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우선 인종과 국적을 떠나 238명의 참여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 이들에게 ‘불법’ ‘경전’ ‘사랑’ ‘성경’ 등과 같은 종교 용어를 10개, ‘자유’ ‘꽃’ 등 종교와 관련 없는 용어 10개 등 20개의 용어를 주고, 편견과 권위의 뜻을 함유하고 있는 단어의 풀이와 해법을 서술하도록 진행했다.

인종 · 국적 떠나 238명 대상 실시
종교 관련 · 비관련 용어 해석 실험
불교적 관점서 풀이한 참여자 52%
“불교는 종교성 떠나 관용 심어줘”

“이번 연구의 참여자 중 불교도는 8.5%, 기독교도는 22%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회교도, 민속신앙인, 무신론자 등이었다”는 크로버트 박사는 “대부분 자신에게 친숙한 종교 용어를 사용해 풀이와 해법에 응답했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풀이와 해법을 제시한 실험 참여자는 52%를 웃돌고 있다”며 “이는 불교적 사유가 편견과 권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험에 앞서 참여 대상자 238명에 대한 개개인의 편견과 권위에 대한 계량적인 조사를 실시했다”는 크로버트 박사는 “이 결과 8.5%에 달하는 불교도 참여 대상자들이 다른 참여 대상자와 비교해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이번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불교적 가르침이 일반인 보다는 권위주의적이고 편견에 치우친 실험 대상자들에게 두드러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Pacific Standard〉 지는 “크로버트 박사의 연구 결과, 불교는 나와 타인의 관계에서 서로의 모순된 감정을 이완시키고 감정이나 사상의 벽을 낮추는 한편 서로의 소통을 유도하는데 탁월한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불교적 가르침은 종교성을 떠나 개개인에게 ‘관용’과 ‘사심 없는 행동’이라는 덕목을 심어줄 수 있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게 한다”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英 빌 법사, 6개월간 日 시쿠코 섬 순례

“1300㎞길 걸으며 88개 사찰 답사… 신심 다질 것”

17년 전 수계를 받은 후 영국 글로스터셔카운티(Gloucestershire county)의 글로스터(Gloucester)에서 의사이자 법사로서 포교에 전념하던 한 영국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일본으로 떠난다.

〈Citizen〉지는 2월 22일 “빌 라이트(Bill Wright) 법사가 삶의 가치관이 된 일본불교의 정수를 되돌아보고자 6개월간의 성지순례를 떠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빌 법사는 3월 30일 일본 시코쿠 섬으로 떠나, 그곳에서 6개월간의 도보 순례를 계획하고 있다.

“한 일본인 지인의 소개로 진언종에 입문에 공부한 후 17년 전 수계를 받았다”는 빌 법사는 “의사이자 법사로서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스스로 신심을 더욱 다져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순례를 계획하게 됐다”며 “이번 순례에서 가장 기대되는 게 있다면 시코쿠 섬의 88개 사찰과 내게 불법을 알려준 일본인 지인”이라고 말했다.

1400㎞에 달하는 시쿠코 섬 순례길은 ‘오헨로(お遍路) 순례길’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1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불교 성지 순례길이다. 여기에는 총 88개 사찰과 20개의 벳카쿠(別格 · 번외사찰) 등이 있다.

“오헨로 순례길은 보통 4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저는 ‘보다 천천히, 보다 세밀히’를 모토로 6개월간의 여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빌 법사는 “6개월간 내 신심을 다지는 것은 물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던져볼 요량”이라며 “순례를 마치면 법사로서도 의사로서도 더욱 성장해 있는 내 자신을 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빌 라이트(Bill Wright) 법사가 삶의 가치관이 된 일본불교의 정수를 되돌아보고자 6개월간의 성지순례를 떠난다.

〈Citizen〉 지에 따르면, 빌 법사는 이번 6개월간의 시코쿠 섬 순례를 위해 우턴 론 병원(Wotton Lawn Hospital)의 ‘정신상담의’라는 직업도 그만뒀고, 병원의 지인들은 그에게 일본 순례길에 사용되는 ‘스게가사’라 불리는 ‘삿갓’과 ‘지레이’라 불리는 종을 선물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천년 중국 불상에서 스님 미라 발견

앉아 있는 상태 그대로 보존…11~12세기 승려로 추정


내부에서 미라가 발견된 불상의 겉모습(왼쪽)과 내부를 CT촬영한 모습

천 년가량 된 중국 불상 속에서 승려의 미라가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은 2월 24일 “네덜란드 드렌츠박물관이 중국 불상에 대한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하던 중 앉아 있는 상태로 골격 구조가 그대로인 승려의 미라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불상 안 미라의 존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NL뉴스의 보도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이 불상은 지난해 중국을 처음으로 나와 네덜란드 드렌츠박물관에 전시됐다.

당시 네덜란드 메안더의료센터는 불상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CT촬영으로 살펴보는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그 결과 11~12세기 원나라 고승의 모습을 본 딴 불상의 내부에서 사람의 뼈대가 확인됐다. 불상의 내부에 사람의 육신이 미라 형태로 들어있던 것이다. 미라의 내장은 들어낸 상태였고 내부에서 한자가 쓰인 종이도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이 불상이 11~12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승려의 신분을 밝히기 위해 표본을 채취해 DNA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미라가 거란족이자 서요(西遼)의 초대 황제인 야율대석(耶律大石 · 1087~1143 또는 1094~1143)의 스승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야율대석은 요나라 태조(太祖)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의 8대손으로 묘호는 덕종(德宗)이다. 이 불상은 헝가리 자연사박물관으로 옮겨져 오는 5월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사찰서 가장 먼저 향 피울 권리 팝니다”

중국, 설 앞두고 ‘분향’ ‘타종’ 권리 경매사이트서 거래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 · 중국의 설)를 앞두고 ‘분향 권리’ ‘타종 권리’ 등 춘제 종교행사와 관련된 각종 특권이 중국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거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2월 17일 “최근 들어 중국 최대의 인터넷쇼핑몰 타오바오(淘寶) 경매사이트에는 일부 사찰에서 진행되는 타종식과 분향식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매매 가능한 ‘상품’으로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전역에 있는 불교사찰들은 매년 춘제 기간이 되면 분향식과 타종식 행사를 여는 전통이 있다. 이 행사에는 많은 불교 신자들이 참여한다. 보도에 따르면 저장(浙江)성, 산시(陝西)성에 산재한 유명 사찰들과 관련한 ‘상품’이 많았다.

특히 저장성 진화(金華)시에 있는 한 고대사찰의 경우 춘제 당일인 19일 가장 먼저 분향할 수 있는 ‘초대장’이 2만1천501위안(약 377만8천155원)을 제시한 입찰자에게 돌아갔다.

역시 저장성 닝보(寧波)에 있는 한 유명 사찰에서 춘제 당일 가장 먼저 타종을 할 수 있는 ‘상품’을 시장에 내놓은 의뢰인은 1만 위안(약 175만7천200원)의 가격을 제시했다.


중국 전역에 있는 불교사찰들은 매년 춘제 기간이 되면 분향식과 타종식 행사를 여는 전통이 있다. 이 행사에는 많은 불교 신자들이 참여한다.

이와 관련, 중국불교협회는 성명을 내고 “종교의식을 돈으로 거래하는 이런 현상은 불교의 명예를 떨어트리고 대중을 오도할 수 있다”며 “경매 등을 통한 자선행사에는 찬성하지만, 돈으로 (종교행사) 특권을 사는 행위는 고요하고 근엄한 불교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나은 기자**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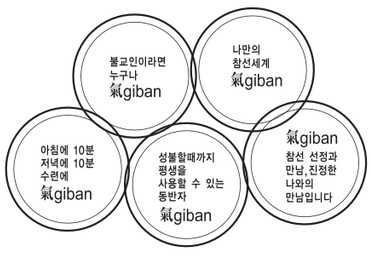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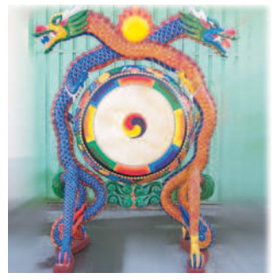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생활밀착형 온라인 쇼핑몰 **무료배송**

칠성상회

02-879-2007

상품 문의 및 기타 사항
02-879-2007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금계좌 안내 :
신한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교세라 복사기(중고)
A3~A6용지 사용가능
팩스,복사,프린트 모두가능
금액: 950,000원



수행 중 찾아오는 피로와
손발의부기,냉기 예방에 탁월한
아시혈 패치(30매)
금액 : 33,000원



수행에 지친 분들의 원기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리산 다슬기엑기스
한달분(80ml/60팩)
금액 : 115,000원



멀리 있어도 함께하며
마음과 진심을 전달합니다.
3단 근조 화환
(지정 날짜,시간에 배송가능)
금액 : 100,000원



5차 재입고,매년 인기 상품
올 겨울 따뜻하게 준비하세요.
거성 온수피아 카페트 매트
금액 : 330,000원



풍수총론(風水總論)
이산 장태상선생님의 현공풍수학
연구의 절정 (무료배송)
금액 : 35,000원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자연향을원료로하여제작한천연향초

쑥양초 세트 · 밀납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www.hyunbulshop.com

孝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현 불 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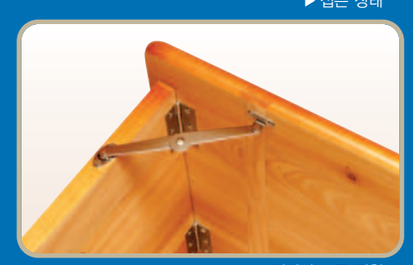
경상 (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첩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60㎝ × D40㎝ × H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명사들 음성으로 다시 듣는 미당의 詩

미당 서정주 탄생 100주년 기념 시낭송 공연
2월 26일 저녁 동국대 이해랑예술극장에서

"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드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으련다" 미당 서정주의 '자화상' 中에서

미당의 시는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했고 때로는 자연을 칭송하기도 했으며, 또 때로는 그리움을 노래하기도 했으며,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동국대와 사단법인 미당기념사업회(이사장 김원)가 공동 주최하는 미당 서정주 탄생 100주년 기념 시낭송 공연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가 2월 26일 저녁 동국대 이해랑예술극장에서 열렸다. 공연 제목인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는 미당의 시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 에서 따왔다고 한다.

시인 연극배우 가수 등이 함께하는 이 공연에서는 미당을 추억하는 30여 편의 시가 낭송됐다. 유자효 시인(미당 기념사업회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연에는 시인 민영, 정진규, 민용태, 문효치, 김초혜, 문정희, 이시영, 김기택, 정끝별, 이영광, 박형준, 허혜정, 김행숙 등이 출연했고 연극배우는 오현경, 전무송, 손숙, 윤석화가 출연해 '동천' '귀촉도' '푸르른 날' '눈내리는 눈발 속에서는' 등을 낭송했다.

문정희 시인은 "시인의 죽음은 육신이 죽은 것이라 했다. 시인의 시가 살아있는 한 시인은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다시 깨달았다. 서정주 선생은 위대한 숨결로 우리 곁에 아직 살아있다"며 시인을 그리워했다.

민영 시인은 "제가 선생님을 처음 뵌 것은 22세에 마포 공덕동 댁으로 찾아갔을 때다. 시를 쓰고 싶은데 길을 모르니 가르쳐 달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생에서 영광만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 일만 있는 것도 아니므로 미당 역시 다를 것 없는 인생을 마치고 하늘로 가셨다. 제자로서 눈물만 흐른다"며 미당과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또한 시낭송가들로 구성된 재능시 낭송협회가 출연 '고향에 살자'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 '국화 옆에서' 등을 통해 시낭송 공연의 진수를 보여줬다. 이밖에도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이 출연 '미당 탄생 100년 새롭게 찾은 시' 중에서 '어떤 종이장수 친구에게' 를 낭독해 주목 받았다. 공연으로는 소리꾼 장사익, 명창 박정욱, 인디밴드 '커플디' 가 출연 다채로운 무대를 꾸몄다. 특히, 박정욱 명창은 미당의 시 '신부' 를 창으로 꾸며 신명나는 무대를 꾸몄다. '신부' 는 서럽고 안타까운 신부의 이야기로 국악 가락으로는 처음 소개했다. 박 명

시인 연극배우 가수 등 출연
미당의 시 30여편 낭송해 감동

창은 올해 안에 서정주 시인의 시집 〈질마재 신화〉(1975)를 새로운 공연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는 550여 명의 관객이 참여했다. 객석을 꽉 채우고도 모자라 계단 여기저기 임시방석을 깔고 앉았고 무대 뒤에서서 공연을 관람하는 관중들도 있을 만큼 이번 공연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사회를 맡은 유자효 시인은 "이해랑 예술극장의 객석이 400석인데 이를 훨씬 넘는 550여 명의 관객들이 참석한 것을 보고 놀랐다. 2시간이 넘는 공연 동안 핸드폰 벨이 한번도 울리지 않을 정도로 관객들의 수준도 높았다. 미당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 수 있어 너무 감동적이었다. 또 우리 사회에 아직도 시를 좋아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공연을 끝낸 소감을 이야기 했다. 유자효 시인은 1968년에 신아일보 신춘문예 입선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미당과 첫 만남을 가진 이후, 미당이 결혼식 주례사를 서줄 만큼 각별한 관계였다고 한다.

앞으로 미당기념사업회는 미당 전집 출간과 시낭송 공연을 꾸준히 개최해 미당의 시를 알려나갈 계획이다. 공연의 총감독을 맡은 동국대 윤재웅 교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미당의 시를 잘 모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앞으로 미당기념사업회는 전집 발간과 공연으로 미당의 시를 알려나갈 것"이라며 계획을 전했다.



동국대와 사단법인 미당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하는 미당 서정주 탄생 100주년 기념 시낭송 공연이 2월 26일 저녁 동국대 이해랑예술극장에서 열렸다. 사진은 재능시 낭송협회 회원들의 공연 장면.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시시각각 변하는 우주 화폭에 담아"

한경혜 개인전 3월 4일~9일
가나아트스페이스서

"상대가 곧 나이고, 나를 비우면 객체가 주체가 되고, 주체는 이미 객체가 되어 둘이 하나로 통합니다.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생물과 무생물. 생과 멸, 더러움과 깨끗함 등 전부가 하나의 마음자리에서 우러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찰나처럼 흘러가는 순간이지만 머무르고 싶은 순간의 시간을 물에 비유해 보았습니다."

매일 1000배로 뇌성마비를 극복한 화가 한경혜 씨가 제 7회 개인전을 연다. 3월 4일~9일 가나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물 속에 담긴 우주자연' 을 주제로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교체되는 시간들' '2015 머무르고 싶은 순간들' '수초도시' 등을 통해 찰나의 순간을 표현해 낸다. '교체되는 시간들' 은 끝없이 들고나는 밀물과 썰물처럼 고정되지 않고 변하는 삼라만상을 물에 비유했다. 한 작가는 "순간 순간이 그냥 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 하고 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며, 또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듯 말이다. 그 찰나를 포착해 작품으로 옮겼다"고 설명한다.


매일 1000배로 뇌성마비를 극복한 화가 한경혜 씨가 제 7회 개인전을 연다. 작품은 '교체되는 시간들'

자연을 화폭 속에 담아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주 자연의 섭리를 화폭 속에 펼치고 있는 한경혜 작가. 그는 "나라는 존재는 우주에 비해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다. 또한 세상의 모든 이들은 스스로 존귀하다. 이런 불교정신을 작품 속에 담아내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이태리 찾아가는 현대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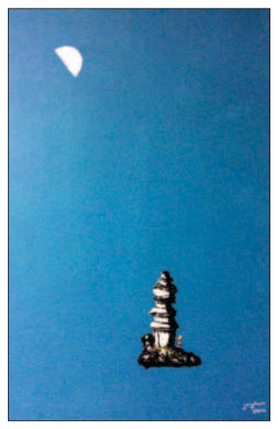
배종훈 작가 밀라노 아트페어 참여

배종훈 작가가 3월 19일~22일 이탈리아 밀라노 슈퍼스튜디오에서 열리는 밀라노아트페어를 찾는다. 배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선의 정신을 보여주는 작품 10여 점을 선보인다.

배종훈 작가는 "지난 11월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아트페어에 참여해 유럽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에 이태리 밀라노에서 부스로 참여해 불교문화 정서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선회화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배 작가는 지난 13년 동안 불교를 쉽고 현대적으로 해석한 카툰과 일러스트, 페인팅 작업을 해왔다.

이번 출품작 중 하나인 '달, 해바라기, 탑' 은 동양적 정서인 여백 안에 명상과 선적 요소를 배치한 작품이다. 작가는 "작품에 등장하는 '달' 은 원형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나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외적 형상은 매일 조금씩 커지고 작아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것은 수행을 통해 참된 '나' 를 찾아가는 수행자의 모습이면서 세상 만물이 둘이 아니라 결국 하나이며, 형상은 항상 변하나 본질은 영원함을 표현해 불교의 정수를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배종훈의 '달, 해바라기, 탑'

작가는 이번 밀라노 아트페어 참여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 (http://www.wadiz.kr/Campaign/Details/643)도 시작한다.

한편, 배종훈 작가는 2010년 불일미술관 개인전을 시작으로 아트스페이스 선+, 명상카툰 2인전 등 다수의 전시를 가졌다.

정혜숙 기자

정목 스님 BTN불교방송 4대 도시 공개방송


정목 스님

개국 20주년을 맞은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가 '정목 스님의 나무아래 앉아서' 의 4대 도시 투어 공개방송을 개최한다.

'함께하는 세상, 아름다워라' 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투어 공개방송은 2월 26일 광주 문화예술회관을 시작으로 3월 4일 부산문화회관, 4월 3일 대구학생문화센터, 4월 23일 대전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각각 열린다. 공개방송은 도시별로 토크 주제를 다르게 선정하고, 주제에 따른 정목 스님의 법문과 기도, 발원이 어우러지며 음악과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로 진행한다.

BTN불교TV는 "지난 20년 동안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스님과 불자, 시청자들에 대한 작은 보답으로 토크 콘서트를 마련하게 됐다"며 취지를 전했다.

공개방송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당일 현장에서 티켓을 배부한다. 사찰 및 단체는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02)3270-3402



장르와 세대 아우르는 佛母 한자리에

일섭 문도회 제2회 회원전 '불모들의 향연'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일섭문도회의 '불모들의 향연'이 3월 9일~16일 예술의 전당서 열린다. 전연호의 '금니 천수관음도'

수안 스님 등 100여 작가 참여
불화 조각 단청 사진 등 선보여
3월 9일~16일 예술의 전당서

금용 일섭 스님(1900~1975)은 평생 동안 전국을 돌며 불화 단청 불상 조각 등을 남겼다. 해인사 사천왕탱화, 조계사 후불탱화, 송광사 시왕각부탱화, 옥천사 팔상탱화, 백양사 사천왕 소조상 등 남쪽 제주부터 북쪽의 함흥연변까지 전국 주요 사찰에는 스님의 혼이 깃들어 있다. 이런 스님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그 후학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불교미술 일섭문도회' 회원은 현재 300여명. 그들은 문도회를 결성해 일섭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동시에 불교미술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일섭문도회(회장 김성규)가 3월 9일~16일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두 번째 회원전 '2015불모들의 향연'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회화, 조각, 단청, 공예 등 불교미술 전반을 아우르는 10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지난 2012년 첫 회원전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허길량의 동자 동녀 △송천 스님의 계, 정, 혜 △수안 스님의 화엄세계10곡 병풍 △심무용의 승찬대사 심신명 10곡 병풍 △안경수의 월광보조 △안상태의 까치호랑이 △전연호의 금니 천수관음도 △김도래 극락으로 가는 날 △박채연의 F장조의 파도 소리 등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가 더욱 주목되는 것은 2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이 참여 불교미술의 다양한 장르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아기부처의 탄생, 어머니 등을 10가지 화폭으로 펼쳐낸 수안 스님의 '화엄세계 10곡병풍'은 공(空)에 투철한 채 오직 화엄의 길로 거래(去來)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천 스님의 '계, 정, 혜'는 사진을 입체적으로 표현해 지혜의 문을 열고 진리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보여준다. 관음보살의 얼굴을 자비상 분노상 여래상 등 11면으로 표현한 전연호의 '금니 천수관음도'는 관음상 주변으로 수많은 손을 그리고 손바닥에 눈을 그려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완성했다.

안경수의 '월광보조'는 서양식 드레스에 현대 미인의 얼굴을 한 관음보살을 표현, 불화에 만화의 여주인공이 등장한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2012년 허리케인 샌디로 많은 피해를 입은 뉴욕을 위로하기 위해 제작되었다는 박채연 'F장조의 파도 소리'는 미디어 작업을 통해 사진에 청각적 요소를 삽입 입체감을 더했다. 김도래의 '극락으로 가는 날'도 눈에 띈다. 작가가 모친에게 선물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이 작품은 한지로 만든 수의에 아미타불의 옷의 문양을 금박으로 표현했다.

또한 이번 전시 중에는 일섭문도회 신진 작가들을 위한 시상식도 마련한다. 전시 작품 중 6~7명의 회원을 수상자로 선정 창작 의욕을 북돋울 예정이다. 김성규 회장은 "우리나라 불교미술사 중 중세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불모로 유성(有誠)스님의 화풍을 빼놓을 수 없다. 그 전통의 맥이 금호 스님, 보응 스님, 일섭 스님 순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일섭 문도들은 이런 불교미술의 전통을 현대까지 잇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시와 더불어 후학 양성에도 최선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담아 시상식을 열고 있다"며 취지를 전했다.

앞으로 일섭 문도회는 작품의 영역을 건축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며 세미나 개최 등으로 불교미술 저변확대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일섭문도회는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 우리나라 초유의 불모비림을 조성 선대불모들의 행적비를 세우고, 불모수첩을 발행하는 등 불모계보의 체계적 정립에 힘써왔다. 또한 지난 2012년 첫 회원전 '불모들의 향연'에서는 100여 작가들이 참여 대규모의 전시를 치룬 바 있다. 또한 석정 스님, 청원 스님, 전기만, 조정우, 양용호, 이정오, 권현규 씨 등 15명의 회원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수의 회원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활동하고 있을 만큼 한국 불교미술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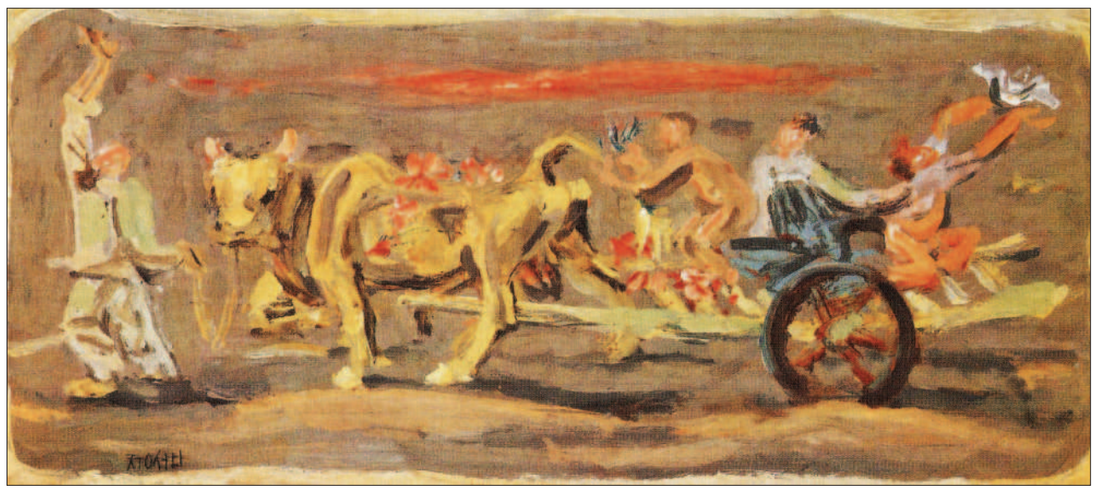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허길량 작가가 출품한 동자 동녀


현대식 관음보살을 표현한 안경수의 '월광보조'


김도래의 '극락으로 가는 날' 한지 수의

문화속에서 만난 佛敎


'이중섭의 사랑, 가족' 展이 서울 종로구 삼청로 현대화랑서 열렸다. '가족 따뜻한 남쪽 나라로'는 가족과 함께 하고싶은 이상향을 담아냈다.

구도의 상징 '소'… 내면세계 폭발적 표현

현대화랑 '이중섭의 사랑, 가족' 展

작은 종이에 담아낸 커다란 가족愛
소와 은지화로 한국인 심장 깨워줘
'새로운 부처님' '연꽃을…' 눈길

제주도를 가면 자주 들리는 곳이 서귀포에 위치한 이중섭 거리다. 여기에는 이중섭 미술관과 함께 작가의 거주지가 위치해 있다. 한국전쟁 당시 가족들과 피난와서 잠시 머물렀던 곳으로, 배급을 받으며 가난하게 살아야했지만 작가와 가족들은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고 많은 명작을 남긴 장소이기도 하다. 이 장소는 이제 기념비처럼 남아 그의 예술세계와 가족 사랑을 한눈에 보여주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소의 작가 이중섭의 가족 사랑이 또다시 대중들의 마음을 적시고 있다. 서울 종로구 삼청로 현대화랑에서 열리는 '이중섭의 사랑, 가족' 展은 예술에 대한 그의 열정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전시다. 끼니를 이을 수 없을 만큼 가난했기에 아내 야마모토 마사코(한국명 이남덕)와 두 아들을 일본으로 보내야했고 그 그리움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기에 관람객들은 이 작품들에 무한한 애정을 보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유채 채색화 드로잉은 물론이고 유학시절 글을 대신해 사랑을 전했던 엽서화, 가족들에게 보냈던 편지화, 답뱃갑 속 은지에 새긴 은지화 등이 선보인다. 여기에는 '새로운 부처님'과 '연꽃을 쥔 아이' 등 불교 관련 작품도 눈에 들어온다. 특히 '새로운 부처님'은 아기부처와 불상을 나체로 표현한 은박지 그림으로,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파격적이고 불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통을 소재로 작품활동을 해온 이중섭의 작품세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희화적 표정과 동작들이 흥미롭기만 하다.

물론 이번 전시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긴 작품이 대부분이다. 아들에게 그림을 그려 보낸 편지가 다수 전시되었고, 먹을 것이 없어 바닷가에서 게를 잡아먹었던 기억을 해학적으로 그린 '그리운 제주도 풍경'도 인상적이다. 그의 소망이 가장 간절하게 담긴 작품은 '가족, 따뜻한 남쪽 나라로'로 보인다. 소달구지에 가족들을 태우고 아버지가 앞에서 황소를 끌고 따뜻한 남쪽나라로 가는듯한 이 그림은 희망적이고도 역동적이다. 여기에도 작가의 대표 소재인 소가 등장한다. 이중섭의 소는 작가의 격렬함과 집념, 우직함과 자연스러움, 야만성과 고뇌와 연민, 환상과 방랑성, 갈망과 광기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과수원의 가족과 아이들'


전통을 소재로 한 '연꽃을 쥔 아이'

불교에서 소는 구도의 상징이다. '심우도'는 방황하는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고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야생의 소를 길들이는데 비유해 10단계로 그려냈다. 여기에서는 불성을 소에 비유해 표현하고 있는데, 동자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다가 검은 소를 발견하니 야성을 길들이기 위해 소의 코에 코뚜레를 뚫고 삼독의 때를 벗겨내면 흰색이 된다. 이렇게 길들여진 소를 타고 마음의 본향인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 번뇌와 망상 욕망이 끊긴 상태가 되면 어느새 소는 사라진다. 소는 심원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이제 자기자신도 잊어야 하니 이것이 곧 공(空)이며 완전한 깨달음이다. 산은 산 물은 물, 티끌 같은 번뇌도 없으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어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고 중생제도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불우한 시대를 살아내며 예술혼을 불태웠던 작가 이중섭. 그를 버티게 해주었던 것은 가족이었다. '따뜻한 남쪽 나라'는 전시가 끝나면 가족들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그린 그림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전시를 끝낸 이듬해 정신병원으로 실려 갔고 간염판정을 받고 다시 서대문 적십자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41세의 나이로 사망하고 만다.

예술과 일상의 삶 사이에서 예술을 택했던 작가 이중섭. 가족과 함께하고자 했던 극락을 꿈꾸었던 작가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다 결국 불혹의 초입에서 생을 마감한 것이다. 고통 속에서 연꽃 같은 예술의 결정체를 만들어 냈던 작가의 다음 생은 마음의 소를 만나 고통도 분노도 광기도 잊고 평온의 상태에 들 수 있기를 기도해본다.

정혜숙 기자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18 ~ 2/2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지금 여기 깨어있기	법륜스님	정토
2	인생수업	법륜스님	휴
3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이 아닌가	이일야	담앤북스
4	밥값 했는가	도원스님 외	불광출판사
5	나보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주경스님	마음의숲
6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만다라	Carlton Books	담앤북스
7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8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조계종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모과나무
9	해 뜨니 낮이요 달 뜨니 밤이로다	조계종 선원수좌 복지회	조계종출판사
10	숫따니빠따 (빠알리원전번역)	일아스님	불광출판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입적한 법정 스님과 최인호 작가 책 속에서 조우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2013년 4월 법정 스님과 최인호 작가가 길상사 요사채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당시 모습. 〈사진제공=덕조 스님〉



꽃잎이 떨어져도 꽃은 지지않네

법정·최인호 지음

여백 펴냄

1만2천원

2003년 4월 길상사서의 대담 정리

사랑, 가족, 진리 등 다양한 주제로

"최고의 용기는 바로 용서 구하는 것"

이 책은 2003년 4월, 길상사 요사채에서 가진 법정 스님과 최인호 작가의 네 시간에 걸친 대담을 엮은 것이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행복과 사랑, 삶과 죽음, 시대정신과 고독 등 11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깊이 있는 사색과 시적 은유로 가득한 언어를 주고받았다.

이 책은 원래 최인호 작가가 생전에 법정 스님의 기일에 맞춰 펴내려고 했다. 스님이 입적한 이듬해인 2011년, 암 투병 중에도 일필휘지로 써 내려간 장편소설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를 펴낸 최 작가는 이후 병이 깊어져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결국 2013년 9월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최 작가는 병이 깊은 중에도 반드시 법정 스님의 입적 시기를 전후해 책을 펴내라는 유지를 남겼고, 그의 뜻은 법정 스님 5주기를 즈음해 결실을 맺었다.

최인호 작가는 생의 말년에 왜 이 책을 마음에 크게 두었을까? 그 이유는 이 책의 '들어가는 글'과 '나오는 글'에 잘 드러난다. 샘터라는 잡지에 각기 다른 소재로 인기 연재물을 쓰면서 시작된 첫 만남 이후 30년 동안 두 사람은 열 번 남짓 만났다. 하지만 수필가로서, 소설가로서 당대를 대표한 법정 스님과 최인호 작가는 때로는 가까이에서, 때로는 멀리서 서로를 응원하고 독려하며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둘만의 이야기를 만들었다. 최인호 작가의 대표작인 불교 소설 〈길 없는 길〉이 법정 스님의 한마디에서 시작된 사연이라든가, 빗속에서 헤어지며 친형제와도 같은 깊은 애정을 느끼는 장면들이 그러하다. 그래서 최 작가는 생전의 그 인연을 이 책을 통해 이어 가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또 한 권의 책 속에서 법정 스님과 동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을 것 같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의 깊은 인연은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오롯이 남았다.

이 책은 액자적 구성을 취한다. 2010년 3월 11일 법정 스님이 입적한 뒤 최인호는 마치 적군의 기지를 염탐하듯 스님의 빈소가 마련된 길상사로 숨어든다. 최 작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해 1월에 〈인연〉이라는 수필집을 펴낸 이후 암 투병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그 역시 언론의 관심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문상을 마친 최 작가는 길상사 경내를 걷다가 낯이 익은 요사채의 출입문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기억을 더듬던 최 작가는 그곳이 7년 전 법정 스님과 함께 네 시간의 대담을 나누었던 장소라는 사실을 떠올린다.

2003년 4월의 그날, 월간 〈샘터〉가 지령 400호를 기념해 마련한 대담을 통해 법정 스님과 최인호 작가는 길상사 요사채에 마주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든 것은 받아들이기에 따라 행복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스님의 말을 시작으로 두 사람의 대화는 사랑, 가족, 자아, 진리, 삶의 자세, 시대정신, 참 지식, 고독, 베품, 죽음으로 이어진다. 대화 형식을 취하기에 미사여구가 생략된 그들의 언어는 주제의 본질을 날카롭게 관통하면서도 품 넓은 여운을 남긴다. 불가의 수행자로, 가톨릭 신자로 각자의 종교관에 바탕을 두고 대화를 풀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두 갈래가 아니다. 문학이라는 '종교'의 도반으로서 한 시대를 같이 느끼고 살아온 그들이기에 두 사람의 언어는 절묘한 화음을 이루며 깊고 넓은 울림을 만들어 낸다.

베품에 대해 최 작가가 스님께 물었다. "스님 요즘 사람들은 필요없는 물건만 남에게 주는 것 같은데 살아있을 때 나눠야 한다는 말씀 참 인상깊게 들었습니다." 그러자 법정 스님이 답했다. "사람도 살아있을 때 사람 구실을 하듯이 물건도 지녔던 사람이 죽으면 그 빛을 잃는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 작은 염주라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최 작가는 용서라는 개념도 여쭈었다. 법정 스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먼 여행은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여행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 마음하고는 투도어 냉장고처럼 분리돼 있어요. 용서라는 말은 어딘지 수직적인 냄새가 나요. 비슷비슷한 허물을 지닌 중생들끼리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서로가 감싸주고 받아들이는 관용정신이 필요한 거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최고의 용기는 바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끝에 이르러 최인호 작가가 묻는다. "스님,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법정 스님이 답한다. "몸이란 그저 내가 잠시 걸친 옷일 뿐인 걸요." 지금은 고인이 된 두 사람의 맑고 깊은 서(書) 언(言) 행(行)은 여전히 고운 향기로 우리 곁에 남아 있다.

만해 스님 평전… 역사적 사건 장면 처리



만해, 그날들

박재현 지음

푸른역사 펴냄

1만5천원

만해 한용운(萬海 韓龍雲, 1879. 8. 29~1944. 6. 29) 스님은 한국 근현대 인물 중 가장 폭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깨달음의 길을 걸었던 수행자였으며, 격랑의 근대사를 온 몸으로 안았던 실천적 지식인이었고, 시대의 아픔과 진리의 열망을 언어로 노래한 시인이었다. 또한 암울한 일제 강점기에 독립을 부르짖던 민족주의자요, 항일운동가였다. 이 모든 것이 66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간 만해 스님을 평하는 수식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렇게 한국불교 근현대사서 가장 다각적 평가를 받는 만해 스님의 열반 70주년을 맞아 국내에서 다양한 선양 사업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만해 스님 평전인 〈만해, 그날들〉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성과물이다. 저자는 만해 스님 평전을 쓰려고 했다. 하지만 이 책은 흔한 평전의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다. 모든 사실은 진술되는 순간 선택되고, 선택하는 행위에는 이미 평(評)이 내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자의 지론이다.

'평전'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 일생에 대해 평론을 곁들여 적은 전기"라고 나와 있다. 또

철학자, 평전 새 지평을 열다

만해관련 연구 성과물 반영

'평론'이란, "사물의 가치, 우열, 선악 따위를 평가하여 논함, 또는 그런 글"이라고 적혀 있다. 책 끝 후기를 보면 저자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저자는 "모든 진술은 끝내 사실의 진술이 되지 못하고 가치의 진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진술하는 행위는 그 자체에 이미 진술자의 평가가 내재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따라서 흔히 보는 평전 형식은 서술자의 주관성이 이중으로 주입된 과도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길이 없다. 결국 나는 평을 포기했다. 어쩌면 실패인지도 모른다."라고 토로한다.

왕조가 뒤집어지고 나라가 사라져도 백성들은 고요하기만 했다. 백성들은 뒤집어진 세상에서 꾸역꾸역 살아내기만 했다. 나는 그 고요함의 정체가 너무 무서웠다. 만해 스님의 드러난 자취보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던 사람들의 절박함에 나는 몸서리쳤다"고 고백한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이다. 대한민국의 일제강점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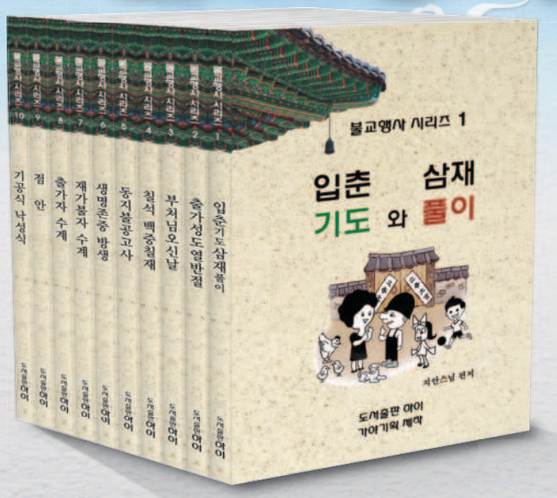
책 속으로 들어가보자. 일제강점기, 살아남으려는 온갖 방편이 와글거리는 속에서 선사(禪師)들은 맹렬한 화두 참구를 통해 세상을 관통하는 가파른 길을 찾아냈다. 그 가운데 만해 한용운 스님이 있었다. 그는 조선불교의 개혁을 역설했고, 신사조(新思潮)를 수용했으며, 대처제(帶妻制)도 옹호했다. 해방이후 반일(反日)과 반공(反共)이 한국 사회의 주도적 이념이 되면서, 불교개혁론은 친일의 혐의를 뒤집어썼다.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명분은 이승만 정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강렬했다. 또한 195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불교정화운동은 쓸어버려야 할 것과 남겨둬야 할 것을 가릴 틈도 없이 밀어닥쳤다. 결국 한국 불교사서 만해 스님의 족적은 일정부분 묻어두어야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선사'나 '스님'보다는 '선생'으로 부르는 것을 편해했다. 그는 우리에게 항일독립투사나, 민족대표 33인, 혹은 님의 침묵을 쓴 시인으로 다가왔다. 게다가 그의 적극적인 정치사회적 활동은 선사로서의 모습을 희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저자는 말한다. 그에게라면 물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에게라면 어떤 대답이라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어떻게 살 것인가. 혹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만해, 그날들〉에서 만해가 답한다. 이 책에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는 과정의 정치사회적 격동기의 지층들이 압축적으로 그려져 있다. 러일전쟁과 청일전쟁 당시 조선의 내부사정, 한일병합 전후의 속사정,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사건, 사찰령, 만해 피격사건, 동학운동, 취처논쟁, 3.1운동 전후의 사정 등이 만해 스님의 눈을 통해 박진감 있게 묘사됐다.

만해는 선사(禪師)다. 무(無)를 넘나든 선사의 아득한 내면은 종잡기 어렵다. 저자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간화선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다. 이미 출판된 〈깨달음의 신화〉와 〈한국 근대불교의 타자들〉을 통해 피력된 저자 박재현의 학술적 전문성이 이 책에 녹아들어있다. 저자를 통해 선사 만해의 속내와 그의 날들은 기어코 복원됐다. 이 책은 만해의 저작물 및 만해 관련 연구성과물, 그리고 한국 근대사 분야의 학술적 성과까지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국가기록원, 독립기념관 등에 소장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공판기록 등 관련 자료들도 압축적으로 녹여냈다. 그러면서도 책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단순 제시하지 않고, 마치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기술하고 있다. 책에서는 역사적 사건을 장면으로 처리하는 기술 방식을 취해 마치 한 편의 다큐영화를 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 저자는 역사를 밖에서 관전하지 않는다. 연대기적 서술방식을 버린 저자는, 깊은 지층을 헤집다가 마침내 그 지층 속에 파묻혀 버린 사람처럼 보인다.

김주일 기자

불교행사 지침서 시리즈 전 10권 출간!



알기쉽고! 간편하고! 편리하게!

지안스님이 엮어가는
불교행사 시리즈 전 10권 출간!



• 행사시리즈 1 : 입춘삼재풀이(140쪽) 입춘정의. 입춘기도준비. 입춘기도순서. 입춘기도진행. 삼보통청 삼재풀이 불교식. 신중청. 염송기도 삼재풀이 민속식 삼재풀이 개별식. 입춘축. 삼재부적
• 행사시리즈 2 : 출가성도열반(202쪽) 출가절. 법회준비. 법회식순. 법회진행. 출가절독경예참. 성도절. 법회준비. 법회식순. 법회진행. 성도절독경예참. 열반절. 법회준비. 법회식순. 법회진행. 출가절독경예찬
• 행사시리즈 3 : 부처님오신날(160쪽) 봉축행사 계획. 봉축행사 준비. 연등 만들기. 연등 설치. 봉축법요식 식순. 법요식 진행. 법요식 노래악보. 봉축예경. 연등공양 공덕
• 행사시리즈 4 : 칠석과 백중날(180쪽) 칠석의례. 칠성본풀이. 칠석기도 준비 진행. 우란분절 준비. 우란분절 식순. 우란분절 진행. 영가시식
• 행사시리즈 5 : 동지불공고사(150쪽) 동지정의. 세시풍속. 동지불공 준비. 동지불공 순서. 동지불공 진행. 삼보통청. 신중권공. 신중불공. 신중염송. 영단제례. 영가시식. 동지고사. 팥죽 예화
• 행사시리즈 6 : 방생(175쪽) 방생이란. 방생준비. 방생식순. 방생진행. 연지대사방생문. 어류방생. 어류방생기도문. 조류방생. 조류방생 기도문. 방생기도 소원지. 방생사진. 방생이야기. 방생공덕 등
• 행사시리즈 7 : 재가불자수계(150쪽) 계율삼사칠증. 소승오계. 십계. 십중대계. 사십팔경계. 수계란. 어린이 수계식. 성인불자 수계식. 거사불명. 보살불명
• 행사시리즈 8 : 출가수계식(150쪽) 계율. 소승계 분류. 십계. 사미십계. 구족계. 비구계. 비구니계. 대승계 분류. 십중대계. 사십팔경계. 출가 수계식. 수계준비. 수계식순. 수계진행. 법명
• 행사시리즈 9 : 점안의식 상(179쪽) 점안이란? 불보살 복장의식. 불보살 점안 준비. 불보살 점안식순. 불보살 점안 진행. 법회 진행. 나한 점안의식. 사천왕 점안의식
• 행사시리즈 10 : 점안의식 하(180쪽) 점안이란? 점안 준비. 시왕 점안의식. 조탑 점안의식. 가사 점안의식. 금은전 점안의식

도서출판 하이 공급원 가야기획 TEL: 02-379-2400. 031-948-0340 FAX: 031-948-3291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다시 태어나도록 얽어매는 원인이 되는 욕망에서 생긴 어떤 것도 없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낡고 묵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 〈숫타니빠따 게송 16〉중에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물에 더렵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숫타니빠따 게송 71〉중에서

어떤 살아 있는 존재들이건, 동물이거나 식물이거나 남김없이, 길거나 크거나 중간이거나, 짧거나 조그맣거나 거대하거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사는 것이나 가까이 사는 것이나, 태어난 것이나 태어날 것이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행복하라. 〈숫따니빠따 게송 146, 147〉중에서

Books

천태지자 등 대가들 주석서 모아 종합 고찰

범망경보살계본휘해

이원정 편 | 목정배 역 | 운주사 펴냄 | 2만8천원



동아시아 대승불교권의 대표적 계율서로 큰 영향을 끼쳐온 〈범망경보살계본〉에 대해, 천태지자 등 대가들의 주석서를 하나로 모아 종합적으로 고찰한 책이다. 나아가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경우의 죄들에 대해 간결하게 표로 정리, 한눈에 죄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계(戒)는 계정혜 삼학 중 첫째로, 불교수행은 바로 계를 받들어 지킴에서 시작된다. 이는 대소승에 관계없이 다 해당되는 말이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대승불교권에서는 특별히 대승보살계라는 이름으로 사부대중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계율을 명시하는데, 이를 설하는 대표적 경전이 〈범망경〉이다. 상하 두 권으로 이루어진 〈범망경〉은 상권에서 보살의 심지법문을 설하고, 하권에서는 초발심 보살이 성불로 나아가는 데 지켜야 할 10중계와 48경계를 설하고 있어, 대승불교의 어느 종파를 막론하고 존중되고 널리 유포되었으며 주석서도 많이 저술됐다.

이 책은 〈범망경〉에 대한 역대 주석가들 중 천태지자를 비롯하여 운서주굉, 영봉우익 스님 주석서를 모으고, 이 중 우익대사의 주석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원정 거사가 체계적으로 편집 정리했다. 여기에 故 목정배 교수가 1980년 대 후반 번역해 놓은 원고를 생전에 마지막 출판물로 계획하다가 갑작스레 입적하는 바람에 후학들이 1주년 기일을 맞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역대의 정평 있는 주석서들을 경문에 따라 거의 온전하게 완역함으로써 〈범망경〉에 대한 종합주해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점이며, 따라서 계율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큰 참고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 책에 수록된 주석서들은 천태종을 개창하여 중국불교 전체의 틀을 확립한 천태지자의 〈보살계의소(菩薩戒義疏)〉를 기본으로 하여 명나라 때 4대 고승으로 추앙받는 두 고승인 운서주굉의 〈범망경심지품보살계의소발은(梵網經心地品菩薩戒義疏發隱)〉과 영봉 우익지욱의 〈범망경합주(梵網經合註)〉이다.

이 책의 편찬자는 이들 세 주석서를 〈범망경〉의 본문 아래 순서대로 나란히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되, 천태지자와 운서주굉의 해석에 미흡하거나 의문스런 부분을 보충해 주해를 단 우익지욱의 합주를 학술적인 정수라고 보고, 처음 배우는 사람을 위해 모든 내용을 통합시켜 다시 정리했다.

정평난 주석서 온전하게 완역

번잡한 죄상 다양한 표로 정리

우익지욱은 중국불교의 모든 교학과 계율, 수행을 체계적으로 정리 융합해 중국불교의 최종 완성자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고승으로, 계율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저술을 남기고, 〈범망경〉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막힘이 없었다. 따라서 이전의 주석서들과 함께 우익지욱의 종합적 해설을 한눈에 비교하면서 살필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큰 장점이다. 또한 주석서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한눈에 파악하기 힘든 번잡한 죄상(罪相)들을 다양한 표로 모아 정리함으로써 책 전체 내용을 구조적이고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점도 큰 장점이다. 따라서 계율에 관심을 지니고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나 지금 배워야 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완벽한 교과서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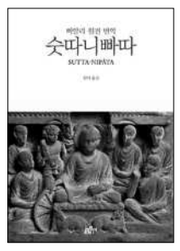
저자 **목정배 교수**은?

경남 밀양서 태어났다. 통도사 극락암 경봉스님께 사사했으며,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한국불교대원회 이사장, 성철선사상연구원장, 한국불교학회 회장, 제1회 한국불교학결집대회 대회장, 서울불교대학원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초기불교교단의 형성에 대하여〉 〈계율론〉 〈대승보살계사상〉 〈삼국시대의 불교〉 〈범망경술기〉 〈한국문화와 불교〉 〈불교와 예술〉 〈한국불교학의 현대적 모색〉 〈계율학〉 〈세계불교의 이론과 역사〉 등 다수가 있다.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길은?

숫따니빠따

일아 옮김 | 불광 펴냄 | 1만 7천원



소설 제목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로 널리 알려진 불교경전 숫따니빠따는, 담마빠다(법구경)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애독되는 고전 중 하나다. 젊은 붓다가 제자들과 다양한 주제에 관해 나눈 문답이 있어, 죽음 · 늙음 · 자유 · 욕망 · 깨달음 등에 대한 붓다 가르침의 가장 초창기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전이다. 또한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다양한 장면들도 실려 있어, 2천5백 년 전 인도 사회를 엿볼 수 있는 자료로서도 가치가 있다. 숫따니빠따는 빠알리어로 'sutta-nipāta'인데, 'Sutta'가 '경'이고 'nipāta'가 '모음'이므로 '숫따니빠따'를 뜻풀이하면 '경의 모음'이다. 72개의 작은 '경'들이 모여 탄생한 숫따니빠따는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길을 독자에게 제시한다.

아직 불교라는 종교의 체계가 잡히지 않던때, 깨달음을 이뤘다는 젊은 붓다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 가운데는 구도 열정으로 붓다를 마주한 이뿐 아니라, 젊은 붓다를 가늠해 보고자 붓다에게 도전하는 이, 진정한 붓다인지 확인하려고 붓다를 시험한 이도 있었다. 붓다 앞에 선 그들은 폭력, 서두름, 죽음, 늙음, 자유 등에 대해 품던 의혹들을 붓다에게 던지고, 붓다는 질문에 친절히 답한다. 붓다와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물음표들은 하나 하나 떨어져 나가고, 마음이 말끔해진 질문자들은 하나둘씩 붓다의 제자가 된다.

그렇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이들 앞을 또 하나의 장벽이 막아서고 있었다. 바로 수행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제자들은 붓다에게 끊임없이 물었고, 붓다는 하나씩 짚어 가며 답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맞는 자세, 재물을 향한 마음에 대해 붓다는

72개의 작은 경들이 모여 탄생

전세계서 가장 애독되는 고전 경전

설명했고, 그 말들이 모여 수행자의 '계율'이 되었다.

수행자의 몸가짐에 대한 붓다의 말 속에는 구시대를 깨뜨리고 새시대를 여는 사상이 담겨 있다. 붓다는 '출생'에 의해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 성자가 된다고 자주 말한다. 출생 신분이 한 사람의 일생을 가르던 철저한 신분제 속에서, 행위에 의해 성자가 된다는 선언은 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외침이었다. 이 목소리가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희망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숫따니빠따에는 이런 장면들이 생생하게 실려 있다. 불교 최초의 경전으로 꼽히는 숫따니빠따인 만큼, 후대에 가미된 화려하거나 거창한 꾸밈 없이 담백하고 쉬운 말로 소박하고 진솔하게 그 장면들이 그려진다. 이것이 숫따니빠다를 보면 '붓다 가르침의 가장 순수한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이유이자, 숫따니빠따가 인류의 고전 목록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이다.

숫따니빠따는 국내에 주로 일역이나 영역으로 소개돼 왔다. 유일한 빠알리 원전 번역으로는 전재성 박사의 번역본이 있는데, 인연담과 주석을 합쳐 분량이 방대해진 나머지 대중들이 접근하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가장 대중적으로 읽힌 법정 스님 번역본도 스님 입적과 함께 절판된 지 수년이 흘렀다. 상황이 이러하니, 중역으로 인한 오류를 줄여 붓다 가르침의 순수한 모습을 최대한 간직하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숫따니빠따 번역본에 대한 갈증이 늘 있어 왔다. 〈빠알리 원전 번역 숫따니빠따〉를 출판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 책을 옮긴 일아 스님은 6년 가까이 수녀로 생활하다가 가톨릭보다는 불교가 본인에게 더 잘 맞는다고 판단, 종신 서원 전에 수녀원을 나와 법정 스님이 추천한 사찰로 출가를 한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직하고 치열한 삶 속에서 빠알리 경전을 국내에 알리는 데 오랜 세월 진력해 온 분이다. 그 열정이 〈빠알리 원전 번역 숫따니빠따〉에도 고스란히 배어 있어, 단어 하나 구절 하나에서도 흐트러짐을 찾아보기 어렵다.

김주일 기자

자녀 위한 기도는 부모사랑의 극치

불교의 자녀사랑 기도법

김현준 지음 | 효림 펴냄 | 5천원



"정녕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올리는 기도야말로 부모 사랑의 극치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지극한 정성의 표출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불보살님의 가피와 부모의 진정한 사랑! 이것이 합하여지는데 녹아내리지 못할 업(業)이 어디에 있으며 성취를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간의 다생다겁 맺은 깊은 인연부터 부모님들의 자녀사랑법을 중심으로 상세한 기도방법을 실은 〈불교의 자녀사랑 기도법〉이 새롭게 출간됐다.

불교신행연구원 원장이자 월간 〈법공양〉 발행인 겸 편집인인 저자는 이번 책을 통해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사랑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 정립하고 생활화했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이른바 '살려가는 사랑'을 중심으로 한 이번 책은 자비희사(慈悲喜捨)의 사무량심을 잘 명상하고 응용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녀사랑이 완성되며,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 모두가 대해탈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한다. '업을 녹이는 참회기도' '108배를 올리며' '염불하며 관상하라' 등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법은 물론, 각 장마다 불교적 자녀교육의 다양한 예화와 자녀를 교육하면서 경험한 저자 자신의 깨달음을 함께 수록하여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총 3장으로 구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장 〈집착부터 비워라〉에서는 여러 가정문제의 원인이 '나'의 집착에서 비롯되었음을 되짚어 보고, 제 2장 〈불교의 자녀 사랑법〉에서는 사무량심(四無量心)에 기초한 자녀사랑법을 논한다. 또 제 3장 〈자녀를 위한 기도법〉을 통해 근심과 걱정 대신 자녀를 향한 축원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도록 기도하기를 당부하며, 〈부록: 효도로 부모사랑을〉을 끝으로 효도로서 부모와의 맺힌 업을 녹이고, 향상의 길로 나아가기를 축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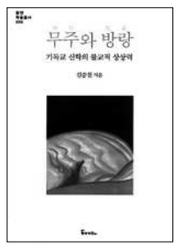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그릇되게 하거나 퇴보하는 길을 걷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저자는, '서로가 서로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나가는 방법을 실천토록 당부한다. 또한 더 나아가 기도를 통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보다 좋은 인연, 참된 결실로 거두어 가길 염원한다.

김주일 기자

불교와의 대화 통해 바라본 기독교 신앙

무주와 방랑

김승철 지음 | 동연 펴냄 | 1만 7천원



이 책은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연구해 온 신학자 김승철 교수가 불교와의 대화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자기 이해를 새롭게 시도한 연구서이다. 저자는 불교로 대표되는 동양종교문화와 기독교로 대표되는 서양 종교문화의 상호성과 상이성에 대해 깊이있는 연구서들을 발표했다. 이 책에서는 불교철학의 무주(無主)의 개념과 서구 근대 해체주의의 용어인 방랑이라는 개념으로 불교와 기독교 사상의 본질을 풀어 합류점을 찾아낸다.

또한 선불교의 즉비의 논리를 기독교 신학에 대입해 서구해체 신학과 마주 댐으로써 기독교 신학이 넘지 못하는 이분법적 논리, 서구철학이 아직도 그 논리에서 큰 도약을 이루지 못한 변증법 논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김주일 기자

불보살님의 자비와 가피를 함축하고 있는 진언(다라니)!

진언의 공덕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진언 사경!**



사륙배판/112쪽 내외/각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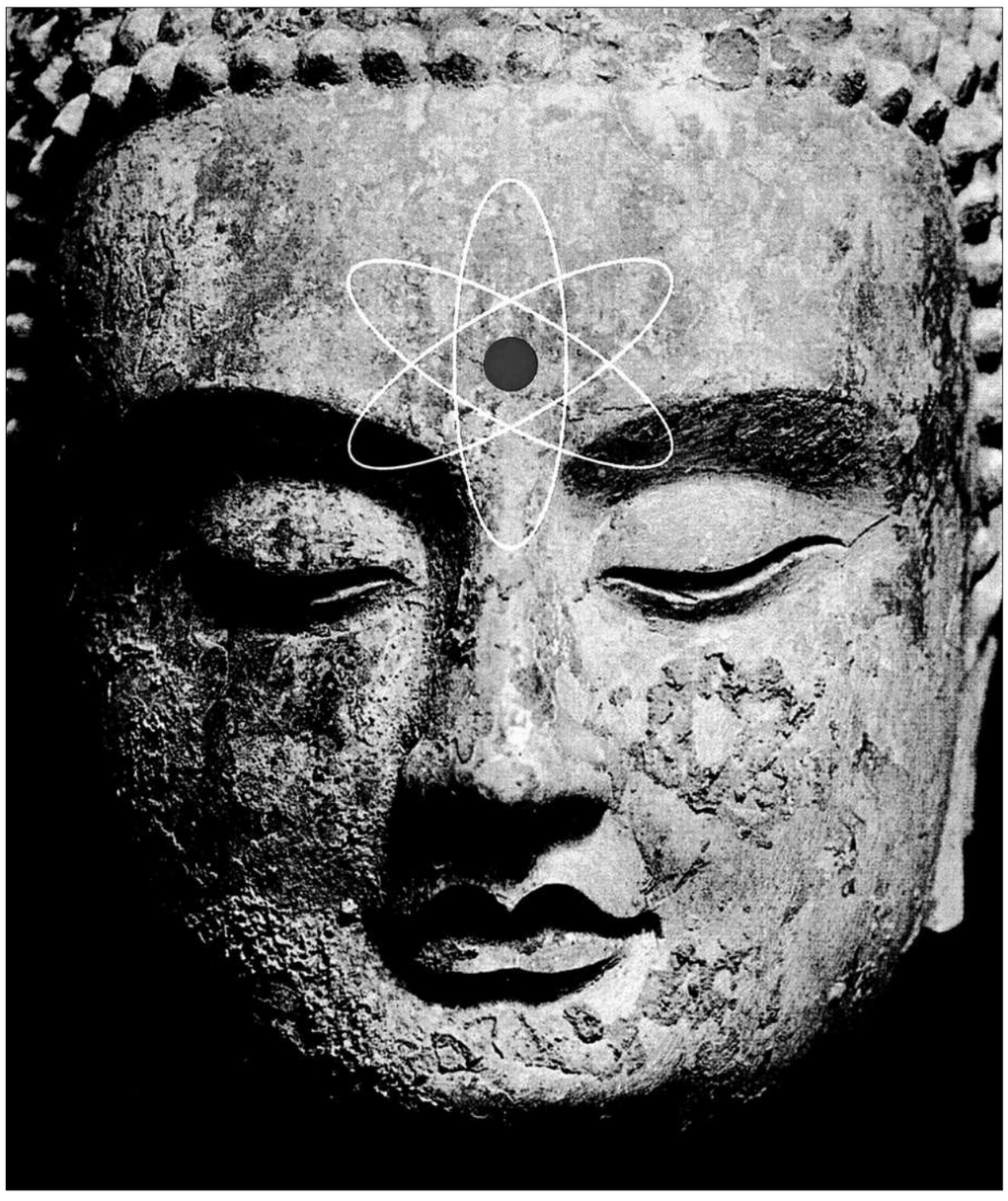
1 과거세부터 지어온 죄업을 참회하는 진언
2 업장을 소멸하는 진언
3 태교와 어린이를 위한 진언
4 학업성취를 위한 진언
5 병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언
6 소원성취를 위한 진언
7 취업과 승진을 위한 진언
8 화목한 가정을 위한 진언
9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부르는 진언
10 돌아가신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위한 진언
11 건강과 장수를 위한 진언
12 재물을 부르는 진언
13 극락왕생을 위한 진언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과학과 불교

현대물리학과의 새로운 접점

정신·물질 함께 다룰때 '불교=과학' 조명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의 이론 물리학자 숀 캐럴(Sean Carroll)박사가 쓴 〈현대물리학, 시간과 우주의 비밀에 답하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이 책에서 양자역학을 설명하다가 캐럴 박사는 불쑥 이런 말을 한다.

"현대물리학이 고대 불교의 지혜를 재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캐럴 박사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모두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과학자들은 불교적 진리를 비롯하여 종교적 진리를 과학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못 마땅하게 여기지만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양자역학이 불교교리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상당수 있다. 종교적 현상이나 종교적 진리를 과학적으로 해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여기서 논의할 수는 없다. 다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캐럴 박사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현대물리학에서 말하는 내용이 불교교리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과, 관측 장비의 발달로 인해 이제는 뇌/신경과학이 불교의 선(禪)과 열반(涅槃)처럼 주관적인 종교체험내지는 종교현상에 관한 것들의 의미를 어느 정도까지는 과학적 바탕위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불교의 '선' 과 '열반' 의 의미를 물질과학인 물리학과 마음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뇌/신경과학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선지식들이 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말 중 가장 자주하는 것은 적적성성(寂寂惺惺)과 고도의 정신적 안정일 것이다. '깨어 있음' 과 '정신적 안정' 은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넘어 가게 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둘은 '안정과 동요(動搖)' 라는 모순된 마음상태(paradox of calm commotion)를 뜻한다. '선' 을 가리켜 '모순된 마음상태' 라고 하는 것은, 적적성성은 정신이 별처럼 초롱초롱하게 깨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서, '깨어 있음' 은 두뇌신경의 흥분 즉 활발한 활동(동요)에 대응하고, 정신적 안정은 두뇌신경의 낮은 활동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뇌파를 측정하거나 자기공명영상장치(fMRI)를 사용하여 선정 중에 있는 선승들의 뇌를 조사해보면 '안정과 동요' 라는 모순된 심리적 사건이 두뇌에서 실제로 일어난다고 뇌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선이나 명상 및 기도를 할 때는 부교감신경계의 활동이 높아져서 생리적으로는 대사율이 낮은 상태에 이르고, 심리적으로는 안정과 평화감이 나타나며, 교감 신경계 반응을 억제하여 스트레스를 차단한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뇌파를 측정하면 감마파도 나온다는 사실이다. 위스콘신대학교 데이비슨(R. Davidson)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티베트 불교 승려는 깊은 명상 속에서 놀랄 만큼 강력하고 침투력이 강한 감마뇌파를 발생시키는데, 이때 신경계의 광범위한 영역이 초당 30-80회의 통일된 펄스를 나타내어 마음의 광범위한 영역을 통합하고 하나로 묶는다."

일반적으로 감마파는 극도의 흥분이나 불안 및 긴장을 나타내는 파로서 스트레스파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선정에 든 선승들에게서 나오는 감마파는 불안과 스트레스와는 상관없고, 서로 떨어져 있는 신경회로를 하나로 묶거나 시각이나 청각같이 서로 다른 감각적 특질들을 통합하여 고도의 집중과 정신통일을 나타낸다. 학자들은 극단적인 각성과 정신적 안정이 결합될 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태의 극치가 바로 열반이다. 열반은 불에 탄 재와 같이 그릇된 욕망이 꺼진 상태이고 자타(自他) 구별 없이 모

열반 경지선 우주와 내가 하나

'양자 얽힘' 은 불교교리 뒷받침

불교교리, 과학 발달따라 각광



김성구
이화여대 명예교수

든 것을 하나로 보는 경지를 가리키는 말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우다나' 에서 열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흙도 없고, 물도 없고, 불도 없고 바람도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 그 속에는 이 세간도 없고 출세간도 없고…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이것은 괴로움의 끝이다. …비구들이여 태어나지 않은 것, 변하지 않는 것,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태어남, 변화, 지어짐으로부터 벗어남도 없을 것이다."

여기서 영역은 초월적인 세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안이비설신의의 여섯 가지 감각기관(六根)으로 지각하는 세계를 뜻한다. 같은 육근으로 보는 세상이지만 범부가 지각하는 세상과는 달리 열반의 경지에서 보는 세상은 땅이나 물과 같은 개별적인 요소도 없고, 이것들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고 부처님은 설한다. 구성요소도 없고 만들어진 것도 아닌 그 세상은 '이것' 이나 '이것 아닌 것' 으로 구분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즉 열반의 경지에서 지각하는 세상은 '나눌 수 없는 하나' 로서 우주와 '나' 가 하나로 된 세상이다.

신경과학자 앤드류 뉴버그(Andrew B. Newberg)는 fMRI를 사용하여 깊은 선정 가운데 있는 선승들의 뇌를 조사하였고, 불교의 선을 오래 동안 수행해오던 신경과학자 제임스 오스틴(James H. Austin)은 우주와 '나' 가 하나가 된 경지를 직접 체험하였다. 두 사람의 설명에 의하면. 선정에 든 사람의 두뇌에서는 공간과 방위를 감각하고, 자타를 구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정위연합영역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한다고 한다. 자타를 구분하는 두뇌의 기능이 정지한다면 우주와 '나' 가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상할 것은 없다. 그렇지만 두뇌의 어떤 기능이 정지된 것으로 인해 자타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는 두뇌의 착각에 의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리학적 고찰이 필요하다.

양자역학은 관측자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객관적 실재를 부정한다. 양자역학의 정통적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코펜하겐 해석에 의하면 모든 물리량은 관측자가 측정하였기 때문에 그런 양이 나오는 것이지 관측자가 측정하기 전에는 그런 물리량이 실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어떤 물리량이 실재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생각에 아인슈타인은 동의할 수 없었다.

"어떤 물리계를 대상으로 물리량을 측정하여 질량-에너지 전기량 등의 값을 얻었다면 이 값을 주는 물리적 실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값을 얻은 것이다"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생각이었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자 포돌스키(Podolsky), 물리학자 로젠(Rosen)과 더불어 직접 측정하지 않고서도 물리량을 알아낼 수 있는 실험방법을 1935년 발표하였다. 이 실험을 EPR 파라독스라고 하는데 원리는 다음과 같다.

스핀값이 '0' 인 입자가 전자와 양전자라는 두 개의 입자로 분리되어 서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하자. 스핀은 팽이가 도는 것처럼 어떤 입자가 자전을 할 때 그 회전의 세기와 방향을 말해주는 물리량이다. 모든 소립자들은 실제로 팽이처럼 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스핀을 갖고 있다. 코펜하겐해석에 의하면 측정 전에는 전자도 양전자도 허깨비 같은 존재다. 어느 쪽의 스핀도 결정되어 있지 않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스핀이 1/2이거나 -1/2로서 그 값을 측정하게 될 확률이 똑 같다는 것뿐이다. 분리 된 후 시간이 흘러 전자와 양전자 사이의 거리가 수백 광년쯤 떨어졌다고 하자. 이 문제를 분석하고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전자의 스핀을 측정하여 그 값이 1/2이면 그 즉시 수백 광년 떨어진 양전자의 스핀이 -1/2로 결정된다. 이것은 수수께끼다. 상대성이론에 의하면 정보의 전달속도는 빛과 같다. 전자의 스핀이 1/2로 결정되었다는 정보가 전달되어야 양전자의 스핀값이 결정될 터인데 그렇게 되려면 수 백년이 걸려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자의 스핀값이 결정되는 즉시 수백광년이나 떨어진 양전자의 스핀값이 즉시 결정된다.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다른 사람이 측정했다면 -1/2이 될 수도 있었다. 그때는 양전자의 스핀값이 1/2로 나타날 것이다. 정보전달에 걸리는 시간을 무시하고 양전자의 스핀값이 즉시 결정된다는 것은 파라독스이다.

이런 파라독스가 생긴 것은 측정 전에 입자의 실재를 부정하는 양자역학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전자와 양전자의 스핀이 얼마인지를 양자역학이 예측을 못할 뿐이지 측정 전에도 전자와 양전자는 이미 결정된 물리량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아인슈타인의 주장에 대해 보아는 이렇게 응수했다. 측정 전에는 두 개의 파편이 분리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관측 결과 몇 백 광년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판명 될지라도 측정 전의 물리계는 단일체로 보아야 한다. 분리되었다고 생각하고 계를 기술하면 이미 물리계에 교란을 준 것이다. 1982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아스펙(Alaine Aspect)이 EPR이 제안한 문제와 관련된 실험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보아가 옳음이 판명되었다. 수백광년 떨어져 있어도 거리에 상관없이 전체는 하나로 얽혀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 얽힘을 양자 얽힘(Quantum Entanglement)이라고 한다. 우주의 만물은 태초에 한 지점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우주의 근원을 추적해 들어가면 모든 만물은 양자적으로 얽혀 있다. 적어도 물질계가 하나인 것은 두뇌에 의한 착각이 아니다. 그렇게 전체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면, 오직 하나인 텅 빈 마음이라면, '나' 라는 것이 어디 있고 '우주' 라는 것이 어디 따로 있겠는가? 전체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이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 세계를 주체와 객체, 내부세계와 외부세계, 육체와 영혼이라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현대물리학이 불교교리를 과학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현재의 과학으로선 불교적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만큼 만족스럽게 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질과 정신을 함께 기술하는 과학이 탄생할 때 비로소 불교는 아인슈타인이 말한 우주적 종교(cosmic religion)로서의 면목을 갖추고 새롭게 조명을 받을 것이다.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현불샵 리뉴얼 기념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9만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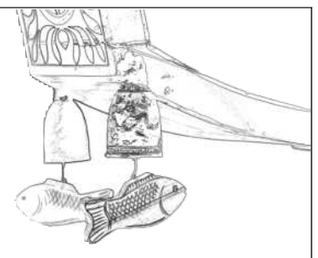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얼룩새의 몸은 하나지만 몸의 색깔은 수없이 많듯
사람 역시 몸은 하나지만 마음의 얼룩은 얼룩새의
빛깔보다 더 많으니라.

- 잡아함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허리병 고치는법 배울분

발명내용 및 효과
발명특허 획득
뒤틀린 척추, 골반, 고관절 각도,
다리길이 불균형을 바르게 교정하는
운동법. 아픈 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
네이버, 다음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 음 범 패 대 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백발백중 귀장술

쉽게 보는 회전원판
네이버 ·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 특허 : 30-0721929
수강생 모집
010-8558-234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방편술

- 경쟁사회에서는 능력자 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
- 방편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가 25만원
010-4735-3232
농협 352-0284-3938-73 하영옥



침구술 배우실 분 명 리 배우실 분

개인지도
(활인지 주지 직강)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2번출구
02)3487-2311

청 소

- 이사, 입주, 상가, 공장, 사찰 청소
- 제초, 벌초작업
코끼리 청소가 하면 다릅니다
(서울 경기 지역)
(주)코끼리청소 1566-8986

우주광명 기(氣)천도재

사바세계최초 "재물(음식)을 차리지 않고 목탁, 염불"을 하지않는 우주광명 신통력 기천도재
각종질병,우환,업장소멸과 완벽한 조상천도 / 장애로 인한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움 해결 / 가장빠른 깨달음과 해탈 사후 극락왕생 / 아미타불 일광부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우주 기천도재
우주광명 신통력 일광 합장
경남 창녕 010-3586-6091

관상 · 손금

얼굴,손금만 봐도 어디 질병이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 스님 특별 개인지도(일반인,철학인,무속인)
- 암,질병,산소조상,가족재판,교통사고 운을 관상, 손금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 전국 어디든지 출장 가능함
- 개인지도(나이관계없음) 자격증 수여
010-4014-8822

불교문화강좌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주지 원합니다

스님이 안계신 절이나
불사가 어려운 사찰을
무보시로 도와 드립니다
스님 도움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세요
(60대 비구승)
010-5699-4848

부전스님 공양주(초보자 환영) 모십니다

(밀양 삼랑진 삼봉사)
010-4484-5758

공양주 보살 구합니다

(부산)
010-7311-5335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031-842-1070
010-9944-1075

本.像.事를 아시나요

10여년전 本.像.事 철학을
현대불교신문 게재 후 다시뵙게
되었습니다. 상담 후 강의록
요강지 무료로 드립니다
인천에서 玄玄(신윤기) 합장
010-2589-5702
메일 syk9831@naver.com

실전 방편술

명리와 귀장술 - 1개월 완성
기 초 를 알 면 - 1주일 완성
사찰운영 하시는 스님, 보살님
무속인은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중생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기도를 하면 성불을 받는가?
정확하게 답해 줍니다
호산 합장 010-4540-0061

물상 및 형상 실전 통변 공개강의

일시 : 2015. 3. 4(수) 오후 2시~5시
장소 : 원각사
(서울 강북구 솔샘로 64길 39 미아동)
강사 : 토우 선생 / 참가비 : 1만원
수강기간 : 6개월 완성
수강료 : 1백만원 선불
010-5506-9457
물상 및 형상통변의 진수를
직접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인과의 업장소멸 해법

만사 만생의 고를 풀어가는 글문 비방
- 불치병(병명無)
- 빙의(신병)
- 사업,소원,가정사상담
- 알수 없는 풍수탈
- 인생의 고는 인생방정식의 해법으로 답을 찾자
- 번뇌 해탈은 불정사에서
불정사 도정 치우 합장
051)558-5585. 010-4593-2918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아주 묘한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께 확실하게 전수 합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구성학 인연관법 특강반 수시 모집

(개강일 : 3월 10일 화요일)
특강내용 (8주 인연관법 전문 족집게 완성)
* 구성 명반 쉽게 작성하는 방법
* 구성학 개개인의 인연법에 맞는 조상 천도제, 칠성제, 젊은 영가 천도제, 태아령제, 빙의 등의 제(祭)를 한눈에 찾는 방법
* 1년 운세 및 한달 운 쉽게 통변하는 방법 * 각종 택일 쉽게 찾는 방법
* 강의시간및기간: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 6시 30분 (3시간)씩 8주간
* 수강인원 : 12명 (인원이 12명을 넘으면 다른 요일로 분반 합니다)
010-5116-9313 문의 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 구성학 학회 강남 안병내 배상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향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화,금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다"

값 3만원 / 농협 박근창 032-02-024451
스님과 불자님들이 읽어야 함.
홍증법사 100일 법문
능엄경 중심으로, 영가천도, 조상숭배 실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꿈바위교육원 010-6789-5008

암 병고액난 상담치유

암, 간질(천병),정신병(미친병),귀신병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분 과 풍파가 많고
우환이 끊이지 않는 분 치유상담
불광사 해산 스님 010-7321-0404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영가 찾는 법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1번출구 성대시장)

불 교 의 식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점안식,
각종행사를 봉행합니다
범음범패, 바라춤, 작법무, 살풀이, 극락무, 회심곡
다보사 주지 성원 합장
010-4802-3290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천 은 사
- 사찰주소 : 부산시 진구 엄광로 495번길 47-1(범천2동)
- 법 명 : 지우 (이정호)

위 인과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9일

대한불교법화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영산재 50호 유네스코 등재된 서울경기범패 불교의식 범패 학인모집

❶ 도량석, 종송,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❷ 사시불공, 시다림, 방생의식, 39위 작법, 설주이운
❸ 천도재의식, 49재의식, 구병시식, 상용영반(기제사)
❹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요잡바라
❺ 나비춤 : (도량게, 다게) 법고춤
❻ 사 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❼ 화청, 공덕게, 행보게
■ 개강일 : 2015년 3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 6시
■ 장 소 : 부산 동구 초량3동 1162-1 서강빌딩 5층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 종무원 / 전화 051)442-1818
● 속성반 :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속성반 장소 : 경남 함안군 군북면 중앙리 25-2번지 군북파출소앞 광법사
● 강주 : 민지효 스님 010-4466-3575
※ 동주대학교에서 불교기초교리와 불교음악 공부하실 분.
전화주십시오. (불교교리 : 민지효 스님, 불교음악 : 가수 이현주)
● 담임교수 : 민지효 스님 010-4466-3575
전화 051)200-3244 / 팩스 051)200-3420
부산시 사하구 사리로 55번길 16 동주대학교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 (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 (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 종 서 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무료공개강좌

(연결카페 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일 시 : 3월 6일 (금) 오후 2시
■ 대 상 : 명리왕초보반 (영가기초포함)
영 가 특 강 반 (포교원운영자)
■ 강 의 내 용
① 한 맺힌 조상 찾는법, 조상(귀신)이 발동한(대,세운) 것을 아는 법
② 천도는 얽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서 해야 효험이 빠르다.
③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으며 영가를 정확하게 뽑아낸다.
④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⑤ 신경성, 우울증 등으로 마음안정이 안되거나, 공부가 안되는 학생

명리왕초보반강좌
○ 듣기만 해도 기억되는 쉬운오행풀이, 한자 몰라도 됨
○ 기초반 2개월과정 모집 - 수강료 2개월 30만원
○ 기초가 없으신 분은 초보반 수강후 영가반에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백 암 역 리 원
02)597-1101.010-9150-2284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1번출구 (성대시장 성대마트앞) - 동작구 상도동 315-5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지난날의 일을 참회하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리라.

- 법구경 -

사 찰 안 내

▶ 바다조망 토굴 터 안내◀
- 위치 : 거제시 바다조망 최고
- 총부지 : 526㎡ • 가액 : 3800만원

▶ 아름다운 토굴 안내◀
- 위치 : 순천시 낙안온천 부근
- 법당 : 61.8㎡ 석담조 기와지붕
- 총부지 : 5,000평(종교용지 186평)
- 가액 : 3,500만원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관광 사찰 안내◀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건물 : 법당 48평 및 요사채 38평, 원주실 15평
- 총부지 : 1,900여평
- ★세계불교박물관(5400여년 전 벽락맞은 대추나무화석 등 석물 300여점보유)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만원 인수 (은행 5억 별도)

※전국사찰 30년 역사※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 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암 자 양 도

- 위치 : 단양 암자 양도
- 1층 건물 약 76㎡ 노천불
- 토지 6,000㎡. 과실수입 2천만
- 양도금액 : 3억 1천만원
- 조용함토굴로 적당, 뒷편은 산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감포읍
- 대지 1,019평
  대웅전(木)20평. 종각(木)4평
- 산신각, 용왕각, 종무소,
  요사채 3동
- 가액: 4억(절충가능)

010-3517-2226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 여수, 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6억 8천만원, 조절가능

010-3855-7885
010-3604-54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
- 3층건물중 1층 45평
- 삼존불, 소불 140불정도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8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900만원

010-9988-7242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 위치 : 서울
◎ 부지 : 1300평 ◎ 대지 : 60평
◎ 법당 : 50평,외전각2채 ◎ 법당 : 30평
◎ 요사 : 120평 ◎ 요사 : 40평
◎ 양도 : 16억 5천 ◎ 양도 : 8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석불,골동품,탱화,고서,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경남 하동 지리산 사찰 양도
* 건물 97㎡, 요사채 79㎡. 총건물 3동
* 토지 5,500㎡ 계곡접한 조용한 사찰
* 양도가 : 15억 (분할 양도 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절 앞에 낙동강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음
- 평수 : 120평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 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6천 5백만원

010-5555-8744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동래구 로타리 인근
- 대지 200㎡, 건물 223㎡, 3층 법당
- 법회나 각종 의식행사 등에 민원 없음
- 시설 깨끗하고 도심의 조용한 사찰
- 지하철 도보 2~3분거리 대중교통편리
- 신도분들이 언제나 편안히 기도할 수 있는 사찰
- 가액 : 6억

금호부동산 연산가-13-1645(이찬수)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

051)861-223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3동 140-70 금정시장 사거리
- 4층 중 3층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1,300만원,
  월세 40만원

010-5656-044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내 역세권
- 대지 500평, 법당 20평
  요사채 50평
- 도심 속 조용한 사찰
- 가액 : 15억
- 대구시내 근교 1억 5천에서 40억까지 다양한, 사찰
- 포교당 상담 가능함 (중계 보조원)

010-5534-7239

사찰 요양원 수련원 전원주택지 안내

- 위치 : 충남 금산군 진산면
- 정남향 5,000평, 진입로 포장, 전기 상수도 지하수 완비
- 좌청룡, 우백호 잘 되어있음
- 평당 20만원
- 꼭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3675-1288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찰 및 납골당 건립 최적장소 (급) 안내

- 위치:충남 논산시 양촌면 반야리 110번지 양촌 IC에서 15분 거리
- 대지 : 500평, 전 · 답 : 3,000평
- 요사채:50평 방5개, 후원방1개 욕실완비(심야전기)
- 농가주택 1동(80M암반수)
- 좌청룡 우백호, 현무, 주작이 잘 갖추어져 있는 최적의 도량
- 가액: 9억 5천(절충가능)

010-3435-2356

포 교 원 안 내

- 위치: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 평수: 30평, 법당, 방2, 주방, 욕실
- 건물4층, 옥상사용 가능
- 버스정류장 앞, 3호선 6호선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3천 8백만원

02)357-3623
010-9511-0840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영월읍 태화산 아래 남향
- 목조 법당 약 15평
- 산시각, 요사채 합 약 1,200평
- 금액은 상담후 결정 (기타상담 가능)

010-3288-131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 2동 대구은행 옆
- 평수 : 30평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7740-600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구포시장(농협 : 구포지점 ↔ 신협)
- 2층 50평
  건물(법당 올수리, 옥상단독 사용)
- 시설: 삼존불, 지장단, 신중단, 칠성단, 소불 200불
- 친견실1, 객실2, 공양간 식당
- 즉시법회 몸만오세요! 민원없음!!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600만원

010-5348-2568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소재
- 부지 : 약 6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2층 청기와 단청)
- 요사채 : 45평(1층 : 방 3개 지하 15평(기도실)
- 가액 : 3억 8천만원
- 특징 : 도심번화가에 위치한 포교도량으로 주지스님 개인사정으로 인해 저렴하게 양도코져 합니다.

- 위치 : 청주시 흥덕구 소재
- 부지 : 800평(국유지 포함)
- 법당 : 35평(2층 청기와 단청)
- 요사채 : 35평(1층 방 3개)
- 가액 : 2억 8천만원
- 특징 : 청주 IC에서 5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도정진할 도량으로 정말 좋습니다.

※ 전국소재 사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서울)010-5728-0455 / 대구)010-5848-0455
동진사찰 공인중개사 대구광역시 북구 공항로 78(복현동 1층)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삼방동 571-1번지 선경복합상가 4층
- 평수 55평(법당, 거실, 부엌, 화장실, 엘레베이터)
- 전세 : 2000만원에 달세 8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955-497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 대지 800평, 대웅전 20평, 산신각 3평, 요사채20평 주차장 100평,
- 기도하기 좋은곳, 산세가 좋고 물 맑은곳. 송이, 능이 많은 곳
-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람

011-9571-655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근교
- 대지1000평 임야 2000평 총 3000평
- 건물 5동 타종 1총 6채
- 양도가 : 15억

상담문의전화 :
010-9818-096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산성동
- 수십년된 명당터 사찰
- 대지 420평, 법당 1동, 요사채 1동
- 공찰소임 관계로 조건 맞는 스님께 협의 양도코저 함
- 가액 : 협의 조정

010-4263-0801

멋진 한옥 토굴 암자

- 위치 : 경북 청도군 풍각면 근교
- 대지 233평, 기억자 한옥 56평
- 대구 밀양 30분거리, 선원별장, 전통찻집
- 내부 인테리어 양호, 에어컨 3대 설치되어 있음
- 태양광전기, 대밭, 잔디, 정원양호
- 가액 : 2억 3천만원

010-7417-4560

- 토굴 20평 200백에 월 25만원 있음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 법당 : 목조 18평
- 요사채: 목조 30평
- 전각 : 목조 3동
- 기타 부속 건물 3동
- 부지: 전, 임야,대지-약 1890평
- 양도가액:4억5천만원

011-854-9559
꼭 매입할 의사가 있는분만 연락주세요

부산 온천장 중심 법당

- 2층 공양실, 방 2개(약 50평)
- 3층 법당, 방 1개(약 50평)
- 100% 살림완비 몸만들어오시면 됨
- 가액 : 전세 2천만원
- 월세 : 일백십오만원
- 시설비는 거의 없음, 보시고 결정

010-4010-4070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 의성군
- 초목이 가득한 암자
- 유실수, 정원수 가득, 넓은 공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1년 350만원
  ※ 양도도 가능

010-8826-8373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래)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위치, 양쪽계곡, 앞쪽으로 전망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

010-6288-906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22-37번지 사거리 입구
- 평수 23평, 집기시설 일체, 몸 만 오시면 됨
- 스님건강상 급 안내
- 가액 : 전세 500만원 월 20만원 집기일체, 시설비 1,000만원

010-4680-93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대지 : 157평
- 법당 : 25평(목조건물임) 요사채 2동
- 시설 완비
- 가액 : 3억

010-3508-771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천마산 감천동 버스정류소 앞 큰 도로변 자가용으로 송도 해수욕장 3분거리
- 2층 약 60평, 위치 환경 특 A급
- 큰법당,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용왕단, 산신각, 영가단, 포대화상
- 큰공양간, 방3, 샤워실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0-7337-1727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토 굴 안 내

- 위치: 대구시 중구 대봉동 729-2
- 1층 15평, 2층 15평 합 30평
- 가액 : 보 500만 월 35만
- 보, 시, 물 합 1,700만원

010-2878-3380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6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포교원선원

- 위치 : 부산 금정구 남산동 전철역2분거리
- 4층 건물 중 2층, 약 50평, 큰 선방1, 방3개, 거실 및 주방
- 정남향, 조용함, 명상센터로 최적지, 주차장 있음
- 깔끔, 최신인테리어, 냉방, 바닥 필름 난방
- 가액 : 전세 1,500만, 월 60만원 (절충가능) 시설비 3,000만원

010-9317-91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병곡면 원산리 621. 622. 623번지
- 2차선 도로와 약 50m 떨어진 길 있는 지적도상 맹지임,
- 독립된 공간. 근경에 저수지, 폭포, 쏟아진 바
- 50년 넘은 소나무로 둘러 싸여 있음
- 가액 : 3억 2천 1백만원

010-3519-5939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울주군 두동면 부근 부근
- 대지 187평, 대웅전 25평, 지장전, 삼성각, 대중방 8개 예쁜 용왕당
- 연못 및 청정지하암반수 있음
- 가액 : 보증금 4,000만원에 월 30만원
- 양도가 : 2억

010-4855-7205
010-3036-767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성주군 선남면 연봉산자락
- 대지 400평
- 법당 40평, 창고 30평
- 불상및 비품시설완비
- 주차시설완비
- 아늑하고 조용한 남향터
- 가액 : 1억4천만원

054)931-4449
011-543-2161
010-3123-3113

사 찰 안 내

- 위치 : 도청 신도시 예천
- 물 좋고 공기좋은 상리
- 연꽃피는 아담한 사찰
- 대지포함 토지총1.000평
- 몽땅 1억 8천

011-861-6252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안락동 서원시장
- 평수 약 50평, 방2, 부엌, 욕실
- 4층 중 3층 삼존불, 소불
- 집기일체 몸만오시면 됨(개원 8개월)
- 가액 : 전세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300만원

010-4541-1140
051)532-114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하단 1동 하단시장 부근
- 2층 35평, 방2개, 법당
- 몸만오시면 됨(완벽한 조건)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35만원 시설비 600만원

010-2654-4828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울주군 두동면 부근 부근
- 대지 187평, 대웅전 25평, 지장전, 삼성각, 대중방 8개 예쁜 용왕당
- 연못 및 청정지하암반수 있음
- 가액 : 보증금 4,000만원에 월 30만원
- 양도가 : 2억

010-4855-7205
010-3036-767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소재
- 종교용지 및 대지 약 59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2동
- 가액 : 2억 8천

010-5114-0172
010-4320-8842

행복해지는 연습

초감 트룽파(티베트 승려)

〈3〉 감정의 투사

"자기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 보세요"

학생1: 감정적 베일은 층이 여러 개 있나요? 각기 다른 감정에 한 층 이상의 갈등 관계의 감정들이 베일이 있는 그런 구성인가요?

트룽파: 나가르주나가 인간심리학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실제 감정이 있어요. 우리가 주로 감정이라 부르는 직접적인 감정이지요[受]. 그리고 그 감정의 의도가 있어요. 즉 감정이 만들어내는 혼란이 의도를 만들어내지요[想]. 그리고 그 감정의 활성제[行]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에고가 자신을 유지하는 기본 공식으로 귀환됩니다.

에고는 자신의 바퀴를 움직이게 만드는 미묘한 방식이 없다면 자신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바퀴들은 약간만 밀어도 움직여요. 그리고 나면 더 빨리 구르지요. 마지막에는 극히 빠르게요. 무엇이든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다 같은 원리에요. 처음에는 느리지만 그 다음에는 빨라지고 종국에는 극도로 빨라집니다.

감정의 층들은 매혹에서 시작됩니다. 무언가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에 매혹됩니다. 하지만 종국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무언가가 거기 있을 가능성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그리고 나면 훨씬 더 모험심이 늘어나지요. "무언가 거기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찾아보자, 작업을 해보자."

이제 모든 것이 좀 더 리듬을 타고 움직입니다. 이제 당신이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움직임만이 아니라 속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저 발견만이 아니라 그 발견 후에 무엇이 오는지, 그 발견 후에 또 다른 발견이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감정 상태는 한 가지를 체험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과정이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학생2: 우리가 무언가를 외부에 투사하고 그것이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이 무한한 혼란을 반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트룽파: 무언가를 외부에 투사했을 때 그 투사는 또한 다음에 올 것에 대한 메시지가 됩니다. 소리를 지르면 그것이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지요.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당신의 메시지에 반응을 합니다. 당신이 어떤 주파수를 내보내면 그것들이 자동적으로 반사되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로서 언제나 존재합니다. 과학적으로 모든 것은 그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과정을 다 계획하고 전략화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자연적 상황이 존재합니다.

반사되어 오는 것을 대하는 방법은 내면의 차원입니다. 그것을 위해 당신은 또 다른 전술과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처음에 무언가를 외부에 투사한 것은 충동이었어요. 충동적 행동이었지요. 그런데 외부로 투사한 것이 당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예기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만 할지 당신은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 종류의 형식주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누군가가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집중화되고 자의식이 강해집니다.

학생3: 스승이 저를 천천히 칼질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승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공격심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각종 사회적 게임 역시 통하지 않지요. 하지만 절절하고 격렬한 고통이 존재해요. 그것에 감사의 마음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어쨌든….

트룽파: 그 스승은 당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다만 당신의 반응만을 다루는 거지요. 이해가 되나요?

학생3: 아니요.

트룽파: 스승의 칼질, 즉 수술은 다름 아닌 당신의 반응에 대해서 행해지는 거예요. 매우 흥미로운 물질인 당신의 반응을 조각조각 잘라낸 다음에 그 조각들을 다시 꿰매는 거지요. 그런 후에는 나로파가 틸로파를 만나기 전의 최초 단계 같은 최대로 모호한 상황에서조차 당신에겐 가지고 놀 만한 것이 없어요.

나로파는 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거부 반응을 보이지요. 그리고 그 거부 반응이 다음 상황을 자동적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를 위한 메시지가 늘 추가되었지요. "내일은 괴기 서커스를 보러 가야지." 그는 그 메시지의 의미를 추측하는 데 계속 실패하고 다만 반응만을 합니다.

학생3: 우리의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나요? 우리의 반응이 주변 상황과 그렇게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또는 그 상황에 그렇게 공격적이 아니라면 그런 마찰은 없는 건가요?

트룽파: 이것은 당신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거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수술은 언제나 당신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의 가능성에 대해 행해집니다. 내 말은 당신은 도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학생4: 그렇다면 즉각적 반응을 넘어서는 어떤 소통이 존재함을 알면서 어떤 반응이든 있는 그대로 당신의 반응을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승에 대한 근원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트룽파: 그래요. 하지만 당신은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동시에, 또한 상황이 그렇게 엉망진창인 한 그 상황을 피하고 싶지 않다는 남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기에 당신의 숙명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카르마의 상황인 겁니다.

학생5: 저는 자신의 몸에 더 관여해야 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생각보다는 몸에 더 관여해야 하는 상황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까? 그 점을 잘 모르겠어요.

트룽파: 우리가 시작하는 지점은 물리적 상황입니다. 물리적 문제가 대체로 스승을 만나도록 이끌어주는 근원적 상황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나로파의 자살 기도는 틸로파를 그곳으로 오게 만들었어요. 마침내 나로파가 자기 몸에 실제적 관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틸로파는 유일한 해결책은 속세에 관여하는 것임을 깨닫는 지점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선택한 해결방식에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요.

학생5: 저는 그것을 에고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보는데요.

트룽파: 그렇지요. 하지만 나로파는 에고를 마음이 아닌 몸과 동일시 함으로써 오류를 범한 겁니다. 무엇이 진짜 에고이고 무엇이 에고가 아닌지 혼돈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그냥 생각하지요. '항상 나를 방해만 하는 이 귀찮은 몸을 제거해버리기만 하면…' 하지만 그것을 없애버리면 당신은 차후로 가르침을 받을 기회마저 버리는 겁니다.

몸을 에고로 혼돈하게 되면
자살 같은 어리석은 생각 사로잡혀

감정을 외부에 투사하면 자동적으로
다시 내게 되돌아와 연료처럼 작용
투사할 대상 없으면 감정도 없어

실은 늘 우리 곁을 맴돌면서 방해하는 것은 에고이지 몸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말해서 자살 기도는 혼란된 나로파의 입장에서는 지성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는 에고의 상징주의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당시 유일하게 존재하는 방법이었고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 앉아 답답함을 느낀다면 창문을 열든지 벽에 있는 그림 하나를 떼어내든지 등등의 행위를 하겠지요. 적어도 그것들은 상징적으로는 지성적인 조치이겠지만 실질적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학생6: 린포체는 첫째 감정을, 둘째 감정의 의도를 말씀하셨고, 셋째 무언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트룽파: 그것은 감정의 발달 단계입니다. 우선 감정과 의도와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탐구심입니다. 우선 탐구심이 있고, 그런 다음 그것이 사물을 움직이고, 그 움직임은 더욱 모험적이 됩니다. 종국에는 당신은 현재의 발견에는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무언가를 얻는 것은 더 이상 답이 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더 많이 얻는 것이 답입니다. 그것 역시 처음부터 존재했던 탐구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대중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초감 트룽파

탐구심의 발달을 가리키는 티베트어는 '규와(gyuwa)' 이며 일종의 명멸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매우 밝은 플래시 빛과도 같습니다. 플래시를 들고 사물을 보는 동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 눈부신 빛 때문에 눈을 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빛이 꺼진 다음에는 당신은 지연 반응으로 훨씬 더 빨리 움직입니다. 이런 현상이 규와입니다.

규와는 매혹이 일어나는 충동적인 순간이며 당신의 반응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것은 이 빛나는 순간에 플래시의 불빛을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다음 것, 그 다음 순간을 잡으려고 합니다.

학생7: 그렇게 하면 자신의 페이스보다 앞서가지 않나요?

트룽파: 실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잃어버린 시간을 보충합니다. 효율적인 관리자가 거기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감정에는 그렇게 갑작스럽고 조작적인, 충동적인 움직임의 시작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당신의 탐욕, 증오 또는 그 밖의 감정을 투사할 대상이 없다면 당신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을 외부에 투사할 때 자동적으로 당신에게 되돌아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돌려받은 것을 기초 자료로 해 더 많은 것을 다시 외부로 투사합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연료처럼 작용합니다. 그렇게 계속 돌아갑니다. 무언가를 외부에 투사하면 당신에게 연료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연료를 태워 다음 투사에 사용해요. 그렇게 전체 맥락이 만들어집니다.

학생8: 틸로파가 되풀이해 제시한 메시지의 의미, 즉 어떻게 '나라는 것을 믿는 이 몸' 이 제거돼야 한다는 것인지, 또 어떻게 '자기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트룽파: 다시 말해서 에고는 바람직한 연료로써 연소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에고를 연료로 사용하면 멋진 모닥불이 만들어집니다. 좋은 불을 피우고 싶다면, 장작에 습기가 없고 많은 열기를 내며 재가 많이 남지 않는 그런 모닥불을 피우고 싶다면, 비에고의 관점에서 볼 대 에고는 전 우주에서 가장 좋은 연료입니다.

이 유쾌한 연료, 고도로 효율적인 연료를 발견하려면 자신의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즉 에고가 타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거울은 당신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불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좋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지성적이고 극히 실질적이며 과학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전방위적(360도)비전이라 할 수 있는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면 다음 번 에고의 연료를 고르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중생의 삶을 깨달음으로 가는 디딤돌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중생의 삶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이 두 상황은 상의상존적입니다.

정리=이나은 기자

이 글은 〈행복해지는 연습〉(솔바람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폴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어린이 마음거울

윤지원 엮음(조계종 포교원장)

나는 향기로운 사람이에요

I am a caring person.



인격 가꾸기

인격은 사람의 품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기원전 384~기원전 322년)는 훌륭한 인격은 바르게 행동하며 사는 것,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 옳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예절을 지키고, 옳고 그름을 가려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야말로 인격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작가이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로 유명한 새무얼 스마일스(Samuel Smiles, 1812~1904년)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천재성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재성은 감탄을 자아낼 뿐이지만 인격은 끊임없는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갈고 닦고 쌓아 올려야 합니다. 마치 높은 산을 오르듯이 꾸준함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훌륭한 인격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은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너울북퍼)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무조건 내가 옳다고 우기지 않겠어요

I will not insist that I am always right.

황희(1363~1452년) 정승은 조선의 첫 번째 임금인 태조 때 벼슬길에 올라 세종 때 정승을 지냈습니다. 청렴하고 사리에 밝은 성품 탓에 임금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특히 세종은 대신들과 회의를 할 때 "황희의 뜻대로 하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어느 날, 황희 정승의 집에서 여종들이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서로가 옳다고 우기던 여종들은 황희에게 판결을 부탁했습니다. 한 여종이 사정을 말하자 황희는 "네 말이 옳구나" 했습니다. 또 다른 여종이 자신이 더 억울하다며 사정을 말했을 때 황희는 "네 말도 옳구나" 했습니다. 옆에 있던 조카가 "숙부님, 둘 다 옳다고 하시면 잘하고 잘못한 걸 가려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묻자 황희는 "네 말도 옳구나" 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황희는 억울해하는 여종들의 심정을 헤아려 둘 모두를 위로해 준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두 여종 모두에게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알아챘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자기 것만이 최고이고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만이 최고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이 진리라고 우깁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헤아려보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일이 더 많습니다. 반드시 하나가 옳으면 하나는 틀리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맞아', '너는 틀려'라는 생각보다 '아하, 그런 방법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 방법도 좋은데'와 같은 생각이 친구와의 사이를 한층 부드럽게 해 줄 것입니다.

* 무조건 옳다고 우긴 일이 있나요?
* 여러분이 우겼을 때 주변 사람의 반응은 어땠나요?

내가 말한 것은 책임지고 지키겠어요

I will always keep my word.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 인도의 독립운동가, 1869~1948년)에게 한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 왔습니다.

부인은 간디에게 아이가 설탕을 너무 좋아해서 걱정이라며 설탕을 그만 먹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이가 간디를 존경하기 때문에 간디가 당부하면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디는 부인과 아이를 되돌려 보내면서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간디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얘야, 설탕은 몸에 해로우니 그만 먹으렴."

간디의 말에 아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인은 고맙다고 인사하며 일주일 전에는 왜 그 말을 해 주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부인, 일주일 전에는 저도 설탕을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디는 아이에게 충고의 말을 해 주기 위해 일주일 사이에 설탕을 끊었던 것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를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디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한자로는 언행일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행동은 따로 합니다. 이렇게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 보여서 남에게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 간디의 이야기를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 여러분은 말은 쉽게 하고 지키지 않은 일이 있나요? 왜 그랬나요?
* 말과 행동이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남의 탓을 하기보다 내 잘못을 먼저 생각해 보겠어요

When something goes wrong, I will think about what I could have done better instead of pointing fingers at others.



도산 안창호(1878~1938년) 선생은 1910년, 정부 대신 이완용 등이 한일 강제병합에 찬성하는 도장을 찍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도 아니고 이완용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오. 일본이 내 조국에 손톱을 박을 때까지 내가 가만히 있었고, 이완용이 조국을 팔도록 내가 내버려 둔 탓이오. 나라를 망하게 한 책임자는 바로 나 자신이오."

안창호 선생뿐 아니라 그 당시 독립운동에 몸담았던 분들은 모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지식인들이 한일 강제병합을 임금의 탓으로 돌리거나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잘되면 제 복, 못되면 남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에서는 책임을 벗어나고 싶고, 성공한 일에서는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물론 내 잘못이 아닌 남의 실수로 일이 엉망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창대회에 나갔는데 피아노 반주가 틀리는 바람에 노래도 덩달아 틀린 경우처럼 말입니다.

남의 탓을 하다 보면 모든 걸 비뚤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 깨우치고 발전할 기회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라를 잃은 게 왜 자기 탓이라고 했을까요?
*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 남의 탓을 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70번째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신간! 실증설 5개 국어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해 홀연히 펜을 들어 일시에 써내려간 실증설! 실증한 이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도리로 가득한 이 책이 드디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더하여 5개국어로 편찬되었다.

禪의 일상, 禪의 누림!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 선사님 서문 중에서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자기 따로 있고 주인공 따로 있는게 아니라 자기가 즉 주인공!



그림 · 최주현

주인공 관법에 대해서

질문 저는 불교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한마음선원에서는 관하는 공부법을 가르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도 무상관과 부정관이 있었고 대승불교의 금강경에서는 공관을, 그리고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를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공에 관하는 공부 방법은 어떤 것인지요.

답변 처음에는 일체를 모두 나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걸 모두 나라고 봤을 때 일체의 움직임도 나요, 일체의 모습들도 다 나다 이겁니다. 그렇게 일체를 나로 보게 되면 모든 경계가 자연스럽게 놓아집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지금 시대는 머리가 깨었다 이겁니다. 차원이 높아졌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높아진 대로 가르쳐야지 전에 하던 대로 육신이 영원치 못하다는 것을 꼭 송장을 봐야만 알고, 썩는 걸 봐야만 알고, 뼈만이 남는 걸 봐야 하는 시대는 넘어갔어요, 벌써.

이제는 생각만 해도, 죽으면 썩는다는 것을 알고, 썩으면 온갖 벌레들이 이것 먹고 저것 먹고 나중엔 뼈다귀까지 다 먹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봐야만 알고 느끼는 수준을 넘어서란 얘깁니다. 알고 있는 걸 관하게 되면 빈 맷돌 돌아가듯 하거든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힘이 쓰이지가 않아요. 그러니 '일체 심이 다 나요, 일체 몸이 다 내 몸이요, 일체 아픔이 다 내 아픔이요, 일체 모두가 나로 인해서 생긴 거다.' 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체를 그렇게 알고 감사하게 주인공 자리에 놔라 이거지요.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하면서 '야, 일체를 들이고 내는 게 바로 내 한마음이로구나. 그것이 바로 네놈이 아니냐?' 하면서 관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놈이 뭘꼬?" 하라지만 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일체를 들이고 내는 놈이 네놈이지.' 하고 관하면 되지, '주인공, 나를 어떻게 해 주시오.' 하며 둘로 보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일체는 네가 있기 때문에 모두 들이고 낸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관하라 이거죠.

그런데 관하다가 망상이 자꾸 들어온다면 그 까닭은 애당초에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쨌거나 관하는 데도 자꾸 망상이 들어오면, '이 생각도 네놈이야!' 하고서 관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한군데로 모으는 관법입니다.

그런데 왜 주인공도 부처님 자리인데 이놈이라고 하느냐 하고 묻기도 하는데 그건 불쑥 나오는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그놈이라 할 때도 있는데, 사실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이도 되고 그분도 되고 당신도 되고, 또 나도 되고…. 그런데 왜 '그놈이 하는 거야!' 그랬느냐 하면 주인공을 너무 높게 설정할까 봐 그래요. 그래서 가끔씩 "그놈이 있잖아?" 이렇게 해 버린단 말입니다. 주인공을 너무 높게 보아도 낮게 보아도 안 돼요. 그저 평등하게만 보아야지. 그래서 어떤 때는 주인공이라 했다 어떤 땐 그놈이라 했다, 어떤 때는 자성신이라 했다 어떤 때는 본존불이라 했다, 어떤 때는 자성심이라 했다가 그렇게 막 말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 많은 말이 나가도 '한 놈도 없는 그놈'을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분별하고 따지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바로 하나로만 생각하지, 둘로도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내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주인공이라고. 주인공은 이름이지만 지팡이와 같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의지할 데가 없고 그러면 지팡이를 짚어야죠? 그렇지만 눈이 밝아지고 그러면 지팡이는 저절로 놔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공에다가 모든 것을 믿고 다 놔 버리세요. 다 놔 버릴 때 하나로 돌아가게 됩니다.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작용을 하는 거지 누가 작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천배를 하고 나서 눈물이 났는데

질문 제가 처음에 초발심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산이 좀 높은 곳에 가서 삼천배라는 것을 해 봤는데, 열 시간 동안 삼천배를 딱 끝내고 나니까 왜 그렇게 울음이 나는지요. 너무나 환희롭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그때의 기억을 오랫동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삼천배를 통해서 제 몸이 정화가 되고 업식이 녹아드는 도리가 아닌지요.

답변 삼천배를 하셨다는데 그 삼천배는 한 사이가 없죠. 그런데 마음으로 '내가 여기 가서 삼천배나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극한 그 마음 때문이지 몸뚱이로 절을 했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몸으로 삼천배를 해야만 된다 이런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는 이런 바쁜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시공이 없는 마음이며 체가 없는 마음이며 자유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체가 없는 건데, 만약에 일배가 삼천배고 삼천배가 일배라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을 둥글려서 한마음으로서 일배를 지극하게 했다면 삼만 배 한 것보다도 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도인들이 "무거운데 왜 염주를 목에다 지고 다니느냐? 왜 목탁을 들고 다니느냐? 가죽 속에 다 넣어 가지고 다니면 가벼울 텐데." 이런 말을 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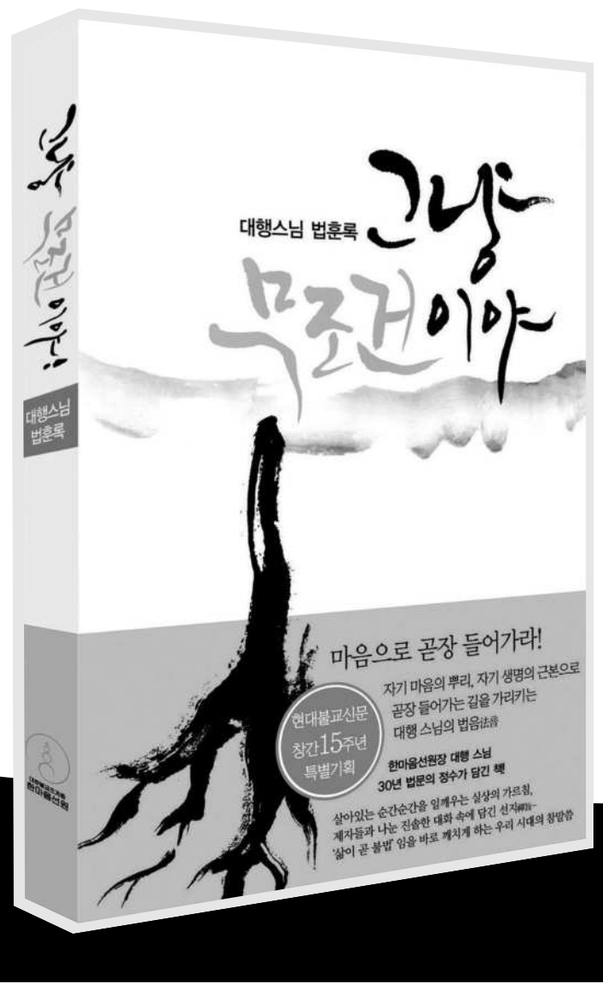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그러니 마음이 바깥으로 끄달리지 마시라 이겁니다. 내가 절을 하든 법당에 가든 부처님의 형상이 나와 둘이 아닙니다. 모두가 둘이 아닙니다. 마음도 둘이 아니요 생명도 둘이 아니요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에, 둥글려서 부처님 한군데로 대고 절을 하든지 그 부처님을 끌어다 내 속에 놓고 그냥 하든지, 둘로는 보지 마세요. 만 불의 부처님이 있더라도 그 만 불을 휘어잡아서 전체를 한 주먹에 넣고 뭉쳐 거기에 넣고선 절하라는 겁니다. 주인공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삼정례를 올리고 칠정례를 올리고 팔정례를 올려도 그것이 진정한 일배만은 못하다 이겁니다. 진실한 일배!

관했는데도 왜 안되는지요

질문 단도직입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선원에 다니시면서 부터 어머니도 많이 바뀌시고 어려웠던 집안도 큰 걱정 없이 살게 되는 것을 어려서부터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있기는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요 몇 년 잘되던 사업도 너무 안되고 그래서 어머니 따라 절에 다닌 지가 한 3년 정도 되어 갑니다. 그런데 절에 나와서 나름대로 관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약발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왜 어머니는 되는데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주인공이 전체 하는 일을 주인공에다가 되놔라!

☞ 29면에서 계속

제가 관하면 되지 않는 것인지요.

답변 무조건 "나는 주인공에 관했는데도 왜 안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진짜로만 했으면 왜 안되겠습니까. 또 만날 자기 이외의 주인공으로 아니까 그렇죠. 진짜 자기라는 걸 어찌 모릅니까? 자기가 하고 자기가 거두는 걸 어찌 모릅니까? 세계적으로 종교를 모두 믿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타신에게 기도하고 상대를 보고 믿고 찾게끔 전부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물속에서도 헤매고 물속에서 나오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그 회오리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러는데도 죽고 사는 걸 헤아리지 못합니다. 또 자식을 낳고, 알을 낳고도 다 그냥 몸소 자기 몸을 던져서 죽어 버리고 이러는 시련을 겪으면서 진화가 돼서 땅 위로 올라왔는데 땅 위에서도 지금 물주머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런 형국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딴 형상을 믿거나 딴 데 이름을 믿거나 허공을 믿거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부처님께서도 "공덕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득이 하나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너부터 먼저 알아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알게 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그 방식이 아니라면 안 되기 때문에, 구멍은 한 구멍이니까 그 한 구멍에다 놓고 가게,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주인공 탓을 하지 말고, 가만히들 생각해 보세요. 모두 자기 탓이죠. 주인공이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 여러분의 이름. 왜냐하면 고정됨이 없이 끝없이 돌아가니까. 보는 거 듣는 거 모두가 고정됨이 없으니까 주인공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두 주인공 죽는 법은 없죠.

이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 주인공에다 되놔라. '네가 저지른 거라면 네가 해결을 할 수밖에 없잖아. 네 머리가 잘못 돌아가서 잘못된 거라면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그 모든 거를 거기에 맡겨 놓는다면 이 몸속에 있는 모든 의식들이 털구멍을 통해서 나가서 다 조절을 하는 겁니다, 둘로 보지 않으니까. '주인공!' 하면 전체 거기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니까 말입니다. 개별적인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자기가 되는 거죠. 몸속의 생명의 의식들도 모습들도 다 자기가 되는 거죠. 주인공 하나로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품의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감응도 될 수가 없고요. 만약에 타신을 찾아서 어떠한 일이 생긴다 보인다 들린다 이런다면 그건 미치는 발광쟁이가 되죠. 내면의 자기 주장자에 의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잘못되는 일이 없어요. 정의 정당하게 생활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나는 관했는데도 왜 안 됩니까? 나는 관하는데도 안됩니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주인공 따로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재주를 부리는 짓을 하니까 그게 안되죠. 진짜로 자기인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살던 자기가 현실에 사는 자기와 둘이 아닌 주인공이 바로 자기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이끌어 나가게 만드는 거죠.

고인 물을 그냥 둔다면 썩어 버리지마는 자꾸 새 물이 들어오고 고인 물이 나가고 이렇게 한다면 그 물은 아주 청수가 되는 겁니다.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목석이 되는 것이고 또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내면서 자꾸 굴리면 바로 물리가 터지고 지혜로운 생각이 자꾸 넓어져서 자기의 성품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도 공부하시면서 알고 모르고 간에 발견이 돼서 해 나가는 분도 있으실 테고 또는 감응이 돼서 희미하더라도 '아, 이거로구나!' 하고 알고 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십 년 이십 년 삼십 년 공부를 해도 그 도리를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구멍에 들이고 내는 것이 바로 자기 주인공이 하는 거라는 것만 알면은 아주 쉽습니다. 자기 따로 있고 주인공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즉 주인공이라는 얘깁니다. 주인공이 전체 하는 일을 주인공에다가 되놔라 이겁니다. 그래야 앞서 입력됐던 것, 자기가 저질렀던 일들이 다 소멸되면서 새로 넣는 그 입력이 새로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을 수차에 걸쳐서 해 드렸는데도 그게 납득이 잘 안되고 그러죠?

하여튼 여러분 각자가 그대로 주인공이라는 것, 여러분 각자가 그대로 주인공이며 그 주인공이 일체를 다, 과거도 현재도 지금 하고 가는 것이라는 걸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일체를 다, 그 주인공 놈이 한 거니까 '주인공, 네가 알아서 잘 이끌어 가야 하지 않아?' 하고 거기다 되놔라, 되놓는 작업을 해라 이겁니다. 처음부터 부처를 찾기에는 너무 이르고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만 한다면 스스로 성품이 살금 살금 살금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일러 드렸는데도 허겁지겁 부처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허겁지겁 그냥 날뛰고, 허겁지겁 아무 이름이나 부르고 무꾸리나 하러 다니고, 급하면 그냥 아무한테고 다니면서 묻고, 아무 절에나 이리저리 그냥 다니면서 기복으로 물들고, 이렇게 하신다면 십 년 이십 년이 가도 절대로 자기 성품을 발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인공은 이름이지만 지팡이와 같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의지할 데가 없고 그러면 지팡이를 짚어야죠?
그렇지만 눈이 밝아지고 그러면 지팡이는 저절로 놔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공에다가 모든 것을 믿고 다 놔 버리세요.
다 놔 버릴 때 하나로 돌아가게 됩니다.

과학과 심성과학에 대해서

질문 어느 책에서 과학은 발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는 가운데에서 느낌으로 아는 것이라는 얘기를 읽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이것저것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과학의 발견은 종교적인 데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큰스님께서 말씀하신 심성과학과도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그대로 우리 생활이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하고 부서지고 또는 모두 모였다 흩어지고 책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생활이 그대로 과학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과 선(禪), 과학은 선이라는 그 자체와는 다릅니다. 이 과학은 과학대로 나를 먼저 발견하고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 가지고 둘이 아닌 나툼을 알아야만이 100% 간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소폭탄을 과학적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수소폭탄 있기 이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천체망원경이 100%라 할지라도 전체 볼 수가 없습니다. 듣는 것을 전체 무전통신기로 듣는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아니 됩니다. 또는 남의 속을 탐지기로서 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과거를 전체 알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넣어 주어야 알 수 있고 나오는 겁니다. 팩시밀리가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온다고 하더라도 물질을 넣어야 물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일러 주신 이 길의 진리는, 그래서 평등공법(平等空法)이요, 칠활궁공법(七活宮空法)이요, 팔수레공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리는 너무나 묘해서 심안으로 볼 때는 빛보다 더 빨리 천체를 간파할 수가 있고 듣는 것은 듣지 않는, 즉 말하자면 무심도리(無心道理)까지, 하다못해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까지, 꽃이 한 송이 피는 것까지도 서로 이심전심으로 통과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학으로써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과학의 바탕은 일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내기 이전을 먼저 간파해야 마음을 내서 과학이라고 발전을 할 수 있고 일체 만법에, 모든 걸 분야에 맞게 할 수 있죠. 근본이 마음이니 마음 떠나서 뭐 있겠습니까.

놓는 것과 의단을 내는 것에 대해서

질문 일체를 놓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일체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체의 생각을 바라보다 보니까 육근(六根) 육적(六賊)이 내 집을 차지해서 이렇게 휘젓는 것도 바라보게 됩니다. 큰스님께서는 주인공에서 그 의단이 자생적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체를 놓는 것과 의단을 내는 것과 가끔 가다 혼동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일체를 놓는 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걸어오셨지만 뒷발자취를 남기지 않고, 짊어지지 않고 오셨습니다. 고정됨이 없이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그냥 놓고 가는 거죠. 놓고 간다는 말 자체도 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만날 마음으로 끼어잡고, 착을 두고, 욕심을 두고 모두 이렇게 하니까 그걸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되풀이해서 말씀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망상도 망상이 아니라 그대로 자생을 길러내는 원소 자체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할 게 없다 이런 거죠. 그 생각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목석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망상이다 하는 관념 그것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놓는다.' 하는 것은 '이게 뭣고.' 하기 이전에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얘깁니다. 과거로부터 이끌어 온 주인이 모든 것을, 몸을 시자로 끌고 다니면서 아프게 했으면 제 시자를 제가 낫게 할 수 있고 또 이끌어 갈 수 있고,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모든 일체 만법은 다 그놈이 하는 일이니 그놈 탓으로 돌려야 하고, 그놈으로 하여금 모든 길을 인도한다는 걸 믿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번연히 뜨고도 쉬는 그런 자체가 돼야 그것이 진짜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는다 그러니까 "다 놓고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놓는 겁니다. 내면에 그대로 들이고 내는 거.

이거 보십시오. 그거를 모르시겠걸랑 들이는 숨, 숨 쉬는 것 있죠? 들이는 숨 자체가 없다면 죽고, 내쉬는 숨 자체가 없다면 죽습니다. 그러면 들이고 내는 숨을 쉬는 것은 어떤 놈이 쉬고 있습니까? 그와 같이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에 여러분이 계시니까 들이고 내죠? 여러분이 계시지 않다면 들이고 낼 것 조차도 없죠. 그리고 여직껏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끌고 온, 진화시키면서 끌고 온 장본인, 지금까지도 끌고 가는 이런 장본인 주인이 아니라면 간파를 못하니까요. 그 주인이 있다는 것을 증명도 못하니까요. 그거는 사람의 마음으로써 다스려서 놓는데 아주 간파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자리에다가 놓는 것이 바로 의단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야만이 의단도 대 의단이 나오지 의단을 일부러 지어서 한다면 그거는 빈 맷돌 돌리는 거와 같다 이 소립니다.

내가 한때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 길이 대로(大路)의 길이 아니니라. 정말 발도 떼어 놓을 수 없는 그런 산골, 아주 그냥 천야만야한 데를 그게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음은 체가 없어서 지구 바깥에도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도리를 배우는 사람들이 육신의 길만 찾아서 다닌다면 그거는 기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한다 이 소립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의 거미줄에 얽혀서 발목을 못 빼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실험이 되고 또 체험이 되고 이런다면 스스로서 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대로 들이고 내는 그놈이 한다는 그 한 가지 믿음만, 뜻만이 남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묘하고 얼마나 무변하고 얼마나 광대한지, 자기도 모르게 어떤 때는 싱긋이 웃을 때가 있습니다.

수정기공 및 기공재활사 자격과정 특강

(사람정비 메뉴얼 수정기공)이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수정기공 재활사) 민간자격(2014-5765)을 등록하고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아직도 약물이나 침 뜸 지압, 마사지 등으로 질병을 치료를 고집하는가?

수정기공은 1-3차원에 강압에 준하는 단계가 아닌 거의 힘을 주지 않는 4단계를 지나 과거 설화나 천기누설같이 사랑의 극치인 5단계 재활 단계로 영육간 불편했던 모든 장애인에게 건강과 희망과 행복을 재활시키는 꿈의 결정판입니다.

◆강 의 일 정 : 매월 첫주 일요일 시작, 1개월 4주 단기코스 (일정변경 가능)
◆강 의 내 용 : 기공을 이용한 사람정비 매뉴얼
◆접 수 인 원 : 선착순 8명 이내.
◆수강 대상자 : 의료인, 물리치료사, 건강과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모든 남녀.

1 강 사 : 김문기 원장 (박사 / 한국 신지식인)
2 교 재 : 환상의 통증치유 STT의 4단계와 5단계 기공법 전수
3 강의 장소 : 수원 성균관대학 전철역 앞
4 접수 및 상담 : 010-3463-7806
5 수강료 : 수정기공 수료 및 자격증 취득과정 전화 상담
6 참고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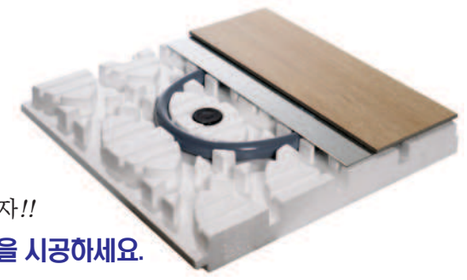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 (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스님,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1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2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3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04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 ISO 14001:2004 인증업체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강남 : 010-5097-8291 익산 : 010-6610-2337
광주 : 010-6890-0365 울산 : 010-4597-5577
양산 : 010-6294-6126 진주 : 010-3583-7139
평창 : 010-6433-8612 창원 : 010-8008-1110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제주도 : 010-3000-1945

불자 세상보기

식품 안전은 사회 건강성의 척도



황재현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

얼마 전 한국양계농협의 가공공장에서 깨진 계란 등 버려야 할 불량계란이나 계란찌꺼기를 혼합한 전란액 및 계란 분말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 공장내부 환경이 방송됐다.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식품원료는 주로 대기업 식품가공업체나 급식업체로 대량 유통되었다는 설명도 덧붙여 들을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뉴스나 기획보도 프로그램은 최근 끊이지 않고 접할 수 있으며, 그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며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일까?

농식품과 관련된 안전관리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수준에도 불구하고 개선 속도는 매우 느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 식탁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정 · 불량식품의 생산 · 유통 · 판매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하면 부정 · 불량식품의 생산 · 유통 · 판매를 줄일 수 있을까?

양계유통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계란시장은 가격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 시장이 된지 오래다.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대규모 생산농가도 존재하고 있으나, 영세한 규모의 생산농가도 다수 존재한다. 깨진 계란의 경우 식품위생과 안전성 측면에서 당연히 폐기되어야 하나, 치열한 가격경쟁 속에서 납품단가를 맞추기 위해 사용됐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위생과 안전성이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해 왔다. 식품위생과 안전문제를 우선시 하다보면 비용이 증가되어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품의 안전 및 위생문제를 등한시하게 되면 기업의 생존자체와 소비자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 급식을 통한 집단식중독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노약자와 어린이(특히, 초 · 중 · 고 · 대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피해 증상도 심각한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 불량식품 사고도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

선진국들의 경우, 부정 ·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나 부정 · 불량식품을 생산 · 유통시킨 업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매운동이 매우 강력한 것을 볼 수 있다. 정부차원의 강력한 재발 방지 노력과 시민들의 불매운동이 더해져 식품의 안전관리문제는 기업에게 있어서 비용의 개념이 아닌 마케팅과 판매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부정 ·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늦춰서는 안된다.

단순히 관련업계의 자정능력 만으로 재발 방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보다 강력한 수단과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역시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관련 부처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적 관심을 통해 제도적 보완을 유도하고 제도적 보완은 산 · 학 · 연이 참여하여 합리적인 시스템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부정 · 불량식품의 제조, 유통, 수입, 판매와 관련된 법규의 강화도 필요하다. 식품 제조업체, 유통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식자재 원산지표기에 대한 기준도 엄격히 적용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혹 이러한 감독의 강화 기능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영세 농식품업체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배려도 필요할 것이다.

부정 · 불량식품의 근절은 그 사회의 기업윤리와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식품위생과 안전은 식품산업의 발전을 나타내는 척도일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건전성과 미래성장성을 나타내는 표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식품소비의 안전지대로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시급한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종교, 이제 '시민 공공성'을 생각할 때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

2014년 4월 한국갤럽(회장 박무익)은 전국(제주도 제외)의 만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에 관련해서 다섯 번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 보고서에는 종교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 정책을 개발하고, 각 종교의 자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한국의 종교문화 흐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1984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30년간 한국의 종교 실태와 의식의 변화를 추적해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종교인의 비율을 종교별로 살펴보면, 불교인 22%, 개신교인 21%, 천주교인 7%, 비종교인 50%로 나타났다. 현재 종교인구의 지형은 불교는 감소 추세, 개신교와 천주교는 정체 상태로 요약된다. 10년 전에는 불교가 약진 추세, 개신교는 정체, 천주교는 감소 추세였다. 불교 인구만 약진에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종교의 비중이 대폭 하락하고 있으며, 의례의 참여율도 개신교인을 제외하고는 크게 하락하고 있다. 반면에 최근 10년 전보다 종교인이 내면적인 종교 경험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개인의 종교성은 증가하는데 비해, 실제 제도화된 종교에 대한 참여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종교적 참여가 개신교인에게는 더 강화되고 있으며, 천주교인은 중간이며, 불교인은 비종교인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다. 요컨대 개신교는 종교조직의 멤버십을 중시하는 경성종교(硬性宗敎)로, 불교는 일반 문화에 스며드는 연성종교(軟性宗敎)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난 30년간 '감소하고 있다'는 응답은 계속 증가하였다. 더불어 종교적 덕목 실천에 대한 긍정률도 크게 감소하였다. 종교의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0%를 넘어서고 있지만, 종교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이런 응답은 종교에 대해서 긍정적이나, 현실의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기존의 종교단체가 종교에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한국 종교계는 종교 내외에서 불어 닥친 부정적 여론에 힘써 대처해야 하는 수성(守成)의 종교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양적 성장(成長)에 길들여진 기존 종교가 이제는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고 내부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밖에 없는 종교 개혁과 쇄신의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쇄신이 없이 개신교처럼 자기의 정체성만을 강화하면 외부 집단과는 거리를 두게 되고 이질성만을 내세워 사회와의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 종교문화의 성숙은커녕 종교가 자기 집단 이익을 위해 각자도생(各自圖生)할 가능성이 많다. 이 같은 부정적인 전망을 극복하고 한국 종교의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종교의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

향후 한국종교에서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는 점을 몇 가지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 종교에서 탈근대의 영성적 종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종교가 더 개인 신앙화되고 영성종교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 모든 종교가 자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의 멤버십 종교로만 지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 세속 사회에 대한 '대안적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데 더욱 많은 노력이 기울여질 것이다. 종교는 항시 더불어 사는 새로운 삶의 양식들을 만들어 왔다. 한국 종교도 그런 방향에서 예외가 아닐 것이다.

끝으로 시민의 구체적인 삶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민적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 진행되고 있는 개인의 종교성 강화 경향, 그리고 제도화된 종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더 이상 종교가 폐쇄 영역에만 안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종교적 활동이 인권, 환경, 복지, 문화, 통일과 같은 세속의 공공영역에까지 확산되어야 한다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은 한국종교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353호에 실린 것으로 저자의 허락을 받아 발췌 · 수록했습니다.

社說

해인사 방장 모시기에 네거티브라니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선출이 문중 간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 후보로 추대된 대원, 원각 스님 양측 추천위원회 간 제소와 폭로 등 상호 공방까지 이어져 감정의 골까지 깊어지고 있다.

벽산당 원각 스님 해인총림 방장 추천위원회는 2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후보인 대원 스님과 원택, 선각 스님에 대한 의혹과 일련의 사전 선거 운동까지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상대편 추진위원장들을 중앙선관위와 호법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제9대 해인총림 방장후보 학산대원 대종사 추천위원회도 2월 2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원각 스님 추천위가 제기한 문제를 해명 · 반박하며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합의 추대를 양측이 주장하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 추대의 분수령이 될 전국선원수좌회의 25일 회동이 불발로 그쳤기 때문이다.

해인총림의 최고 어른인 방장을 모시는 과정이 혼탁해지는 것에 대한 불교계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총림의 최고 권위이자 위엄인 방장마저도 완장이 되는 세상이 됐다", "각 후보를 지지하는 사중 스님들의 폭로와 대립의 구도를 해인사는 과연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라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사회는 종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이는 최근 한국갤럽이 발간한 〈한국인의 종교 1984~2014〉를 보면 잘 나타난다. 한국인의 68%는 현재 종교가 진리보다는 교세 확장에 관심이 있고, 63%는 종교가 본래의 뜻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수행자 · 성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1984년 65%에서 2000년 이후 90% 이상을 상회하며 정점을 찍었다.

상호 비난이 난무하는 해인총림 방장 선출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어떨까. 위의 통계 자료가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정말 불교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양측 후보 진영 모두 잘 살피길 바란다.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에 거는 기대

한국 사회는 현재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다. 서로에 대한 반목과 불신은 이미 사회에 만연해 있다. 이는 자신의 자리에서 본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7대 종교 모임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이하 KCRP)가 2월 25일 건강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종교인들의 자성과 참회를 촉구하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선포했다. '답게'는 사람답게, 종교인답게, 사회인답게 공공을 위해 이바지하겠다는 정언적 각오이다.

7대 종단 평신도들이 주축이 돼 꾸려가는 이번 운동은 4월말까지 추진본부가 구성되면 본격 확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이 등장하게 된 데는 최근 사회에 불신과 갈등, 분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일어난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 모두가 제각기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이어지면서 종교인들부터 각자 자리에서 본분을 지키자는 의미로 기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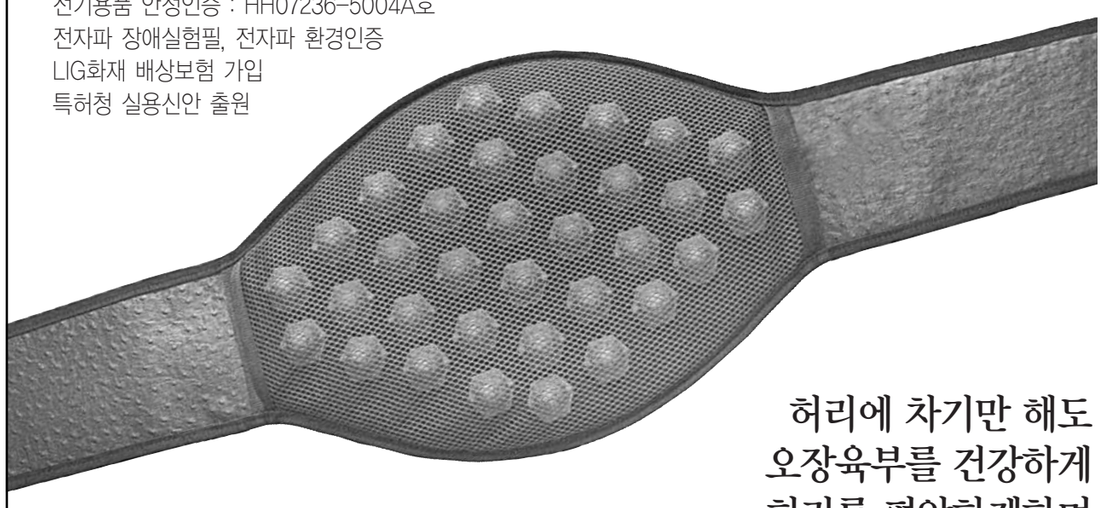
특히 이번 운동이 눈길을 끄는 것은 스님, 목사, 신부가 아닌 일반 신도들을 중심으로 운동이 전개된다는 점이다.

KCRP는 4월 초 범종교 신도 대표 1백여 명이 모여 운동 전개 방향을 고민하는 세미나를 개최한 후 4월 30일 '답게살기 운동본부'를 정식으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곧 〈임제록〉의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과 맞닿아 있다.

'어느 장소에서든지 주인이 될 수 있다면 모든 곳이 참된 곳'이라는 이 경구는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다. '답게 살기'는 곧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종교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意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담허대사 저/ 송상섭 편역(여시아문 刊)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헤맬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말만 풍성하고 핵심이 빠진 내용은 읽을 수록 심혼만 산란해지고 해탈로 가는 길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 책은 그런 폐단이 없다.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하고 싶은 더없이 보배로운 책이다. 경전이나 선정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경건히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내용이다. 그윽이 조심스러운 것은 행여 아상이 높거나 법을 불신하거나 경망한 사람이 이 책을 가볍게 대할까 크게 두렵다. 여래께서 간절히 일러주신 해탈의 돈법(頓法)이 숨김없이 확연히 설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선정을 닦지 않으면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해탈은 문도 없고 길도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삼계를 벗어나 불국토로 왕생하는 염불수행 조차도 선정이 기초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심불란의 큰 집중력은 마련되기가 매우 어렵다. 선정이 깨달음이든 극락왕생이든 모든 수행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관쌍수(止觀雙修)는 순일한 집중력을 배양하는 지(止)와 밝은 통찰에 이르는 관(觀)을 고루 닦는다는 말이다. 줄여서 이를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도 말한다. 집중 위주의 사마타와 관찰위주의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융합적인 수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수행도 만약 너무 한쪽만 쏠려 닦으면 절름발이처럼 원만한 수행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광신도처럼 집중은 잘 하는데 단순하고 지혜가 없거나 지식만 최고로 아는 사람처럼 머리는 있으나 실행력이 빈약하면 지혜와 실천 즉 안팎을 고루 갖춘 큰 수행은 못되는 것이다.

이 책은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위빠사나, 염불과 참선을 닦는 모든 수행자들이 읽으면 수행의 일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책으로서 일독을 권한다.

■ 책 속의 한 구절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

우리의 의식 즉 한 생각 속에는 열 가지 법계(十法界)가 구족하다. 즉 온 우주가 통으로 우리 마음 안에 모두 잠겨 있다. 이른바 십세고금(十世古今, 영원한 시간)이 이 한 생각(우리의 의식)을 여의지 않았으며 티끌과 같은 찰토(刹土, 온 세계)가 털끝만큼도 막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영겁의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우리의 현재 갖고 있는 이 의식 안에 고스란히 다 숨어있다는 말씀이다.

"만약 발심하여 염불하면 일념염불이 일념의 깨달음이고,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인 것이다."

즉 다시 쉽게 해설하면 염불하는 그 생각마다 밝게 깨쳐있는 마음이고 순간순간 외우는 그 마음 안에는 순간 순간의 더없이 밝은 깨달음이 아주 신령스럽게 작용한다는 그 말씀이다. (23p)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과거의 조사님들 천태지자(智者)대사, 영명선사, 우익(藕益)대사, 철오(徹悟)선사 등과 같은 분들도 나중엔 정토로 귀의해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왜냐하면 다른 수행을 하면 근기가 잘 맞지 않거나, 혹은 상당(相當)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아주 쉽고 그 병폐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염불하는 사람은 서천에 대한 믿음(信), 가고자 하는 원력(願), 지속적인 염불의 실천(行)만 구족하면, 이미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력에 의지하니 절대로 길을 잘못 들어설 염려가 없다.

그러기에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다른 수행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삼계(생사를 반복하는 우주)내의 견혹(見惑, 잘못 보아 생기는 미혹)과 사혹(思惑, 잘못 생각해서 생기는 미혹)을 완벽할 만큼 남김없이 끊어야만 진리를 증득하여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말이야 상당히 쉽지만 실제로 상당한 공부가 없으면 결과는 성공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34p)

한마디 아미타불은 최상승의 법이며 무량한 법문(法門)을 포괄한다

아미타경은 석가모니부처님이 무문자설(無問自說, 제자들의 질문이 없는데 붓다 스스로 말씀하심)하셨는데, 서방극락세계의 의정 이보장엄(依正二報莊嚴, 즉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한 장엄)과 염불하여 극락왕생할 것을 설하셨다.

그의 의미는 법화경과 같다. 왜냐하면 법화경도 사리불존자에게 설하셨으며 제자들의 어떤 질문도 없이 붓다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무문자설(無問自說)이었다.

부처님은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난후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들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미간의 백호상광(白毫相光)을 내뿜으며 동방 팔천토(東方八千土)를 비추고 갖가지 상서로운 모습을 나타내어 법문을 듣는 대중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심을 갖게 하셨다.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대중을 위해 의심을 해결한 후에, 부처님은 곧 삼매에서 편안히 나오셔서 청하여 묻는 질문자가 없으나 사리불존자에게 말씀 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무량하다.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일체성문 벽지불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매우 깊은 일찍이 없었던 법을 성취하고..." (52p)

저자 소개

〈염불론〉의 저자 담허대사(1875~1963)



중국 하북 영하(河北 寧河. 현 天津) 출신. 속성은 왕(王)이고 이름은 복정(福庭), 법호(法號)는 융함(隆銜), 자(字)는 담허이다. 17세에 아버지의 명에 따라 혼인을 하여 다섯 명의 자식을 낳았다. 주로 농사일을 하였으며, 아울러 작은 장사도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후에는 다시 의술을 익혔다. 경자사변(庚子事變)을 당하여 영구(營口, 용령성 남부)로 피신하여 한의원을 열었다. 40세에 〈법화경〉을 듣고 즉시 속진을 떠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민국6년(1917) 43세 되던 때, 천진에 있는 청수원(淸修院)의 청지법사(淸池法師)의 인도로 내수 고명사(高明寺)의 인고법사(印魁法師)를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이듬해 남쪽으로 내려와 영파(寧波) 관종사(觀宗寺)의 제한대사(諦閑大師)를 의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아울러 제한대사 슬하에서 천태교관(天台敎觀)을 익혔다. 민국10년(1911) 심양(瀋陽) 만수사(萬壽寺) 불학원에서 강석을 열어 법문을 하였다. 1915년에는 제한법사(천태종 43世)의 부촉(咐囑)에 의해 보정(寶靜, 1899~1940), 정권(靜權, 1881~1960) 법사와 더불어 천태종 44세가 되었는데, 이때 금함(金銜)이란 이름을 받았다. 이후 동북지방 각지에서 경전을 강설하며 불법을 널리 폈으며 아울러 많은 도량을 창건했다. 그 중에서 하얼빈의 극락사(極樂寺), 장춘의 반야사(般若寺), 영구의 능엄사(楞嚴寺)가 가장 규모가 크다. 그 후로 청도 담산사(湛山寺)의 주지가 되어 스스로 담산노인(湛山老人)이라 불렀다.
만년에는 홍콩에서 홍법하면서 화남불학원(華南佛學院)을 설립하여 원장을 맡았으며, 또한 중화불교도서관(中華佛敎圖書館)과 불교인경처(佛敎印經處), 천태정사(天台精舍), 홍법강당(弘法講堂), 청산(靑山) 극락사(極樂寺) 등을 설립하였다. 1963년 봄에 (중화불교)도서관에서 〈능엄경〉과 〈금강경〉을 강의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대중들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가부좌하고 시적(示寂)했다. 세수 89세였다.
대사가 일찍이 평생의 사적을 구술한 것을 제자인 대광(大光)이 기록하여 〈영진회억록(影塵回憶錄)〉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주요저작으로는 〈금강경강의〉, 〈심경의소(心經義疏)〉, 〈심경강의(心經講義)〉, 〈기신론강의(起信論講義)〉, 〈보현행원품수문기(普賢行願品隨聞記)〉, 〈능엄경강의〉 등이 있다. 나중에 제자들이 스승의 법문과 저작을 모은 〈담산대사법회(湛山大師法匯)〉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12선사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깨침의 노래 禪詩 '완전 이해'



(맨윗줄 왼쪽부터) 효봉 혜암 한암 학명 스님, (둘째줄) 용성 만해 만공 동산 스님,(셋째줄) 고암 경허 경봉 만암 스님. 모두가 근현대 한국불교를 풍미했던 선지식들이다.

염화시중의 미소만 미소랴. 한국 근·현대의 불교를 이끌었던 선지식도 중생제도를 위해 한 없는 자비의 웃음을 날렸다. 그러한 웃음을 선가(禪家)에서는 '황금털사자(金毛獅子)의 미소'라고 일컫는다. '황금털사자'란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뜻이리라. 선사들은 삶 속에서는 물론, 법문에서, 제자 사랑에서 그 미소를 강물처럼 쏟아냈다. 이것이 노래로 우러 나오니 바로 선시(禪詩)가 됐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송준영 지음, 여시아문 펴냄)는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선시를 씨줄로, 이들의 삶과 수행을 날줄로 해서 이들 고승들의 진면목을 다루고 있다. 한국불교 근대 중흥조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용성·학명·만공·한암·만암·만해·효봉·혜암·동산·경봉·고암 스님 등 12명의 걸승이 그 주인공이다.

그동안 이들 선사를 개별적으로 다룬 저서도 많았고, 또는 모두를 한곳에 옮겨놓은 책도 적지 않았다. 이 책이 주목받는 것은 선사들의 자취가 오랜 시간 구전되다보니 더러는 뒤섞이기도 하고, 어느 것이 어느 분의 행장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진 측면도 있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계간 '시와 세계' 발행인겸 주간으로 있는 지은이가 18세때 선문에 든 이후 동암·탄허·고송·성철·서옹 스님 등 여러 고승들을 만나고, 특히 서옹 선사에게서는 7년간 7차례나 의문나는 점을 물었고, 그 답을 얻어냈기에 가능했다.

선시를 통해 선사들의 생애를 조망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한 시도다. 하지만, 선시에 대한 문학적 이해가 없어도 가능할까. 지은이는 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 시와 선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다만 선시는 중생을 눈뜨게 하는 한 방편으로 읊어졌다는 데 차이점을 둔다. 본래면목을 보여주기 위한 선시 고유의 수사학(修辭學)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고자 했던 새로운 상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선시여서 크게 어려울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선시를 이해하다보면 조사들의 선풍은 물론, 실험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책에는 12명 선사들의 게송, 법어나 소참법문, 직접 쓴 서간문, 투고글, 대담, 각 선사들의 법맥, 행장, 연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가능한 문도회에서 만든 어록이나, 학자들의 근거 있는 기록, 인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 중심으로 묶었다고 한다.

경허 스님의 '졸음' '돌사람' '심우송' 등 게송은 제목만 들어도 다정다감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고들면 극도로 탈속된 담담한 경지를 보여준다. 만해 스님이 학명 선사의 깨침에 대해 준 지어준 게송(일에 다다르면 고생이 많고/사람을 만나면 이별이 있다/원래 세상이치 이러하니/남아라면 '이것' 마음대로 살라·臨事多難處/逢人足別離/世道固如此/男兒任所之)은 수선납자의 목숨을 빼앗을만큼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본래 선시는 인도의 '가테(gata)'가 중국으로 들어와 '게(偈)'로 음사되었다고 한다. '가테'는 언어를 빌려 언어 밖의 현묘한 이치를 읊은 것. 이 게가 본래 있었던 '송(頌)'과 합쳐져 게송이 된 것이다. 지은이는 선시가 시라는 장르에서 발전된 것이라기 보다는, 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를 차용한 성격이 짙다고 본다. 그래서 선시를 문학이라는 장르에 가두지 말고, '선문화에 대한 진검, 혹은 지혜의 검'으로 승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문염송 강의록 〈현대언어로 읽는 선시의 세계〉로 선시연구의 일가를 이뤘다는 평을 들어 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선시에 대한 해박한 이해며, 고승들의 진면목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돋보이는 책이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
(경허에서 고암까지)
송준영 지음 | 양장
575쪽 | 신국판 | 25,000원

2015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만나는 전통문화체험!

온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전통문화체험으로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2015. 3.12 목 ~ 3.15 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SETEC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1번 출구)

미니티켓 지참시 무료입장
입장료 3000원
(입장수익금은 참가 NGO단체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체험 프로그램	
쪽빛 물들이기	전통 발효 효소 체험
전통문양(금빛 장신구) 체험	스탬프 에코주머니 만들기
전통 매듭 팔찌 만들기	채색 그림 카드 만들기
민화그리기 체험	전통한지체험
한옥건축체험	전통탈, 전등갓, 솟대 만들기
한지 천연염색 전통지화와 전통등 만들기	전통 떡과 화전 만들기
	김치 만들기 체험





관람문의
2015서울국제불교박람회사무국 Tel 02-2231-2011 E-mail bexpo@daum.net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서울특별시 주관 불교신문 실행 마인드디자인

입장티켓
2015 3.12 목 3.15 일
–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SETEC (3호선 학여울역)
2015 서울국제불교박람회 Seoul International Buddhism Expo
제3회 룻다아트페스티벌
Seoul International Buddhism Expo